중구문협 문학상 시상식 및
『중구문학』 제14호 출판기념회










(사)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시상식 및 『중구문학』 제14호
창장 수여식 및
문학상


학상 시상식 및 『중구문학』
표창장 수여식 및
023. 12. 18(월)
장소
구민회관
주최 :


표창장 수여식 및 창작문학상 · 신인문
. 12. 18(월)
장소
중구구민회관
주최 :


표창장 수여식 및 창작문학상 · 신인
. 12. 18(월)
장소
중구구민회관


학상 시상식 및 『중구문학』 제
표창장 수여식 및
023. 12. 18(월)
주최 : 서울중


장 수여식 및
문학상
18(월) 오후 5시
중구구민
주최 : 서울중


(사)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시상식 및 『중구문학』 제14호
장 수여식 및 창작문학상 · 신인문학상
18(월) 오
중구구민회관
서울중구문인


표창장 수여
3. 12. 18(월) 오
장소
구민회관


표창장 수여
2023. 12. 18(월) 오
장
구민회관
주최


표창장
식 및 창작문학상 · 신인
시 : 2023. 12. 18(
5시
중구구민회관

신년시무식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2024년
서울중구문인협회 신년회


024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024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 공감스피치



춘계야유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일시 : 2024년
8일 (월) 오후


2024년 7월 8일 (월)
장소


(사)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일시 : 2024년 7월 8일 (월) 오후 4:30
장소 : 서울중구 구민회관




祝
창립
주년 기념
서울중구문인협회
감사
황윤우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일동
창립15주년 기념


(사)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창립 15주년 기
일시 : 2024년 7월 8일 (월) 오후 4:30
장소 : 서울중구 구민회관

남산자락시화전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
남산자락숲길
숲속의 하모니
전시기간 : 2024년 9월 11일 15시부터 11월 10일까지
주최 : 서울중구문화원 주관 : 서울중구문인협회 후원 : 서울중구청






















사라예보의 장미

추계문학











2024

중구문학

제 15 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발간사 이미옥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장 … 12
격려사 김호운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 14
축 사 박성준 중구 · 성동구(을) 국회의원 … 16
축 사 김길성 서울중구청장 … 18
축 사 소재권 서울중구의회 의장 … 20
축 사 남월진 서울중구문화원 원장 … 22

회원시 길숙경 만날 순 없어도 외 2편 … 26
김권곤 우주역에 정착하다 외 2편 … 30
김나현 천 개의 물감 외 2편 … 36
김봉술 세월 외 2편 … 40
김상실 눈보라 치네요 외 2편 … 44
김성희 기도 외 2편 … 48
김용채 너섬 돗자리 외 2편 … 51
김정자 무심한 세월 외 2편 … 54
김채선 어떤 이별 앞에서 외 2편 … 59
김화인 손녀딸이 뒤집었다 외 2편 … 62
류성춘 저녁노을 외 2편 … 66
민선영 세월2 외 2편 … 71
박광현 소멸(燒滅) 외 2편 … 76
성낙범 나의 병영 외 2편 … 79
신영미 노랑할매 외 2편 … 82
안주일 가을 속으로 외 2편 … 87
오정선 동백꽃2 외 2편 … 90
오지숙 혼자 가는 사람 외 2편 … 93
유긍모 흔적 외 2편 … 97
이동구 설렘 외 2편 … 100
이명순 하얀 그리움 외 2편 … 104
이미옥 달토끼 외 2편 … 107
이현주 라일락의 향기 외 2편 … 110
장윤숙 님의 향기 외 2편 … 113
정은정 철새의 기도 외 2편 … 117

정은희 빛 외 2편 … 120
황용운 저녁노을 외 2편 … 123
황종택 홀로 차 한 잔 외 2편 … 127

회원수필 고응남 자불자불 … 132
김종억 돈호가리 … 134
신용재 바둑판을 보며 … 139
이경희 멍석 … 144
이두백 개인 문학지의 생명력과 영향력 … 146
이미옥 난 아픈데 하나도 없어 … 151
이정연 도시 농부의 밥상 … 153
정재영 실크로드 따라 탄탄 4국을 가다 … 157
하성호 K-한류원조, "천부경 = 당신이 바로 하느님입니다"의 메시지 … 185

꽁트 및 소설 신강우 초졸 선장 … 192
황성혁 작별(作別) … 202

제7회 중구 신인문학상 윤익준 마음의 근육 외 2편 … 222
소재현 보르네오 섬의 추억 외 1편 … 228

특집기획 1 **청계천의 추억**
김호운 '거랑'과 '하천' … 240
김민정 청계(淸溪), 다시 흐르다 … 243
김성희 '서울빛초롱축제'를 찾아 … 245
김종억 청계천 가던 날의 추억 … 250
김화인 청계천의 추억 … 250
이두백 대도심의 심적 압증을 씻어내던 청계천 길 … 258
이현주 청계천 나들이 … 260

특집기획 2 **숲속의 하모니** … 263

| 발간사 |

풍부한 감성으로 엮어 내려간 문학지



이미옥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장

『중구문학』 제15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군요. 중구문인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올해로 4권의 문학지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사고와 이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소설을 씁니다. 풍부한 감성으로 엮어 내려간 문학지는 우리 문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통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중구청 후원과 중구문화원의 주최. 중구문인협회의 주관으로 남산자락에 〈숲속의 하모니〉 주제로 약 80점의 작품으로 시화전을 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한편한편 작품을 읽으면서 인증사진을 담은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

였답니다.
시를 읽고 소설을 읽으면서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된 지금 작은 시 한 줄로도 감동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통로가 되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답니다.

2024년은 참 귀한 흔적을 남긴 해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기록을 남긴 뜻깊고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이 세계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듯이 우리 문인들은 더 좋은 글을 남김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시가 될 수 있고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글은 내 삶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허구든 실화든 각각의 방식으로 쓴 글은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배움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편의 시를 적어놓고 감동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산자락숲길 〈숲속의 하모니〉 시화전을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힘을 주신 김길성 구청장님, 남월진 중구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님들 그리고 중구문인협회 시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2024년 12월 한 해를 보내면서…

| 격려사 |

삶의 가치로 문학숲을 일구는 『중구문학』



김 호 운
소설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중구문학』 제15호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중구문학』이 제15호까지 이룩한 성과는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의 숲을 일구는 일에 헌신한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한국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옥 중구지부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중구문학』이 큰 문학의 숲이 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한국문학이 영광의 날개를 단 해가 되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던 날 우리나라 문인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환호성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학의 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독자가 줄어들고 사회가 삭막해져 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중에 노벨문학상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한 기자

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이 국가나 개인에겐 영광이지만 문학 · 출판계에 큰 변동을 줄 것이라는 기대엔 고개가 가로 저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것이란 희망을 봅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며, 이를 문학 융성이라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자면 무슨 일부터 바꾸어야 할까.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학을 멀리하면 삶의 가치와 인성을 높이는 일에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소홀히 하는 사회는 마치 수목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권의 문예지는 삭막해진 마음을 정화 치유하는 문자로 이루어진 숲이라고 봅니다.

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사람과 자연의 위기라는 말과 통하기에 문학은 위기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문학은 사람과 자연을 탐구하는 예술이자 인문학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한 문학은 존재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자' 라는 인식 변화 운동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구문학』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 문인들끼리 먼저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구심점에 『중구문학』과 같은 문예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은 독자가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의 숲을 이루도록 중구지부가 크게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구문학』 제15호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중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물



박 성 준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존경하는 한국문인협회의 서울중구지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먼저, 중구문인협회의 문학지 중구문학 제1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지역 문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결실을 맺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문인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협회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글을 통해 듬뿍 전달되어 2024년의 말미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구문학은 단순히 글과 작품을 모아 놓은 문예지가 아니라, 중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삶의 결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문학을 통해 중구라는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품은 공간입니다. 그만큼 중구문학은 지역의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며, 지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15호 또한 우리 시대의 고민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문학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지역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힘입니다. 중구문학이 중구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예지로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보며, 중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학인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창작의 불씨가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제15호가 발간되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구문학이 앞으로도 지역 문인들의 쉼터이자 창작의 산실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품 한 편 한 편이 모여 중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이곳에서 시작된 감동이 대한민국 문학의 큰 물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구문인협회의 「중구문학」 제15호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문학의 세계를 응원하며, 이 문학지가 앞으로도 중구와 대한민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지역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



김 길 성
서울 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편' 중구청장 김길성입니다.

중구민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중구문학 제1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구문학 제15호는 시, 수필, 소설 등 다채로운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 중구의 일상과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시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중구문인협회는 2009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문학적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녹아있는 감성을 깨워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매년 변함없는 열정으로 중구문학의 꽃을 피워 주신 이미옥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과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지역과 시대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거울이자 영감을 주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중구문학이 우리 중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지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구문학 제15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중구문인협회와 모든 문학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문학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



소 재 권
서울중구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장 소재권입니다.

중구문인협회의 문학지 「중구문학」 제1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의 문학적 가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중구문인협회 이미옥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학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출판된 중구문학 제15호 역시 중구민의 삶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구문인협회는 다양한 문학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중구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중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문학적 역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중구문학 제15호 출판을 축하드리며,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문학적 성취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남산자락숲길을 주제로 한 “숲속의 하모니” 시화작품 수록



남 월 진
서울중구문화원 원장

우리 중구의 풍성한 문화적 결실을 담아낸 중구문학 제1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구문학은 중구문인협회 회원 여러분의 뛰어난 창작 역량이 빚어낸 작품들로, 중구의 문학적 자산을 한층 더 빛내는 특별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5호는 남산자락숲길을 주제로 한 “숲속의 하모니” 시화 작품이 수록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 문학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로, 지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인 뜻깊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남산자락숲길’은 김길성 구청장님의 큰 관심 속에 구민들께 선보인 복지와 문화의 새로운 장으로, 서울중구문화원이 공모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결과물입니다. 이 숲길을 배경으로 한 작

품들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로, 문학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중구문학은 단순히 작품을 모아 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물이자 중구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학지가 지역 문학의 산실이자 창작의 중심지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중구문학 15호 발간을 위해 애쓰신 중구문인협회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이룩한 결실이 오늘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구문학 제1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시

길숙경	김권곤	김나현	김봉술	김상실	김성희
김용채	김정자	김채선	김화인	류성춘	민선영
박광현	성낙범	신영미	안주일	오정선	오지숙
유긍모	이동구	이명순	이미옥	이현주	장윤숙
정은정	정은희	황용운	황종택

만날 순 없어도 외 2편

길 숙 경

가슴에 묻고 살아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 지우지 말자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소망을 바라고
그님의 소원을 빌어주자

비록 만날 순 없어도
훗날 자연과 함께 묻혀 갈 삶이니

그래도 진정 사랑했다면
그 무엇을 바라겠는가

못 견디게 그리워도 가슴 쓰려 내리며
더 사랑하다 떠나자

삶이 부질없다 해도
마지막 떠날 땐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으므로
뒤에 남긴 발자국 보고 또 보며

그리운 마음
소복소복 채워가며 떠나자

멍울진 마음 풀어가며
천국 인도 환생할 수 있도록

지는 별 뜨는 별

길 숙 경

찬 바람 불어온 끝자락 노을 지고
구름 속에 가려진 별빛 흐리다 하여도
수많은 날 광채로 빛났던 그 별도
새벽이 오면 희미한 여명 속에 사라진다

여명이 걷히고
서서히 비치는 햇살 속에
한 발자국씩 다가온 생의 바람이
붉은 아침 햇살처럼 빛나고 있다

세월의 뒤안길에 지는 별이 있으니
뜨는 별도 있으리라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지는 별을 위로하고
뜨는 별에는 축복으로 임하리라

그리운 임이시여

길 숙 경

찬 이슬에 젖은
고운 잎 하나 애처롭다

그리도 짧은 생애 어느 날
떨어진 낙엽 되어 눈물짓나

갈바람 그리운 임 옷섶에 머물고
그 온기 가슴 깊이 저리네

못다 한 이야기 못다 한 사랑
그 어느 날에 마중하며 반겨 볼까!



길숙경

- 시인
- 중구문인협회 회원
- 시니어 모델

우주역에 정착하다 외 2편

김 권 곤

우주 항공로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우주휴게소
지구의 물을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우주선을 점검하고 연료를 가득 채워준다

'우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로수가 플래카드를 흔든다
상점마다 우주라 쓰여 있는 간판들
우주의 별들을 사고파는 우주중개소
우주식당 우주횟집 우주곰탕 우주짬봉
유자향이 우주찻집에서 노래처럼 흘러나와
여기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세상 같은데
우주병원, 우주약국, 우주장례식장이 영업 중이다

우주의 땅 기운을 잔뜩 머금은
우주쌀 우주유자 우주봉 우주마늘
청정 바다에서 나온 김 갯장어 돌문어가
우주 특산물 머리띠를 두르고 손짓해
카드를 내밀자 덥석 받아 든 우주시장

여기는 지구의 카드가 통하는 우주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만난
늙수그레한 우주인들
갯내 묻은 투박한 말투로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랑가?”
“그랑께, 지구별에서 왔다고 안 그라요”

이곳은 고흥, 지구의 말이 통하는 우주다

성벽을 보수하다

김 권 곤

한때 철옹성이라 불리던 성벽
수많은 적의 침입에 잘 버티어 왔는데
비바람 치는 시간 앞에
성벽 모서리가 뭉개지고
흔들리는 주춧돌 몇 개가 주저앉았다

더 무너지기 전에
주변 성주들에게 의견을 구하던 중
한 석공이 신공법을 제안했다

땅에 쇠말뚝 박는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조립식 석벽을 주문하여 조립하는 동안
이끼 낀 바윗돌을 청소하고
투석전에 깨지고 파인 곳
시멘트로 메우고 철판으로 덧씌워 보강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던 발음
깨진 성벽 사이로 기어 나오는
이것들 때문에 발언권이 약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오타 하나 없이

잘근잘근 씹어가며 말할 수 있다

임플란트, 대단한 공법이다

5월의 근로자들

김 권 곤

5월은
초록 페인트 공장이 성수기다
납품 기일 맞추려
밤낮 가리지 않는 근로자들
배달하는 바람의 오토바이 소리 분주하다
페인트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칠하는 달인의 솜씨에
산과 들은 아침마다 모습이 바뀌어 간다

생산량이 부족할까
약속이나 한 듯
일거리 조금씩 꺼내놓은 나무와 풀
서로 양보하며 서두르지 않는다

냄새도 없고 손에 묻지 않는
무공해 페인트로 초벌 도색 마치면
날마다 그 위에 더 푸르게 덧칠한다
햇볕은 종일 갖가지 꽃 그림을 그린다
봄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은 들판에서
유독 황금색을 고집하는 누런 보리밭
작년 가을 쓰고 남은 페인트 통을 건네준다

이렇게 햇볕이 짱짱한 날
칡과 등나무 같던 노사 갈등에 새싹이 트고
웃음이 초록초록 피어나는
색칠하기 좋은 날이다



김권곤

- 전남고흥 출생
-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졸업
- 서울대 고급금융과정 수료
- 한국거래소 근무
- 한국국보문학 신인상 수상(2016.5)
- 디카시 전국백일장 대회 동상 수상(2024.10)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중구문인협회 회원
- 시집 :「우주역에 정착하다」(2024.9)

천 개의 물감 외 2편

김 나 현

꼬리 아홉개 달린 불여우 같은
여름이 주택단지 햇빛마을에 누웠다

언덕 위 하얀집 펜스엔
영국 장미가 한 가득 흔들리고
옆집 뜨락엔 조용히 국화가 핀다

길 건너 벽돌 담장 위엔
주렁주렁 홍시가 짙어가는 공존의 공간

계절 품속 계절은
어디쯤 아련히 오고 있었을까요

시월이 기울 무렵
천 개의 물감이 쏟아진다

마지막 그곳이란

채색옷 입은 마른 가슴에 대하여
궁금증이 흠뻑 젖는 날이면 어느새

온 몸은 낙엽처럼 갈지자로 걷는다

짧은 계절마저 잃을까
일찍 철든 단풍은 피를 토하고
푸른 곳곳마다 가을장마 지겠다.

얼음강

김 나 현

흐름이 멈춘다는 건
마치 죽음과도 같아

움직일 수 없는 자존감
얼음 신세 되어 누웠을 때

하늘은 안다
태산 품은 강 인고의 눈물을

하늘은 안다
바윗돌 같은 진주빛 두께를

강아 우지 마라
우렁차게 토해낼 새 날 오리니

지난했던 단단함
도도(滔滔)히 바다에 이르라
태양은 에너지를 힘껏 쏟아붓고
빙점은 봄으로 환원 중이다.

가슴 바위

김 나 현

바람을 맞으러
출근길 산책로를 걷는다

적색길 초록 잎새 사이로 다문다문 선 바위들
잘려 버린 사금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 듯
스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수없는 행인과 견공이 오가도
단단한 가슴은 숭숭 뚫린 구멍뿐
강물은 바위의 눈물 가루를 닦아서
어디론가 달려간다

계절이 두번 바뀌어도
글쟁이는 너른 가슴에
시 한 줄 새기지 못했는데
담쟁이가 세필로 시를 써내려 간다

산책로에 시화전이 열린다.



김나현

- 한국문인협회 중구지부 중구문인협회 회원
- 경기민요 전수자(김영임 명창 사사)
- YouTube 청화의 속삭임
- 시집 : 〈꽃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 외 2편

김 봉 술

흘러가는 강물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돌아가는 구름은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아름다운 꽃은 다시피어도
우리의 젊음은 찾을 수 없네
산천의 색들은 변함이없건만
나의 마음은 사색으로 변하네

배봉산의 사계(四季)

김 봉 술

천상의 노래로 화합의 잔치에 초대하고픈
산세의 수려함 속에서 자유로운 연상을 시작한다

개나리 진달래 철쭉으로 화사하게 수놓아
남녀에서 불어오는 포근한 기운으로 맞이하는
상큼한 디자인으로 계절을 예비하듯
노랑 원피스 연분홍 재킷 짙푸른 롱코트
백색 꽃가루로 축복의 세레나데를 펼쳐 보인다

배봉산의 가을 색은 화려함으로 다가오고
울긋불긋 동심의 눈으로 본 정상에는
산야를 휘감아 돈 천심의 마음을 지녔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기운에
앙상한 가지만 덩그러니 보이던 서설의 비취에
보금자리가 화려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희망의 노래로 조용히 겨울을 맞이한다

일어나라
사계(四季)가 역동적인 산이여

향수(鄕愁)의 전당

김 봉 술

아련한 옛 생각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실개천 흐르는 봄볕에는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아버지 사랑 소를 몰고 지게 세워 지나다
하루종일 밭고랑 치다 냉수 한 사발 드시던
후덕한 인심이 스치던 그 시절 그 추억

눈을 감아 풍경을 그려 본다
살며시 감은 눈에 그리움의 이슬이 내리고
가슴마다 심장이 고동치는 설렘으로
꽁보리밥 나누던 가족들의 웃음꽃도 반갑다

앞산은 냇가로 흐르는 논밭의 보금자리
뒷산은 복숭아꽃 흐드러지게 피던 과수원 길 사이로
누이 손 잡고 콧노래로 흥얼거리던
내 고향 어린 시절의 추억 한 장

나도 이제 세월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일까
백색으로 물들여진 머리카락 너머에
눈물짓던 향수의 전당이 새겨져 있다

고향

언제나 불러도 변하지 않는 인심의 덕이다



김봉술

- 서울중구문인협회 부회장
- 국제라이온스클럽 354C지구 고담라이온스 21~2022 회장
- 수상 : 우수 소상공인 서울시장상
- 국내패션산업기여, 산업자원부장관상
- 중소기업기업공로상, 중소기업회장상

눈보라 치네요 외 2편

김 상 실

아부지!
다녀오세요

귀신 소리 날 듯
분패 치던 날
동도 트기 전 아버지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가신다

형들은 다 객지 나가고
어린 4남매는
새벽 눈 비비며
아버지를 배웅했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마루에 서 계셨다

아버지는
상하면(上下面)과 옆 해리면(海里面)
오일장 생선시장 창고지기로
자식 키우기 위해
눈보라 이십 리 길을 걸어 다니셨다

아버지
어찌 지내시나요
잘 계시나요
어머니는 만나셨나요

아버지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24년째네요
오늘 밤에는 아버지를
실컷 불러 보렵니다

겨울 이야기

김 상 실

눈이 올려나
하늘이
시집 못 간 노처녀
아부지 옷 빠는 인상이다

내 고향 고창은
유독
눈이 많이 와
쌓인 눈 속
굴을 파고 놀았지

점심에는
싱건지에
고구마로 때워도
즐겁기만 하던 때가 있었지

눈

김 상 실

이쁘게
왔다가

더럽게
가고 나면

마음에는
허전한 기다림



김상실

- 전북 고창 출생
- 한국예총 보석공예 선임명인 Grand Master
- 한국예술문화명인 발굴위원장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 예술 주임교수
- 2015 신춘문예지 “공예가의 아침이야기”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상임이사
- 한국문인협회 중구지부 이사

기도 외 2편

김 성 희

사막의 모래바람 헤치고
태초의 바람길 따라 돌아온
거부할 수 없는 저무는 시간 앞에

소란하던 나의 기도가
어느 사이 가난하고 소박한
침묵의 기도로 바뀌고

타서 부서질 부지깽이 같은
허무로 가득한 어리석은 삶이
잠시 햇살에 머무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상처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간절한 겸손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차마 못다 한 이별이 외롭지 않기를
사랑의 기도로 깨닫게 하소서

어의 가시

김 성 희

잔잔한 물살을 베듯
마음을 가르는 쇳소리
신의 노여움일까
바닷바람의 시기심일까
림프샘에 전이된 종기 같은 언어들이
깊은 침묵의 늪 속에 갇혀
피할 수 없는 형벌처럼
세포 마디마디 녹아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엉킨 시간의 굴레에 포로가 된
비뚤어진 언어들이
포효하며 흔들어대는 몸부림

섬세한 마음을 갖추지 못한
가시의 언어들이
거센 파도에 밀려 허우적거린다

사방치기 (동시)

김 성 희

엄마를 기다리며
땅바닥에 그려 놓은
사방치기 놀이

땟 구정 꼬맹이 신발
말 돌 되어 한가운데 머물고
말 돌 던져 얻은
사방치기 하늘땅 누워

파란 하늘 몽실몽실 떠가는
솜이불 구름 타고
엄마 마중 나선다



김성희

- 시인, 시낭송가, 낭송지도자
- 우리들예술단 가수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부회장

너섬 돗자리 외 2편

김 용 채

습설이 부러뜨린 팔다리가 즐비하다
임계각 넘나드는 뜨내기가 줄을 잇고
떳다 방 돗자리부대 종주먹질 해댄다

설피의 계절

김 용 채

하이힐 제겨 신고 포도 위를 걷는 여자
챙 넓은 모자 밑에 어둑 저녁 썬그라스
잘록한 개미허리를 털 난 팔이 감는다

산허리 좁은 길에 신발 한 짝 잃은 사내
뚝 떨어진 외톨이 밤 주판알을 튕기는데
화들짝 놀라 깬 젖꽃판 탱글탱글 익는다

계절이 또 바뀌고 가마솥에 눈 내린 날
굽 높은 구두 위에 설움 깊은 팔자걸음
산돼지 발톱을 찢고 설피 한 짝 신는다

강원 골 겨울 여행

– 동아일보 2024.12.06. D1 패러디

김 용 채

눈밭에 낭만 여행 강원 명소 찾아가자

춘천 삼악 케이블카 발아래 든 세상 딛고, 원주 판대 아이스파크 동양 최대 인공 빙벽, 강릉 왕산 안반데기 고산지대 명품 마을, 동해 묵호 논골담길 사람 사는 스토리 마을, 태백산 국립공원 천제단을 품은 영봉, 속초시 청초호는 동해 설악 길을 잇고, 삼척 근덕 케이블카 푸른 바다 위를 날고, 홍천 영귀 테마공원 물 흐름의 농촌 체험, 횡성 둔내 웰리힐리 사계절의 공용 파크, 영월 주천 섶다리는 판운리의 보물단지, 평창 대관령 주목 숲길 발왕산의 천년 보물, 정선 고한 삼탄아트민 폐광탄좌 되살리고, 철원 한탄 얼음트레킹 주상절리 겨울 절경, 화천 백암 케이블카 평화 금강 두 댐 보고, 양구 파로호 한반도섬 금수강산 배꼽 중앙, 인제 원대 자작나무숲 천하 제일 설경이고, 고성 거진 화진포는 송림 병풍 두른 석호, 양양 강현 낙산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

깊은 골 함박눈 내려 여름보다 뜨겁다



김용채(봉집)

- 행정학석사(연세대), 공무원 정년퇴직(서울시청)
- 시조시인(농민신춘), 문학평론가 · 소설가(문학과의식)
- 다산목민문학상 외
- (사)한국문인협회 중구지부 창립 회원
- 우리시조 으뜸과떡잎 총재
- 「숭어, 뛰다」(시조), 「고시조 산책 100선」(평론), 「소설 불굴가」(장편소설), 하얀 사슴들 외

무심한 세월 외 2편

김 정 자

이런저런
온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온길

옷깃을 여미는
어느 가을날

스르–륵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에
비로소 뒤돌아보니

어느새
머리위엔 흰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긴 세월에 지친몸
지팡이에 의지하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외로운 나그네

하여
형체 없는
무심한 세월인 것을

진주 남강

김 정 자

진홍색 석류꽃이
위암절벽을 낙화하여
강물에 떨어지매

달빛도 아려 울고
강기슭 갈대밭에
사각사각 갈대우는 소리

꽃잎 떨어지는 물첨벙 소리에

저홀로 잠들다 놀란 백로
꺼억꺼억 목쉰소리 밤공기를 가르며 슬피 울었다

고운님 가신
쪽빛 강물은 폭넓은
님의 치마자락이든가
진주 읍성을 평풍둘러
감사안고

천리 젓줄되어 기름진 옥토에 생명을 일깨우고

까꼬실 꽃동실
백두대간 꽁지점 찍고

뜰앞의 석류꽃
바람에 흩어져 세
진양호 푸른물에 둥둥떠서
남강으로 흘러내려
붉은충정 서린다

세월이 가는 소리

김 정 자

어스림
달빛아래
남산에 올랐다

스르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가을이
지는 소리다
세월이 가는 소리다



김정자

- 사회복지학 박사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 서울중구지부 부회장
- 사)남강문인문협 자문위원
- 사)한국공무원협회 회원
- 저서 : [황혼이 물든 붉은강] 시집

어떤 이별 앞에서 외 2편

김 채 선

“안녕” 만날 때 웃으며 건네는
이 말은 코끝으로 전해오는 꽃향기이고
“안녕” 헤어질 때 눈물 머금고 건네는
이 말은 끝없이 흐르는 슬픔의 강물이야

눈치 없이 뭉그적뭉그적
거머리 같이 찐득한 것 하나
떼어버리고 싶어 떠나보내고 싶어
위아래 위아래 아래아래
동글말랑 두 개의 부드러운 물체가
부산하게 움직이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불쌍하다
는 단어만 떠오를 뿐

그를 향한 단죄는 안녕
이라 말하고 가슴을 닫는 것

오직 그것 뿐이야

정작 당신은

김 채 선

사랑이 내게로 어떻게 왔느냐고
햇살처럼 꽃눈발처럼 기도처럼
왔느냐 말하라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재촉하지만 어쩌죠?
내 사랑은 어느 날 한여름 태양처럼
와 있었는 걸요 페르난두 페소아,
아미엘, 릴케도 만날 수 있는데
정작 당신은 가슴으만 느낄 뿐…

비록 가을 한가운데 나를 밀치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노래합니다 라이너마리아 릴케가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그의 시를 노래합니다
들리는가요? 정적, 내 눈빛을 꺼주소서,
사랑이 네게로 어떻게 왔는가!

가을이 떠나려 하니
그대의 안부가 더욱 궁금합니다
곁에서 그대의 얼굴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당신은, 정작 당신은
침묵할 뿐입니다

운수 좋은 날

김 채 선

열정이 담을 넘다 철퍼덕 퍼억
얼굴부터 무릎까지 왼쪽 부분이
꼼짝없이 달라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몸뚱아리 하나
뜨그럴우씨디러바서니까짓게뭔데
어디선가 할머니의 거친
욕지거리가 공중에 난무한다

시꺼먼 배경이 지나가고 또 희뿌연
배경이 지나간다 곧이어 천천히
사람들은 움직이고 제법 빠르게 그 중
한 사람 다가와 몸뚱아리를 부축한다

아, 일어났구나 살았구나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만하니 감사하다



김채선

- 시인, MC, 유튜버, 스피치 강사 등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중구문인협회 이사
- 주간함양 오피니언-김채선의 말말말 연재 중
- 문학인신문 기자
- 저서 : 시집 : 『가슴이 바스락거린다』
  자기계발서 : 『말하기 능력이 스펙이다』 외 공저 1권

손녀딸이 뒤집었다 외 2편

김 화 인

귀엽게 귀엽게 태어난
아름다운 나의 손녀딸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손녀
벌써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탔구나

현해탄을 오가면서 자라는 손녀딸
드디어 손녀딸이 뒤집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열심히 성장해다오

너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가 온 우리 가정에 활기가 넘쳤다

너는 우리 집 대들보요 보배다
우리 집안에 행운아로구나.

쌈지공원

김 화 인

각박한 세상속에 휴식을 주는
조그마한 게 가질 것은 다 갖추었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나그네들 쉼을 얻는 곳
차들 소음에 아랑곳 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이를 기다린다

연인들 데이트를 즐기며
노인들 휴식을 즐기는데
비둘기 함께 하자고 다가온다

적다고 깔보지 마란다
가로등도 웃으며 반기며
언제든 찾아오라 손짓한다

오늘도 아스파트 길을 걷지 않고
가로질러 쌈지공원 길을 선택하여
출근길 바삐 지하철 타러 달려간다.

두리둥실 모였구나

김 화 인

생김새도 다르다
피부도 다르다
언어도 다르다
젓가락질도 서투르다

먹는 음식도 하나요
먹는 방법도 하나요
웃는 모습도 하나다

어디에서 왔나
비행기 타고 왔나
배 타고 왔나
광장시장이 꽉 찼구나

두리둥실 모여앉아
피부색 아랑곳 하지 않고
없어서 못 먹는
한국풍 음식에 반해
끼리끼리 둥글게 모여
나무의자 앉은게 아름다워라

한국 사람 어디로 보냈나
한국 사람 놀던 곳에
너희들만 신이 났구나.



김화인

- 고흥군 출생, 시인, 시조시인, 상담학박사, 중독예방교육강사
- 미국 Midwest University 상담학 교수
- (사)국제펜 한국본부 이사, (사)한국문인협회 정책위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초대회장
- (사)한국시조협회 부이사장, (사)통일문학회 감사
- 소망교도소 힐링시쓰기 전문강사, 안양교도소 심리치료 전문강사
- 법무부 안양시 보호관찰 특별위원
- 역사문학 발행인, 도서출판 조은 · 중앙 · 바울서신 대표

저녁노을 외 2편

류 성 춘

농어촌에서 태어나
동녘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보며
청운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간 그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갔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산업 현장에서 청춘을 불살라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들
지난날의 추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전쟁터와 같은 노동 현장에서 산화해 간
동지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본다

저녁 노을
인생 여정의 끝자락이 바로 저기인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 추억들이
양지바른 마음의 텃밭에
희망의 꽃씨하나 심으라 하네

추억속의 고향 집

류 성 춘

육남매 나고 자란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송령의 멋스러운 초가집 한 채

봄이면 처마 밑 제비집
새끼들 나란히 나란히
밥 달라고 짹 짹 짹 합창을 하고

여름이면 모기불 지피고
온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어머니의 손맛으로 빚은
수제비 먹던 그 시절의 그리움

가을이면 집 앞 동산에 올라
은하수 흐르는 별 빛 아래
들려 주시던 어머니의 옛이야기

겨울이면 점방에 가 계신 아버지
귀갓길 위해
무릎까지 쌓인 비탈길 눈 치우고

마중 나가던 아련한 추억들
세월은 흘러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언덕위의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

영원한 이별

류 성 춘

하늘도 섧다
흐르는 눈물로 하늘을 닦아
청명한 까닭은
어두운 저승길 밝혀볼까 함인가

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겠지

그곳은
얼마나 당신이 필요했으면
이승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데려 갔을까?

주마등처럼 스치는
지난날의 추억도
잠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뉘라서 아쉬움이 없겠냐 마는

머지않아
저희들 또한 뒤따라 가리니
고 제정원 베드로 신부님이시여
그때까지 안녕



류성춘

- 시인, 영상작가
- 중구문인협회 회원
- (사)한국문협 청소년 진흥위원회 위원
- (가)한국 노동문화예술협회 이사
- 제15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미술전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세월 2 외 2편

민 선 영

한줄 한줄 느는 주름에
꽃이 피고 꽃이 진다
하늘엔 흰 구름 떠돌아 흐르는 동안
물이 흐르고 시간이 가네

무심한 세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득달같이 달러 가는구나
나는 그 세월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기어이 너를 먹고
너는 나를 기어코 주름치마 입히는구나

무정한 세월아
너는 어이해 우리 곁에
둥지 틀지 않고 내 작은 가슴속에
훌쩍 떠나 가는구나

서러운 이별로 가는 세월아
이리 와 보렴
나랑 차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천천히 가자

겨울나무

민 선 영

그대로가 좋아
속이 훤히 보이면 어때

연초록으로 생명 움트고
초록으로 시원하게 입은 옷

온갖 색깔로 입은 옷이
찬 바람에 휘둘러 떨어지는
너를 나는 알아

앙상한 가지만 보이면 어때
그대로가 좋은걸

말하지 않아도
나도 당신처럼 시린 기억에
진저리 치며 떨어진 너를 알아

눈 속에 수북이 잠들어 있는
너를 가슴으로 사랑하지

앙상한 가지로 옷을 벗고
있어도 괜찮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대로가 예쁜걸

사모곡

민 선 영

눈을 감으면 아득한 당신의 향기
아련히 내 가슴속에 사무친 이름

거룩하신 당신의 은혜
그 사랑 갚기도 전에 연약한 꽃잎처럼
퇴색되어 눈을 감으시고 명주 치마 저고리 입고
매화 꽃 달고 소풍 가시든 날

구십 평생 살아온 어머니 생애를
내 어찌 기록 하오리까

오월의 햇살같이 따뜻한 향기
그리운 당신의 발자취를 내 어찌 잊어버리이까

어머니 떠난 그 자리 언제나 이름 모를 꽃들
풀벌레 산새들 가슴이 가슴을 파고 울리나이다

한가위 반달처럼 송편를 빚어 만드신
그 고운 손 오늘도 잡고 싶더이다

어머니 그 음성 그 생애를 그리움으로
사모곡 부르나이다



민선영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한국문인협회 시 낭송가
- 서울중구문인협회 이사
- 미술작품으로 풍경화, 십자가의길, 등 다수

소멸(燒滅) 외 2편

박 광 현

외면되어 온 외양보다
더 진실할 수 있었다
어찌 되었든 자기기만을
순수한 영혼쯤으로 착각할 때마다
하다못해 엉터리 문법과 생경한 언어로
소멸(消滅)을 반복한다.

홀로 글을 쓰는 취미에
아직도 해석할 수 없는 것과
있는 많은 것을 꺼내놓고
까닭도 없이 짚어 넘긴다.

스으윽 쓱 슥슥

알 수 없는 소릴내며
정상적 궤도에서도
일탈된 와중에서도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그렇게 쓰라린 소멸(燒滅)을 시작했다.

봄날 오후

박 광 현

대지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봄은 개화(開花)하였다
덩달아 마루도 발광(發光)한다.

땀범벅이 돼버린
그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이는
너를 조용히 바라본다

여린 날들이 부양(浮揚)한다
깨복쟁이 사랑이 첫사랑이라
생각했던 날들도
오순의 날에 찾아든
검은 꼬리 파랑새였던 그날도

여린 추억도, 쉰 살의 사랑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오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훔칠 수밖에야
그렇게 너와 너를 훔치는 나를 마주한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양한다, 봄이 개화 하듯 첫사랑처럼…

가고(歌稿)

박 광 현

이슬이 내려앉는다.

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겨울이 어김없이 와 있었다.
바닥에 처박힌 돌쩌귀처럼
가을을 줍는 뭇사람도
글을 줍는 섬사람도
사문 밖으로 나섰을 것이고,
옛 이야기 속, 시랑(豺狼)도
수선스럽지 않게
그림자처럼 엿들을세라
가을은 별스레 서리를 훔친다.



박광현

-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건축부
- 정부세종청사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 국립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공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예술(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 문학人신문 편집국 기자, 중구문인협회 회원

나의 병영 외 2편

성 낙 범

기상나팔소리 짧은 점호
낮에는 아름답고 밤에는 행복했다
멀리 사철검게 보이는 북녘의 오성산
민들레 벌판의 은하천과 철책선
금강산가던 녹슨철교 옆 백골전선교회
늦가을 정연리 방앗간 기계소리
흘러내리는 듯한 밤하늘의 은하수
행군이 끝나고 마시던 한잔술에
우리는 군인이고 좋은 직장이라던 전우들
죽어 백골이 되어도 지켜야 하는 나의 진지
전쟁은 평화스럽고 자유는 구속이다.

소년병 만홍이형

성 낙 범

충무로 나산다방 앞 구두수선점
6.25 전쟁시 인민군 소년병
짧은 머리의 만홍이형 졸고 있다

영화사 의상소품 잡일로 젊음을 보내고
두고온 고향 평산의 토담집 흙냄새
차가운 바람을 그리워하던 형

몇년만에 전곡읍 거리에서 만났다
건강하고 웃는 모습 손에는 빈반찬통
짧은 만남에 연천군의 복지혜택자랑

지금은 북의 고향으로 바람과 함께 가버린 형
평생 혼자서 그리워하던 고향가는 길목
한산한 전곡읍 거리에 오늘도 서성인다.

한탄강 사랑교

성 낙 범

국도37번 도로를 따라서 철원가는 길
굽이쳐 흐르는 한탄강 허리의 사랑교
20년전 보다 넓고 길어진 다리

새로운 모습에 당황스럽다
세월은 사랑도 다리도 변하는 것인가
강물은 잔잔하고 넓은 곳으로 흐른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과 함께 다리가 있다
보내지 않아도 가버리는 그을린 사랑
항상 간절한 사랑도 지루함도 같이 흐른다.



성낙범

- 서울중구문인협회 이사
- 성길시네마 대표
- 한류사이언스앤픽처스 대표
- 사)한국영화기획협회 부회장
- 사)한국이소룡기념사업회 부회장

노랑할매 외 2편

신 영 미

지하철을 타자마자
으와!
엄지척을 날려본다

힐끔 힐끔
수많은 눈동자들이
무의미한 눈빛을 보내도

나만 좋으면 돼

노란색모자에 붉은장미꽃
정열은 나뿐이야

하늘거리는 노란색 쟈켓
걸음걸음
노란색 나팔바지의
하늘바람을 몰고가는
노랑 할매

이시대의 관념을
이아침에
버리게 한다

미나의 일기

신 영 미

간다! 간다!
비행기타고
결혼하는 외국친구 만나러

반갑다 친구야!
축하해 친구야!
50도가 넘는 축하주를 먹고나니
혹여나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엄마 생각에
정신 가다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별하나 세워본다

며칠을
빵만 먹다보니
매운음식 생각나고

언제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집에 갈 수나 있을까
지치고 서글퍼진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는 기다려지고
가족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아!
이제야 내나라로

공항에 내려 매운것 하나 먹고
화이팅!
내일을 향해 외쳐보자

볕뉘

신 영 미

내 부족함이 남의 부족함보다
작아보일때
교만이 찾아오고
내 아픔이 남의 아픔보다 클때
불행이 찾아온다

회색하늘속 작은 볕뉘
작고 편협한 네마음
어리석은 너의 모습 버려보라 한다
스스로 너의 생각 너의 마음 알 수 없으니
작은 빛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 한다

비춰주는
좁은 길이 싫어
넓은 길을 찾아
방황해보지만 더 헤맬 뿐

어리석고 미련해
완벽하지도 못하는 존재

버려버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빛을 따라가
안식을 찾는다



신영미

- 서울중구문인협회 사무차장
- 스페셜마인드교육원 부원장
- 문해교사
- 마술치료사

가을 속으로 외 2편

안 주 일

아파트 옆 초등학교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경쾌한 발걸음과
교정에 울려 퍼지는 교향곡은

어릴 적 추억 불러오는 아름다운 멜로디

찌는 무더위 이겨낸 체력
대문 밖 새로운 계절로
신선한 공기 찾아 나서면

학교 앞 가로수 길가엔
수북이 쌓인 낙엽 보이고

가지마다 을긋불긋 떨어지는 꽃잎은
흐르는 강물 위로 살포시 안긴다.

구름을 따라

안 주 일

인생을 말하는 이 나그네란다
정처없이 왔다가는 그 나그네
추운 겨울 다녀간 각설 타령에
호숫가에 비쳐진 제모습에
목이 긴 것 알게 된 사슴처럼
누구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안다

인생을 논하는 이 방랑자란다
목적과 삶 지닌 방랑자란다
다가오는 봄소리 움트는 싹에
귀 기울여 생명의 소리 들어보는
소크라테스의 다이모니움처럼
우리는 인생에 방랑자된다

회환의 등정 앞두고
나그네 같은 인생, 방랑자된 삶
정처없이 목적과 생 찾는 사람들
우리네 삶 진정 아름다운 것
인생은 미완성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겨울을 기다림

안 주 일

차가운 바람 멈춘 하늘 아래
첫눈이 살포시 내려온다

하얗게 변한 세상
고요한 설렘이 가슴에 피어나면
가느다란 눈발 사이로
어린 시절 추억 떠 오른다

눈 맞으며 달리던 그때의 나
시간 거슬러 다시 만나면

창밖 보이는 하얀 풍경에
마음은 어느새 따뜻해지고
눈 속 감춰진 소망 하나
가만히 꺼내어 살며시 빌어본다.



大野 안주일 (安主日)

- 시인,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회원, 서울 중구문인협회 회원
- 역사문학 부회장, 계간『뿌리』동인
- 서울 중구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통일부 평화통일도서관 관장 역임
- 서울 어울림도서관 관장 역임, 손기정 정보문화센터 센터장 역임
- 문화복지사, 독서지도사, 숭실대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 작품 : “황금을 캐자. 지금!” 외 다수

동백꽃2 외 2편

오 정 선

대성통곡했던 것처럼 그대의 눈시울이 빨갛게 부풀었고
한파도 아랑곳없이 살짝 웃어주며
방글거리는 모습이 왕성한 혈기가 가득하여라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나뒹굴지라도 그대 정열적인 자태는 쉬이 무너지지 않으리
머언 옛날 교정에서 그대를 가까이 바라보며 작별 인사 했던 꽃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들 곁으로 옮겨왔으니 어찌 반갑지 않을소냐!

고향 시림

오 정 선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살랑 스쳐도
돌담 사이로 바람이 밀려와도
밭 어귀에 쌓은 돌무더기가 오랫동안 단잠을 자는 것을 보아도
아가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아도
뿜어져 나오는 생각이 가슴에서 튀어 오르는 것은
유년시절에 유심히 관찰하던, 올챙이가 있었던 연못을 보아도
빗물이 땅바닥을 때려도
눈발이 바람에 흩날려도
부엌에 딸린 공간에 놓인 항아리에 담긴 된장의 구수한 내음이
코끝을 스쳐도
봄이면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지 않던
고즈넉한 뒷동산에서
나지막하고 앙증맞게 피어 있었던 할미꽃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옹달샘에 얼굴이 비치면 투명한

하천1

오 정 선

눈에 띄게 목마른 하천은
빗물을 달라고 입도 뻥긋하지 못 하고
그냥 참고 울상인 모습을 바라본다
비야, 비야
퍼뜩 생명수 빗물을 마시게 하여 주면 무척 고맙겠소.



시림 오정선

- 제주 서귀포시 출생
- 아호 : 시림(始林)
- 제주 · 인천 일반행정직 공무원 봉직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 순수문학 이사
- 영주문학 감사

혼자 가는 사람 외 2편

오 지 숙

잡고 매달려도 묵언으로 답하며
홀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밤 비 내리는 날에도
아침 햇살이 빛나도
뭉게구름이 곱게 수놓아도
혼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먼저 가서 눈길도 만들고
내가 먼저 가서 우산도
준비한다면서 그 먼 길을 혼자
떠나가는 사람 있다

잡아도 갈 사람 우리에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
그 많은 사연을 묻어놓고
홀로 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선택된 인생

오 지 숙

내가 선택해서 온 생은 아니다
부모님이 날 선택하여 태어난 인생 아닌가
이왕 온 생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자
살다 보니 힘들고 괴로운 날들도 있지만
그 또한 지나가더라

지위가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것에
욕심을 내고 만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재물에 욕심을 내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같은 인생길이다
내가 살아 있을 때 행복해야만 된다

살아보니 알겠더라 욕심도 탐욕도
하나의 바람 같은 것
삶에 있어 다 채우고
가지려 하지 말라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말이다.

내 인생 황혼

오 지 숙

인생은 참 빠르다
잡고 싶어도 멈추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흘러가는 세월이구나

엊그제 같던 청춘은
슬금슬금 소리 없이 떠나가 버렸고
어느 사이 고령이 되어서
노화된 기계같이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이도 있구나

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올라갈 수 있다 하고
몸은 못 간다고 한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노니 어쩌겠나

안타까운 세월은 자꾸만 자꾸만
날 데리고 흘러만 가네.



오지숙

- 지선 오지숙
- 시인. 수필가. 시낭송가. 문예지도사
- 글로벌 시낭송과 전문가 과정수료
- 국자감 문학상 외 다수
- (사)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서울중구지부 자문위원

흔적 외 2편

유 긍 모

떠난 사람의 흔적
사랑에 웃고 울었던 자리
상처는 세월의 옹이로 남아

깊은 밤 달그림자 속삭이는
너울의 향기가 되고
허공에 먼지가 된 약속
찾을 길 없는 목소리로 흩어진다

가슴에 새긴 눈빛
깊게패인 주름으로 남았는가

희미하게 멀어지는
생의 여정
지친 발자국 깊이 흔적을 찾는다

비 오는 날

유 긍 모

창가에 흐르는 빗물은
지난 추억의 저린 가슴을 적신다

빗방울에 삶의 무게를 씻기고
찢긴 상처
잔잔한 다독임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이 비를 흠뻑 맞아도
난 슬프지 않을 거야

보름달

유 긍 모

달빛 아래 서면
길게 드리워진 고향
부엌 정이 그리워
어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국
그 맛을 잊을 수 없네

낯선 도시 거리
그림자 길어지고
외로움의 고독 깊어져
달을 보며 소원 빌었지만

이 밤
고향의 기억과
아픔을 녹여
달빛 속에 잠기네



유긍모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부회장
- 이삿짐 센터 재활용 폐기물 환경사업

설렘 외 2편

이 동 구

숨죽인
안개 밭

사라질 것을
알면서

머무르리라
붙잡고

사르르
한 발 두 발

눈먼
두근거림.

별 비

이 동 구

다시 그날
아련한
그때의 비

나에게로
쏟아지는
슬픈 방울

휘감은
나부랭이 옷
차가워져

희뿌연 밤
하얀 임
보고만 섰다

동틀 녘
옅은 별
눈물을 보듯.

나무와 잎

이 동 구

가을
하나둘
마음 내리고

겨울
매서운 바람
벗 삼고

봄
다시
푸르른 마음

여름
젖었다가
타버린다

또
마음을
보내야겠지

꽁꽁
얼어버릴 순
없으니.



이동구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 저서 / 흔적 (제3 시집)
- 동인지 다수, 시화전 다수
- 수필가 / 가요
- 가곡작사가 / 가수

하얀 그리움 외 2편

이 명 순

달빛이 스며드는 들창문 열어놓고
여치소리에 화답하는 귀뚜라미
풀향기 가득한 뜨락을 헤젓는다

먹물처럼 깊게 스미는 음률이
새벽을 달리고
앙다문 입술위로 밤이슬
시나브로 젖어든다

바람결에 너울지는 하얀 개망초
아슴아슴 먼 기억속
숨어우는 여린 넋

솔버덩에 앉은 햇살
풀잎이슬로 적시는 맨발이여

무리진 구절초 꽃잎 위에
하얗게 피어나는 그리움

엄마의 방

이 명 순

갯버들이 방싯거리던 개울
이른 봄 산을 오르던 발길

젖먹이 울음 뒤로하고
산약초 향기따라 헤매다
해거름에 사립문 열면
주린배 어린딸 꽃잠을 깬다

하얀 꽃바람에 뭉게구름 이고
여문 으름 터지는 젓내음 품에 안는다

서리꽃 피는 산골짝 처마밑
구들장을 데우면
산허리로 넘어가는 굴뚝연기

파뿌리 피었구나
검버섯도 피었네
세월을 잃어버린 엄마의 방

꽃처럼 피어난 여섯 살 아이가 산다

목련

이 명 순

고아한 목덜미 떨리는 눈거풀에
흰 비단이 사르르 흘러내린다

한 올 한 올 풀리듯

꽃자리에 눈물을 떨구고
저린 꽃잎

찰나의 삶을 거두고
다시, 피어오르는 눈빛
환희의 춤사위 하이얀 비단



이명순

- 시인.수필가.작사가
- 타고르 문학상 최우수상
- 윤동주탄생105주년 기념문학상 우수상
- [다시, 첫걸음] 시집 출간, 시집 작품상
- 한국문학작가대상 외 다수
- (사)한국문인협회 정회원, 서울중구지부 부회장

달토끼 (동시) 외 2편

이 미 옥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떴네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달은
집집마다 대문 앞에 한 개씩 매달아 놓아
어두운 골목길이 무섭지 않았어

비 오는 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달나라에는 계수나무 아래서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옛이야기

서산 뒤로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려올 때
대문 앞에 걸려 있는 달을 보았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닮아 버린 달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는 꿈을 꾸었어
계수나무 아래 방아 찧는 토끼는 보이지 않았어

(2024년 k-pop 동요 발표)

아이의 꿈 (동시)

이 미 옥

파란하늘에
해님이 방긋 웃어요
곰 인형도 구름과 놀아요
아가야 실눈 뜨고
하늘을 보아요

빨강꽃이 피었어요
노랑꽃도 피었어요
아이의 웃음꽃도 피었어요

꽃밭을 뛰어 다니다
아이는 잠이 들고
꿈속에서 실바람 불어와
코 끝에 머물러요

(2022년 동요 발표작)

딸기놀이 (동시)

이 미 옥

딸기 모자를 썼다
비닐하우스 농부아저씨다

봄볕 하늘
윙윙거리는 꿀벌들
부지런하게 손짓 한다

흐르는 과즙
달콤함 가득
아무도 모르게 내입으로 쏘~옥

앗! 엄마의 목소리이다



윤소당 이미옥

- 시인, 아동문학 수필가, 시낭송 교육지도사, 평생교육사
- 서울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졸업
- (사)한국문협 서울지회 이사 및 중구지부 회장
- 서울 중구문인협회 회장, 대륙문인협회 부이사장
- 한국가곡작사가협회 이사, 한사랑문화예술협회 부회장
- ㈜우리건설그룹 대표. 문학의 빛 작가와 함께 편집위원
- 시 집 : 『윤소의 노래』『가슴속에 피는 꽃』
- 동시집 : 『책속에 사자가 있어요』
- 동요 : 『아이의 꿈』
- 가곡 : 『갈색 잎새에 맺힌 그리움』 외 다수
- 황진희문학상 외 다수

라일락의 향기 외 2편

이 현 주

봄이요 봄이요
산통을 겪은 파릇한 새싹이
여기저기 아기처럼 고개를 듭니다

봇물 터질 듯한 희망의 소리
감춰진 신비로운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

라일락은 심장을 열어
바람에게 주었습니다
바람은 날개를 달고
라일락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향기로운 사랑고백
나혼자는 너무 아까워
온누리에 베푸리이다

살기위해 걸었다

이 현 주

흩날리는 바람골 걸음은
달구어진 발자국의 불사조

사자처럼 근엄하고
용맹스럽게 단련시키며

정직하게 피어날 것을
세상은 인동초처럼 말했다

가치있는 삶
느린미학의 존재

채움과 비움을 격조있게
달이 말했지

별은 살기위해 걸었다

살아 갈 이유

이 현 주

태반에서 태동을 느끼고
살아 갈 이유 수렴한다

서까래 타고 내린 젖줄
목마른 대지 적셔주고

자연앞에서
참벗의 인생을 열어주는
개미같은 흙의 여정

하늘에서 던져주는
황톳빛 만나를 먹고
훌륭한 시 한 편 쓰고 싶다



이현주

- 한국문협 서울중구지부 이사
- 참벗종합예술인협회 대표
- 시가흐르는서울문학회 총괄본부장
- 세종대왕문학상, 신사임당백일장차하,시담문학상 등
- 시낭송 1급 지도사, 인문학 2급 지도사
- 한국가수협회가수,가곡/틈: 작시 이현주/작곡 강나루

님의 향기 외 2편

장 윤 숙

사랑을 부르는 은은한 님의 향기
사르르 꽃잎 위에 깃들고

꽃술은 수줍어
파르르 떨고 있다
연초록 이파리 촉촉히 이슬 머금고

뾰안 가슴에 하얀 눈꽃 송이송이
한아름 좋아라
방실방실거린다

님의 향기는 밤하늘
술래잡기에
축복의 별빛이 되어

내 작은 뜰에
소복히 쌓인다

푸른 안부

장 윤 숙

희망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영혼속에 머물면서
언어없는 가락을 노래하며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다
거센 바람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들린다

이 작은 새를
괴롭힌 일로 해서
폭풍우도 괴로움을 느낄 것이니

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기에
콩콩 얼듯이 추운 나라와 먼 바다의 기슭에서
그 노래를 들었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 있으나 한번이라도
빵 조각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희망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엽서 한 장

장 윤 숙

내 안에
환한 등불로 밝히던
따스하고 다정한 언어들이 때로는

가슴 시리도록 아프게 하는
딱따구리 새의 뾰족한 부리로 콕콕 찌르듯
편두통 어지럼증으로 혼란하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한다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한 삶이 익어가는 포도주의

숙성된 오묘한 맛보다 달콤하리라
자생자멸 순리의 이치
깨달음의 지혜가 출중하다면
밝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래그래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해 보자

그리워 해보자



장윤숙

- 서울대학교 명예의 전당 등재
- (사)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이사
- 한국노벨재단 노벨문학 여성회장, 낭송회 회장
- 시꽃 예술협회 대표
- [시집] 월궁항아의 연가
- 작시 : 주의 향기 외5편
- 독일시그니아 보청기 군포, 산본 대표

철새의 기도 외 2편

정 은 정

내가 가진 초가집이 많다고 생각했다
행복을 바램이라는 시인의 초고 같은 눈이 내린다
헛된 욕심을 버리면 겨울비도 꽃이 되어
최상의 허무 없는 삶으로

마음은 비움
겨울이 흘러 내리다 천변에 울고 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한 꼭지점 자리
갈대가 눈물아닌 눈물에 푹 젖어있다

그리해
난 오늘도 초록빛 꿈을 꿈꾼다
초록빛에 꿈 꾸는 게 아니라 잔잔한 여울이 흐르는
은하수 마중하는 오솔길 천변에 앉아
무릎과 붙은 심장의 생각

초록에 앉은 철새의 날개 그 꿈
겨울비는 비가 아니였다

하여도(島)

정 은 정

꽃이
꽃잎을 지우고
씨앗을 남기면 비로소 자유가 된다

줄기는
고달픈 몸부림에서
서서히 벗어날 준비된 날갯짓

목마른 옹달샘은 아직도 빗물 채우며
섬은 또 다른 섬을 지키고 묵상
채워도 마른 샘의 목마름

떠도는 구름만 안착할 수 있는 섬
진실과 진심만 받아주는 하얀 안개 수채화
하여도는 꿈이 있는 붉은 노을꽃
아름아름 사랑아 한다

* 가상의 섬

맑음 더하기 맑음

정 은 정

아침은 안개꽃 피어올라 하루를 기다리고
하얀 뭉게구름 푸른 하늘가 유영하며
뜨겁던 여름은 담담히 보낸다

파랑 더하기 파랑은 맑음
맑음 더하기 맑음은 바보들의 시간 여행이며
세월은 거꾸로 흐를수 없는 진실이다

오색빛 가을은 무릎 앞에 서성이며
겨울이 초침의 흐름으로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두렵지 않을 가슴을 열어 심장을 뛰게한다

여린 초록은 유년 시절
여름은 청춘이라고 가을 문턱에서 외치며
나의 숨은 아직도 진행형임을 하늘에 고한다



정은정

- 문예 지도사. 평론가
- 글로벌 문학창작과 대학교(원) 교수 역임
- 윤동주 탄생 105주년기념 작품상
- 현대시선 제10회 한국 감성대상 外 다수
- 사)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서울중구문협 사무국장

빛 외 2편

정 은 희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빛
1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의지했던 나의 별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어 내 곁에 떠나보내고
마음의 우울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이 시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도 안되는 시간

하염없이 눈물을 참아도 보고
잊으려고 사람을 만나도
방 한 칸에 남은 흔적은 들어가지 않게 돼버린다.

가장 사랑했던 나의 별
하늘 높이 그 많은 별자리에
가장 빛나는 너를 만날 거야

이제 인사를 할게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아주 많이 사랑했었다.

눈먼 사랑

정 은 희

뿌옇게 뿜어져 나오면 더 멀어져 간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저 멀리 가 버린
어디에도 없구나
손에 잡았듯 잡히지 않고
빌어도 와닿지 않는 먼 곳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숨은 사랑처럼
도망간 사랑처럼
딴 세상에 서 있는다

눈에 멀어지는 사랑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퍼즐

정 은 희

각 틀을 하나씩 끼우고
그 사이에 모양을 맞춘다
모양이 틀어지면 틀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모습도 같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씩 벗기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이 변신을 하니

어디에도 맞혀지지 않아
퍼즐을 끼울 수 없다.
알 수 없던 고통이
이제야 나오는 모양 틀에 맞혀진다

이것이 현실이다
스스로 그 길에 빠져 헤어 나온다 한들
바람처럼 사라진다.



정은희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 대한문인협회 시 등단
- 대한문인협회 대전충청지회 동인시집
- 문학어울림 동인시집
- 대한문인협회 창작 문예대 졸업
- 대한문인협회 지도자격증

저녁노을 외 2편

황 용 운

태양처럼 뜨겁던
젊은 날을 생각하며
쓸쓸한 겨울바다를 찾았다

황혼을 밟고
누가 찾아 올 것만 같아
바다 위에 설경을 깔아 본다

저녁노을이
제주에서 서울까지
불타고 있다

달팽이처럼 긴 목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니
바람이 날아와 한바퀴 돌고

아직도 남은 노을이 아쉬워
저녁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

술 잔

황 용 운

가을 여행 떠난 친구
단풍잎 엽서 보내왔네

계곡물 단풍 진 사연
노래처럼 적어 보낸다며
마음에 와 닿거든
홀로 반주 들며 자작하란다

가버리면 가을이고
돌아오면 봄이니
나이 먹는 인생길
쉬엄쉬엄 넘자하네

그러게
시냇물 소리일랑
가슴 속에 담아두고
술잔에 비친 나의 얼굴
조용히 바라본다

남산길

황 용 운

어둠이 드리워진
남산길을 걷는다

외로이 걷는
검은 아스팔트 위

가로등 불빛 아래
아른거리는 그림자

나 보다
더 먼 길을 걸어온 듯한
여인의 어깨가 보인다

가로등 불빛은
반짝이는데
아련히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눌 길 없어

꽃샘추위 찬바람에

띄워 보낸다



황용운

-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 (사) 한국문인협회 인성위원회 운영위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감사
- 강원 경제신문 논설위원
- 1급 산업 카운슬러

홀로 차 한 잔 외 2편

황 종 택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눈 내리는데
작설차 담긴 찻잔
방안 가득 다향
나도 저처럼
그윽하게 우러날 수 있다면

푸른 바다처럼 맑고 찬 샘물
따뜻하게 데워져
악기가 되는 꽃차 한 모금
세상 티끌 씻겨져 나가니
구름 걷히고 바람 멎는다.

벗

황 종 택

2년여 만, 그것도 송년 모임으로
어렵사리 모여 앉은 초등학교 친구들
각자 살던 동네 향수를 불러내고 저마다 살아가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기 바쁘다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
서울살이 힘들고 어려움은 없었고
차마 말 못 할 사정은 없었는지…

속울음 같은 미처 꺼내지 못한 말들
노을이 물들이는 구름같이
우리들의 대화는
채색되어 끝없이 피어오른다

그때처럼 소란스런 친구들
묵었던 사투리에 눈물이 찔끔거려
강냉이죽, 딱지치기, 고무줄놀이만 없다뿐이지
남녘에 부는 바람은 그 모습 그대로이겠지.

겨울나무

황 종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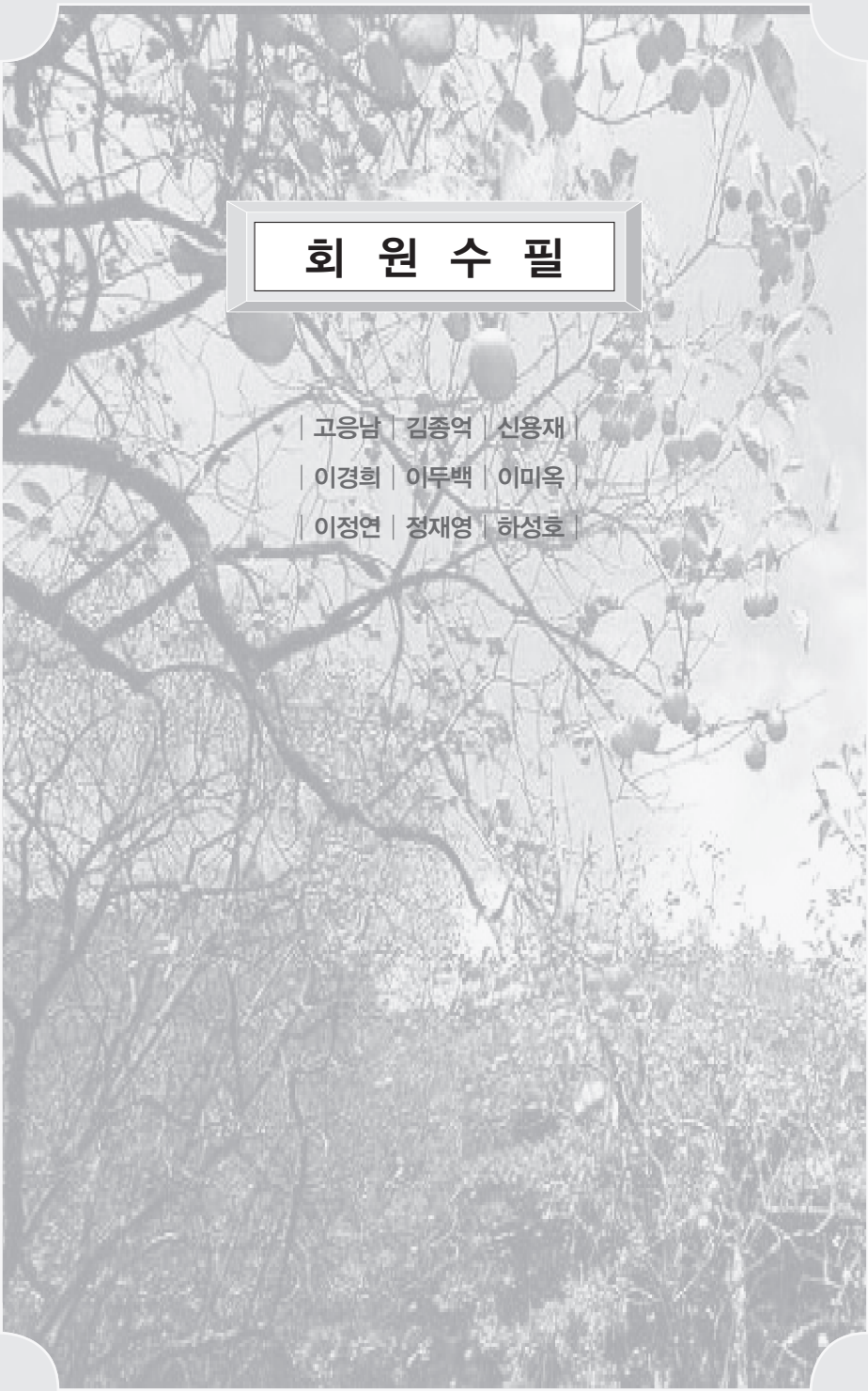
살 맞닿던 초록의 여름도
붉게 춤추던 황홀한 가을도
이젠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빈 마음 벗은 몸으로
기쁜 봄의 잉태를 꿈꾸며
여기 이렇게 서있겠습니다.



황종택

-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 (사) 한국문인협회 인성위원회 운영위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자문위원
- 강원 경제신문 논설위원
- 1급 산업 카운슬러



회 원 수 필

고응남	김종억	신용재
이경희	이두백	이미옥
이정연	정재영	하성호

자불자불

고 응 남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번쩍 정신이 들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쳤다. 쳐다보니 나의 바로 위 고참 L상병이었다. 군기가 빠졌다고 나에게 나무랐다. 너무 피곤하여 벽에 기대어 서서 깜박 졸았던 것이었다. 1976년 4월. 군에 입대하여 몇 개월 지난 후 최전방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었다. 낮에는 훈련에다 행정 일에다 너무 피곤하여 벽에 기대어 서서, 스르르 눈이 감겨,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을 졸았던 기억이 난다. 그 사건으로 기합도 받았던 적이 있다.

결혼하여 아내와 초등학생 딸 둘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던 때의 일이다. 전철에서 자리가 없어 전부 서 있었는데,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손잡이를 잡고 서서 잠깐 졸았다. 아내가 나를 살짝 깨웠다. 그 당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집에 온 후 얘기를 하였다. 창피해서 당신과 같이 나들이를 하지 못하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

잠. 침대에 베개를 하고 제대로 자는 잠은 약 5시간 정도이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37년 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저녁잠이 많은 편이다. 오후 8시나 9시쯤 되면 꾸벅이며 졸기 시작한다. 그 시간에 자지 않으려고 애써 본 적도 있지만 자지 않으면 못 견딘다. 새벽 2시나 3시쯤 깨서 무언가를 한다. 컴퓨터를 하든지, IT 관련 책 원고를 쓰든지, 수업 준비를 하든지, 프로젝트를 하든지. 잠을 잘 때는 주

위에서 시끄럽게 해도, 천둥 번개가 쳐도 세상 모르게 잠을 곤히 자는 편이다. 나를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푹 빠진다.

쪽잠. 달콤하다. 자투리 잠은 초콜렛보다 더 달콤하고, 간식보다 더 맛있다. 특히 점심 먹은 후 잠깐 15분쯤 자는 잠.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다. 못 자면 오후 내내 정신이 흐릿하다. 전철 안이나 버스에서도 머리를 좌우 앞뒤로 정신없이 끄덕이며 잘 조는 편이다.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 쪽잠은 참 달고 맛있다. 5시간 만 자고 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 잠 5시간에 조각난 자투리 잠을 전부 합하면 하루에 약 7시간이나 8시간을 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1980년대 D그룹 전산실에 프로그래머로 근무했을 때, 주위에서 나에게 자불자불이라고 놀려대곤 했다. 회사 동료들이 붙여 준 별명이었다. 잠깐잠깐 나도 모르게 일하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조는 잠 때문이다. 점심 먹은 후 15분쯤 책상에 엎드려 자는 잠. 맛있다. 나는 잠에 있어서, 특히 쪽잠에 있어서 황제인가 보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쪽잠의 명수였다고 전해진다. 그를 닮았나 보다. 자불자불 조는 자투리 잠. 행복한 순간이다. 달콤한 순간이다.



고응남

- 시인 · 수필가 · 화가, (전) 백석대학교 교수, 제주 출생,
- 월간 〈신문예〉 시 등단 / 수필 등단, 수필집 〈〈미농 그 남자〉〉,
- 계간문예 작가회 이사, 인사동 시인협회 부회장, 한국문예 자문위원, 가곡작사가협회 이사, 대륙문인협회 지도위원, 중구문인협회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시서화진흥위원회 위원, 작가와 함께 편집위원, 시산 문학회 편집위원, 인사동 시인협회 편집위원, 대한예술신문 총재, 국제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미협 부이사장,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전) 노스웨스트 사마르 미술대학 석좌교수, (전) 대한미협 작가회 회장, (전) 디지털콘텐츠학회 회장, (전) 모바일학회 회장

돈호가리

김 종 억

온통 굴 껍데기로 뒤집어쓴 큰 바위 두 개와 작은 바위들! 물 빠지면 바위 한 개, 찰랑찰랑 바닷물이 차오르면 그림 같은 바위 2개!. 바위 꼭대기에는 적응력 강한 해초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어 썰물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섬의 모습은 그런대로 살풍경하지는 않다. 해수간만의 차가 심한 이곳에서 밀물이 해변에 꽉 차오르면 그 바위는 절반이 바닷물에 잠겨 한 폭의 수채화로 변한다. 특히, 석양이 붉게 물들면 바닷물에 길게 그림자 드리운 작은 섬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다. 잔잔하게 물결치는 고요 속에 붉은 석양을 등지고 애잔하게 일렁이는 그 바위섬을 우리는 '돈호가리'라고 불렀다.

썰물 때에는 그 전모가 드러나는 초미니 무인도 돈호가리!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에 기울어진 집안 사정으로 중촌에서 백련골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인천 영종도가 섬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던 중촌에서는 일 년에 몇 번, 부모님을 따라 인천에 나갈 때나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일년에 한번 작약도나 송산 백구지로 가을 소풍 갈 때, 그리고 여름에 아버지를 따라 사두질 갈 때, 형 따라 또는 친구들과 가끔 어울려 망둥이 낚시질하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바다를 가깝게 접해 본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는 그곳에 살면서도

그곳이 섬이라기보다는 그저 한가로운 전원, 평범한 농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산과 들, 논과 밭이 광활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섬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 '백련골'로 이사를 하면서 나는 바다를 아주 가까이서 접하고 살게 되었다. 아버님께서는 바다가 훤히 바라다보이는 산자락 언덕 위에 터를 닦아 아담한 초가삼간(草家三竿) 한 채를 지으셨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시원하게 바라보이고, 스쳐 가는 바람에 갯내음이 물씬물씬 풍긴다. 엄동설한(嚴冬雪寒) 문풍지 울어대는 소리는 오죽하던가! 사실 이곳은 영종도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 도회지(都會地)인 인천에 한 번이라도 나올라치면 반나절은 족히 걸리는 바닷가 오지 마을이었다.

곱고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모래사장 따라 양귀비보다 더 빨간 해당화 꽃이 군데군데 무더기로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으며, 사시사철 파도치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바다에서 시원하게 부는 바람에 실려 온 갯내음은 언제나 신선하게 코끝을 간지럽혔다. 동네 아이들과 생소한 환경에 푹 빠져서 신나게 모래사장을 쏘다니면서 서서히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모래사장 군데군데 피어있는 해당화는 가까이서 보면 장미처럼 가시가 달려있으며, 꽃이 지고 나면 오렌지색 열매가 달렸는데, 크기는 꼭 큰 대추 알만한 것이 볼수록 예뻤다. 동네 아이들이 그것을 한 움큼 따서 나에게 내밀며 먹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날름 받아먹었는데, 달콤하기도 하거니와 신선한 향기가 좋긴 하였지만, 먹고 난 후에 꺼끌꺼끌한 씨앗이 목에 걸려 '캑! 캑!' 거리는 내 모습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일제히 까르르 웃었다.

백련 골에는 모두 세집이 옹기종기 살았는데, 우리 집이 이사함으로 네 집이 되었다. 하루 두 번 썰물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래끼 하나씩 옆에 끼고 호미나 굴 따는 봉(기구)을 들고 서둘러 바닷가로 일제히 나갔다. 물론 나도 따라 나갔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낙지와 주꾸미, 소라며 조개들을 캐고 굴을 쪼아 열심히 담고 있었지만, 매사에 서투른 나는 그저 그 사람들 꽁무니만 따라다니기 바쁘고 잡는 데는 꽝이었다. 푹푹 빠지는 개펄에 다리 옮기기 조차 힘들어하며 온몸은 물론 얼굴까지도 개흙을 묻히고 다녔다.

돈호가리를 중심으로 그 일대는 자연산 굴이며 소라, 바위 밑에 숨은 게를 비롯한 잡을 거리가 많아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옆 마을(은골, 젓개 등) 사람들까지도 몰려와 법석을 떨곤 하였는데, 그럴 땐 돈호가리 전체에 울긋불긋 사람 꽃이 피곤하였다.

그곳으로 이사한 후 얼마 있다가 사라호 태풍이 몰아닥친 적이 있었다. 폭풍우를 동반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더니 드디어 엄청난 비와 바람, 해일이 몰려와 전국적으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수재민의 발생과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시간마다 긴급뉴스로 보도하였다. 특히 사리(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많을 때) 때에 당한 일이라 해일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다.
개펄을 물막이하여 만든 간척지 논의 석축이 무너져 한창 자라고 있는 볏논에 바닷물이 쓸려 들어와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송두리째 망치는 깊은 아픔을 동반하기도 하였다.

몇 날을 퍼붓던 비가 개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반짝하고 났다. 동네 어른들이 논이며 밭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러 간 사이에 동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모래사장으로 달려나갔다. 모래사장에는 생활용품 쓰레기들을 비롯한 잡다한 부유물들이 많이 떠밀려 있었다. 통째로 뽑힌 채 떠밀려온 나무와 각종 스티로폼… 갑자기 한 아이가 큰소리를 질렀다. "돼지가 떠밀렸다!" 우르르 몰려가 보니 중간 크기의 돼지 한 마리가 모진 사투 끝에 모래장술 에 떠밀려 있었다. 그날 저녁 동네는 돼지고기 파티가 열려 집집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물을 준비하시고 중학생인 형과 나를 불렀다. 나와 형은 아버지를 따라 개펄로 나갔다. 돈호가리 옆 갯고랑 양쪽으로 말뚝을 치고 그물을 맸다. 3父子는 두 시간 이상 낑낑거리며 그물을 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사리 때라 얼마 후에 물이 밀어 방죽 논 석축까지 찰랑찰랑 차올랐다. 물 빠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해는 지고 어슴푸레 반달이 떠올랐다. 아버지께서는 "따라오너라!" 하시고는 앞서 나가셨다. 형과 나는 고기 담을 그릇을 챙겨 아버지를 따라 개펄로 나갔다. 우리가 발을 옮길 때마다 번쩍번쩍 불이 튀었다. 그것이 고기(생선) 비늘이라느니, 인(燐)이라느니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낮에 매어둔 그물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물에 도착하자 우리는 탄성을 질렀다. "와!"… 달빛에 비춘 갯고랑에서 비늘이 번쩍였번쩍였다. 물이 빠지면서 갯고랑에 매어둔 그물에는 그야말로 고기가 바글바글 들끓었다. 고기가 퍼덕일 때마다 달빛에 비늘이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다. 마치 도깨비에 홀

린 듯한 기분이었다. 가득 잡은 고기를 낑낑대며 짊어지고 집으로 왔는데, 고기의 이름이 숭어의 새끼인 '동아'라고 하였다. 양이 많으니 일부는 소금에 절여 말리고 나머지는 몇 날 며칠을 숭숭 무 썰어 넣고 끓인 동아매운탕 포식을 하였으며 그리고도 남는 것은 숯불에 소금 뿌려 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였다. 그해 여름 우리는 두고두고 동아의 담백하고 개운한 맛으로 식욕을 돋웠다.

돈호가리 오른쪽으로 멀리 노량섬과 누에섬이 머리를 베고 누워있었다. 노량섬과 누에섬은 썰물, 밀물과 관계없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곳,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무인도이다. 노량 섬은 아직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면 한여름에는 나무와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늘 신선하고 신비스러운 느낌까지 들어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섬이다. 그 옆의 누에섬은 마치 누에가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수평선 너머 작은 배들이 들락거리는가 하면, 그림처럼 떠 있는 노량섬과 누에섬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년 시절은 흘러갔다.



김종억

- 월간순수문학 수필등단 / 월간 국보문학 시 등단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자문위원, (사)한국국보문인협회 상임이사
- 수필집 : 『기적소리 울리는 기차를 타고』『황금빛 마음의 고향』
  『별하나 꿈하나』『멈추지 않은 꿈』

바둑판을 보며

신 용 재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바둑을 배웠다. 그때부터 바둑이 나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하여 점차 바둑 애호가가 되었다. 바둑은 태권도처럼 기본기를 익힌 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응용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어찌 보면 우리네 세상사의 모습과 흡사하다.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 끝이 없는 것처럼 바둑의 수도 무궁무진하다. 바둑의 묘미를 알게 되면 그 마력에 빠지지 않을 자 뉘 있으랴. 바둑을 두는데 명심해야 할 열 가지 비결을 알려 주는 위기십결은 내 선택지의 지침이 되어줄 때가 많다. 이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신의 한 수로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창호 9단처럼 부득탐승(不得貪勝: 승리를 탐내면 이기지 못한다.)이다. 이런 바둑을 즐기면서 나는 가끔 인생의 손익 계산서를 생각해 본다. 바둑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의 제약으로 부득이 바둑을 잊고 지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직장 생활 중 회사 내 바둑대회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해외 출장과 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짐없이 참가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전 직장 동료들의 모임인 중우회 바둑 대회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아내의 묵인하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만의 망중한을 즐기는 남편의 취미를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곱지는 않을 터, 그래도 남편의 취미를 묵묵히 인정하는 아내의 넓은 도량은 나로 하여금 늘 미안하고 고마

운 마음을 갖게 한다. 대회 참석 때마다 우승, 준우승 또는 참가 상이라도 받아오면 아내는 마치 자기가 수상한 것 같이 기뻐해 주니 고맙기도 하려니와 나 혼자 즐긴 미안함을 감싸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흐뭇했다. 2024년 봄 울산시장 배 바둑대회 단체전에서 승리했을 때도 나에게 주어진 메달과 우승 상금을 집에서 조용히 기도해 준 아내에게 선물을 하면서 조그마한 감사를 표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취미 행각을 명분 삼아 그동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향후 아내에게 갚아야 할 보답의 빚만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 한편으로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내와 바둑에 대한 사랑을 적절히 비례하여 사이좋게 나눌 수는 없을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바둑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서로 양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치판단의 과제다.

바둑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중국 기원설과 인도 기원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첫째는 기원전 2300년경 즉 약 4300년 전 고대 중국 요순시대 창시설이 있다. 요임금이 아들 단주를 교육하기 위해 바둑을 창안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다른 일화에 의하면 인도의 한 왕이 게임을 아주 좋아했는데 금방 싫증을 내곤 하였다. 어느 날 전국에 방을 붙여 싫증 나지 않는 게임을 창안해 내는 사람을 부마로 삼고 소원을 하나 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한 선인이 바둑을 창안하여 왕에게 받친 결과 왕이 아주 만족하게 되어 그를 공주의 부마로 삼고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고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왕이 소원을 묻자 바둑의 창안자는 바둑판 첫째 점에 보리 1알, 두 번째는 2알, 세 번째는 4알, 네 번째는 8알 이렇게 갑절로 계속하여 361번째 점까

지 보리쌀을 달라고 했다. 왕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즉시 이를 수락하였는데 나중에 전 인도 재산의 반이나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상기 2가지 설 외에도 중국 기원설 보다 1천 년 전 은나라 멸망 후 단군의 윗대 치우 시대 현인 기자가 바둑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져왔다는 설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중국의 '사서' 등에 삼국시대에도 바둑을 많이 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백제의 의자왕은 일본에 자수정 바둑알 (붉은색과 청색)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바둑이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개의 화점이 각 점 주변 90집 x 4= 360집과 가운데 천원 점 1집을 합쳐 총 361집을 두고 흑과 백이 서로 누가 집을 많이 점유하느냐의 게임이다. 확실한 승부를 내기 위해 맞수와 대국에서는 흑 번의 기사가 백 번의 기사에게 6호 반을 덤으로 주는 규정이 있다. 수필가 송영화 님의 수필집 '반집'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바둑 공부에 전념한 결과 반집 차로 우승해서 프로 기사가 되었다는 글이 실려있다. 매년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1'명만 통과할 수 있는 프로 기사가 되는 관문인 최종 결승국에서 반집으로 이겼다는 글이 너무 감격적이고 인상적이었다. 승패를 떠나 반집의 승부를 내었다는 것은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바둑을 명국이라 한다.

어느 날 과거 직장 상사이자 선배였던 분과 겨루었던 바둑대회의 한 대국이 잊히지 않는다. 바둑은 불계로 내가 이겨있는 상황에서 승패와 관계없는 한 집짜리 패가 걸렸다. 나는 거의 끝난 바둑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패를 받았는데 이것이 자충수가 되어 대마를 둔 패가 되었다. 상대가 받아 줄 만한 마땅한 팻감이 없어 결국 선배의 대마는 살고 오히려 나의 대마가 죽어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다. 위기십결의 신

물경속(愼勿輕速: 바둑을 둘 때는 가볍게 막 두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을 놓아야 한다.)을 위배하여 두었으니 역전패를 당한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꼼수를 두었다고 상대를 힐난할지 몰라도 당시의 나로서는 이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배에게 축하를 해주었다. 선배는 기회를 봐 내게 한 번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이를 기화로 앞으로 바 둑을 둘 때 아무리 유리한 국면이라 할지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다.

바둑을 두면서 나는 가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바둑은 일상의 생활속에서 기획력과 협상력 및 사고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살다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이 대변에 올 수 있겠다. 그러나 귀하고 귀한 삶의 시간들을 바둑에 많이 빼앗기느라 인생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본업의 많은 다른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바둑 때문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등은 차변으로 와야 하는 것이다. 바둑을 두면서 내가 작성하려고 했던 정확한 손익 계산서는 서로 가치가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부득탐승(不得貪勝: 이기려는 목적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바둑을 그르치기 쉽다.)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면 바둑과 삶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바둑은 나에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후세의 사람들이 옳은 삶을 산 선배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 오랫동안 갈고닦은 삶의 지식을 후세에

전수하고 봉사하며 산다면 세상은 더 즐겁고 아름다울 것이다.

오늘도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을 보며 삶의 의미와 깊이를 생각하며 배우고 또 새로 깨우친다.



신 용 재

- 현 국제계약 연구소장 겸 한국해양플랜트 컨설팅 대표
- Active Senior 연구원 수석 부원장
-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사) 전문위원
- 전 (주) 유로인스 대표이사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 중앙대/한양대 평생교육원 및 한국플랜트 협회 국제계약 교수위원
- 시니어조선 명예기자 겸 시니어 기자단 활동, SBA 창업닥터

멍석

이 경 희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시끌벅적 골목길이 터져버릴 것 같은 설레는 가슴도 오징어 튀기는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팝송이 섞인 튀김집 미니스커트가 디스코 춤을 추던 순수한 학창 시절이 눈앞에 아른 거린다.

철이 들어 너와 내가 구분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기가 올 때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인생 삶이 꼬이고 꼬이며 살아갈 때가 많다.

볏짚으로 새끼줄 꼬듯 덧대고 덧대며 길게 길게 늘어트리니 인생과 닮은 꼴이 아니던가!

손바닥 위에 오가는 인연 얹어 놓고 덧대온 세월을 내 것으로 끌어안은 채 깊고 넓은 자리에 삶이 멍석 위에 희로애락이 찬란하게 펼쳐진다.

내가 주연이 된 하루의 일상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소용돌이 없는 하룻길에 감사해야 할까
다져진 내 마음 맷집에 감사해야 할까'
나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잔잔한 오늘의 주연과 조연은 또 하루가 막을 내린다

하얀 밤 지새운 여명은 눈부신 새날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날을 선물 받는다. 만추의 이슬 머금은 오색 빛깔 한 잎 두 잎 눕는 날 높다란 파란 하늘 뭉게구름이 풍문 신고 팔도에 오락가락 가을의 낭만을 떨어트려 준다.

"이 가을 추남 추녀 행복하세요."

옥구슬 던져 주는 추풍낙엽 주워 든 채 하늘 한쪽에 자리 잡은붉게 타오르는 석양은 왠지 모를 포근한 평화로움을 안겨준다. 연민의 바람 나뭇가지에 찢겨가며 불어오는 얼룩진 세월 멍석 위에 모여 앉은 연정내 것인 양 혼신을 다해 품어본다.



이경희

- 서울 출생, 시인, 문학평론가
- 시부문 '지리산 자락' 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 서울중구문인협회 부회장
- 중구지부 중구문학지 편집위원
- 역사문학회 사무국장
- 대한민국 문학대전 문학상 외 다수

개인 문학지의 생명력과 영향력

이 두 백

백두산문학지의 발행인인 김윤호 친구가 2024년 1월 15일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는 소식이 답지되어 깜짝 놀랐다. 다음날 서울 태릉에 있는 장례식장에 바로 갔는데, 부인께서 알아보고는, 독감과 폐렴이 겹친 게 직접 사망원인이었다고 얘기해줬다. 그간 코로나바이러스도 두 번 확진되었었다고 했다.

떠날 때는 말이 없다지만, 2023년 11월~12월에만 해도 여러 차례 컴퓨터 메일로, 제47회 백두산문학 문학 강연 및 시 낭송회, 제41회 백두산문학 신인문학상 시상식, 제11회 백두산문학상 시상식을, 12월 17일 서울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그들먹하게 한다고 알려와 전화통화도 몇 차례 했는데 그 뒤 말없이 떠났다.

사단법인 한국문협이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도 함께 많이 참석해왔고, 2022년 11월 1~2일, 제42차 전국지도자대회가 열린 부여에서도 1박2일 함께 했다. 같이 한 산책도 커피 집에서 여러 참석자들과 나눈 환담들도 살아올라왔다. 그때, 2021년엔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꽤 고생했고 그 전 젊었을 때 폐렴을 한번 앓아 더욱 조심한다고는 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2년 12월 7일에 고창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소식도 알려줘 칭찬해줬다.

아마 김윤호 친구가 쓴 마지막 글이었을 〈계묘년 한해가 저물고 동

튼 갑진년에는〉이 실린 2024년 1월 12일자 영광신문이, 이 친구 장례식 후인 1월 19일에, 내가 사는 집에 도착되어 읽게 되니 이 친구의 돈키호테같고,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었던 인생행로가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왔다.

이 친구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구였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살던 가족들이 전라남도 영광으로 이사 왔었기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로 전학 와서 나와 같은 반 친구가 되었다.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영광읍에 소재한 중학교에도 3년간 같이 다녔다. 걸어 다니던 나로서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친구가 부럽기도 했다. 우리 집과 이 친구 집이 멀지 않아 자주 오가곤 했다. 이 친구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항상 따뜻이 대해주셨고 집이 꽤 크고 마당과 뒤뜰도 넓었다. 누나들과 여동생이 많았지만 독자아들인 이 친구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같이 먹곤 했다. 이 친구 부친께선 소가 아플 때 침을 줘서 낫게 해주시는 소위 시골수의사격인 '소침 주시는 분'으로 통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고생들과 시낭송회나 문학의 밤 행사에 참여하곤 하더니, 법과대학 다닐 때는 전국불교학생회 활동에 심취하였다. 고시공부를 하면서는 엉뚱하게도 단식에 심취하여 단식도장을 열기도 했다. 내가 대학졸업 후 고시공부 해보려던 1974년 2월엔 엉뚱하게도 687쪽에 이르는 〈불교성전〉 책을 보내왔다. 응원을 하려던 것이었던지 고시를 포기하고 취업하라는 암시였었던지 궁금했지만 덕분에 심취해서 모두 숙독했다.

이 친구가 나보다 2년 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집에 내려와 있을

때는 자주 놀러가서 대화도 많이 했고 친구가 보유하고 있던 법정스님의 책들 및 문학서적 들을 많이 빌려서 탐독했다.

이후 이 친구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 계속 대학원 공부를 해서, 행정학 박사학위도 땄고, 정치권도 많이 기웃거렸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조금 안 되었었던지 박사학위 마칠 즈음엔 며칠 간격으로 급한 전화를 다섯 번이나 해와 웃으면서 급전 수요를 충족해 준적도 있다.

그러다가 이 친구, 엉뚱하게도 1991년 현대문학지를 통해 시로 등단했고, 용감하게 1994년 6월11일엔 백두산문인협회를 창립했다. 1995~6년경엔 이 친구의 장모님과 처남을, 어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의 처남이 농촌에서 수문용접 일을 해온 경험자여서, 내가 대형조선소에 취업시켜주는 중간역할을 했었다. 역으로 세계 5위 규모 조선소를 건설하여 가동을 준비하던 조선소에선 기능인력 모집이 절실하던 때라 서로 좋은 결과가 되었고, 이 친구가 사위/ 남편/ 매형역할을 잘 한 셈이 되었다.

1999년 3~4월에 엉뚱하게도 이 친구가, 서울신문과 공동주최로 시인, 화가 등 예술인 백여 명씩의 금강산 뱃길문화체험을 몇 차 주도했다. 이 친구의 이런 활동을 응원하시는 분도 계셨던지 첫 시집『화산』5천권을 펴냈고, 이 친구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

2000년 7월에 종합문예지『백두산문학』창간호를 발행하였다기에, 대학 다닐 때 대학신문, 취업 후 회사 사보에 글을 지속 투고해오던 나도 이 친구 통해, 2002년『백두산문학』2호에서 수필로, 2003

년『백두산문학』4호에서 시로 등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친구는 계속, 2004년 6월 대북 인도적 물자지원 단장으로 북한의 진남포와 평양을 방문하더니, 2006~7년엔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로 개성에 가서 평화통일의 숲 가꾸기를 주관했는데 나도 개성에 같이 가서 은행나무20여주를 심었고 내 명찰도 달아놨었다.

2016년 10월엔, 이 친구 또 국회출입기자포럼을 출범시키더니 2023년까지 통일정책토론회를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 및 교수들 참여하에 5회나 가졌다.

통일을 염원하고 체험한다는, 고구려 옛 터 및 백두산역사문화탐방을 20회나 주선하기도 했는데, 2023년 9월에도 주선한다기에 지인을 합류하게도 했다.

『백두산문학지』는 2023년 말에 41호를 발간했고『백두산문학지』를 통해 등단한 인원은 25년간 약 350명에 이른다.

한 개인이 주도하여 발행하는 문학지의 생명력은 얼마나 될까? 개인이 주도하는 문학지가 문단의 민주화에 기여하여오고, 글 쓰는 이들을 많이 발굴하고 글쓰기 생활화의 지평을 넓혀오는 데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발행인 별세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또한 쉽지 않은듯하다.

한국문협에 가입하기 위해, 내가 2008년 수필로 재 등단했던『문예한국』도 어느 사이 중단되어 안타까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

복해 오면서 41호를 넘긴 『백두산 문학』지가 백두산문학 출신 작가 350명이나 김윤호 친구의 지인들에 의해 지속 발행되길 기대해 본다.

(월간문학 2024년 8월호에 게재)



이두백

- 호 : 월백, 시인, 수필가
- 서울중구문인협회 4대 회장 역임
- 서울중구문인협회 명예회장
- 한국문협 정회원(2008년)
-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문학의집 서울 회원
- 수필집 : 『상처뿐인 영광』(2008년)

난 아픈데 하나도 없어

이 미 옥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가기위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세 발자국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는 윗옷의 목선이 답답하셨는지 스웨터의 목선을 느려 뜨려 가슴까지 늘여 겨우 숨을 쉬고 계셨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가시는 데도 거친 호흡에 10리 길을 걸어 오신 듯 전신에 흐르는 땀방울이 매우 힘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도 벌써 4시간이 지났다. 어머니는 기다림에 지치셨는지 집에 가자고 보채신다. 딸에게 미안해서인지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큰소리로 웃으시기도 하신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딸 앞에서는 죄인이셨다. 조금이라도 건강이 좋으셨을 때 고향에 다녀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는게 가슴 아프고 후회스럽다. 수술도 시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면서 힘든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마음, 어머니 앞에서는 큰 죄인이 되고 말았다.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혼자 사시는 세월이 길었고, 리더십이 강한 분이라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어머니가 싫을 때도 있었다. 자식된 도리로써 잘 해 드려야 하겠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식사를 못하시는 어머니가 좋을 리가 없다. 마음으로는 동정과 안타까움과 안스러움을 온 몸으로 느끼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이 야속하기만 하다.

끼니를 거르고 호흡이 부자연스러워도 "난 괜찮다"하시면서 웃음을 보이신 어머니, 당신 몸이 병들어 마지막을 예고하는 데도 아픈데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 없는 살림에 많은 자식들 키우시느라 좋은 것 맛있는 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무얼 드시고 사셨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사셨는지, 그저 아깝다고 TV도 켜지 않고 절약을 몸소 실천하신 어머니, 휴지 한 조각도 아껴 쓰는 어머니의 절약 정신, 물론 그때 그 시절엔 절약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기에 근검절약을 물질 만능시대에 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울 어머니는 신식 어르신이시다.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시려 하고 아직도 주간보호에 갈 때는 머리 드라이하고 외출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가신다. 지금은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언니라 할 때도 있고 친구라 할 때도 있다.' 어쩌다 정신 차리면 그때야 내가 딸이란 걸 알아차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호사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이제 어머니는 세 발로 걸어 다닌다. 세상에 소풍 와서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으셨을 어머니,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회고하고 계실 것이다. 남겨진 발자취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빛깔로 남아 있을까. 아마 하얀색 아님 사랑스런 핑크색? 아님 암흑의 색깔 아마 어머니의 인생 색깔은 무색일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속에 분침과 초침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가지런히 뉘어놓는다.



윤소당 이미옥

- 시인, 아동문학 수필가, 시낭송 교육지도사, 평생교육사
- 서울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졸업
- (사)한국문협 서울지회 이사 및 중구지부 회장
- 서울 중구문인협회 회장, 대륙문인협회 부이사장
- 한국가곡작사가협회 이사, 한사랑문화예술협회 부회장
- ㈜우리건설그룹 대표. 문학의 빛 작가와 함께 편집위원
- 시 집 : 『윤소의 노래』『가슴속에 피는 꽃』
- 동시집 : 『책속에 사자가 있어요』
- 동요 : 『아이의 꿈』 • 가곡 : 『갈색 잎새에 맺힌 그리움』 외 다수
- 황진희문학상 외 다수

도시 농부의 밥상

이 정 연

장마철이라 몇 며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냈다. 그도 그럴 것이 찬거리를 거의 밭에서 얻는데 물이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다. 곧 저녁할 시간인데 비가 잠깐 멈추기에 부리나케 밭으로 달려갔다.

꽃대를 살짝 올린 상추가 허리춤에 묶어 둔 푸른 잎을 내어놓는다. 초록색이던 파프리카는 거의 일주일 이상 볕을 쬐지 못했음에도 노랑 빨간색으로 익어서 더 탱글탱글해졌다. 손가락만 했던 오이와 호박은 따낼 시기가 지나서 노랗게 늙어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인의 인기척에 반들반들한 얼굴을 내민다. 풋고추는 어느새 약이 올라 피부에 탄력이 여간 아니다. 붉게 익으면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어 볼 요량에 마음이 설렌다. 온천지에 넝쿨을 내는 고구마는 순을 좀 솎아 주고 잘 익은 방울토마토도 두어 움큼 손에 넣는다. 비가 온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한 밭인데, 평소에 보살핀 덕인지 고맙게도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다. 밭고랑에 난 풀을 뽑고 고추나무는 북을 좀 돋아 주고 이리저리 손질을 해 주고 나니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났다. 푸른 잎들이며 열매들을 수확하니 어느새 땅거미가 내리고 집에 오니 저녁때가 늦어졌다.

시장기나 피로도 잊은 채 갓 따온 풍성한 재료들로 찬을 만들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을 생각을 하니 신바람 난 손발이 저절로 움직인다. 풋고추, 당근과 대파는 한입에 넣을 크기로 잘라 전을 부친

다. 가지는 폭 쪄서 단맛 나는 무침을 하고 오이는 껍질이 질기니 살짝 긁어내고 오랜만에 고추장 초무침으로 입맛을 돋운다. 나무마다 달랑 한 개씩만 열려서 귀하게 얻은 파프리카는 샐러드 해먹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조금 얻은 방울토마토와 색을 맞춰 생으로 아삭 씹어 먹기로 한다. 어묵볶음에도 채소를 곁들여 맛을 더한다. 스무 평 남짓 작은 텃밭이지만 내게 대양과도 같은 기쁨을 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뿌리가 동글동글한 비트도 심고 아욱과 열무, 얼갈이, 대파까지 심어 먹으니, 기르는 재미며 맛이 채소를 사서 먹는 것에 어찌 비하랴. 특히나 대파의 맛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대파는 듬성듬성 잘라서 숯불 바베큐 할 때, 석쇠 가장자리에 올려서 은근히 구워서 입에 넣으면, 그윽하고 깊은 단맛을 따라 무아지경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 장마가 오기 바로 전에 감자를 수확했는데 작은 자루 하나 가득 나왔다. 소금을 약간 뿌리고 쪄 봤다. 파실파실 분이 나서 부드럽게 으깨어져 천천히 목 안으로 스며들었다. 감자에 나는 분 만큼 행복감도 파근파근 일어나서 저 멀리서 불어온 바람을 타고 향기처럼 퍼져 나가는 것 같았다.

이제 비가 그치고 한더위가 지나고 입추가 지나면 바로 가을 무, 김장배추, 쪽파와 갓을 심으리라. 스무 해 정도 그 농장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는 무르거나 군내가 나질 않고 아삭거리며 깊은 맛의 풍미가 여간 아니었다. 다음 해 김장김치 담을 때까지 어느 반찬보다 더 맛있게 먹는다.

그뿐이랴,
지금은 자녀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아이들

이 유치원생, 초등생 저학년일 때 애들 친구 몇 가족을 불렀었다. 그 초여름 주말 저녁에 고사리손들이 엄마랑 같이 상추를 따고 씻고 상을 차리는 동안 아빠들이 숯불을 피웠다 양념을 재워서 가져온 고기를 숯불로 은근히 구우니 온 들판이 양념 맛에 절구여진 것처럼 구수한 바베큐 냄새가 진동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 냄새는 난생처음이라며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군침을 질질 흘려대며 숯불가에 바짝 달라붙었다. 녀석들 극성에 제대로 익었는지도 살필 겨를도 없이 고기를 가위로 잘라 주었더니 얼마나 게걸스럽게 먹어 대던지 그 기억이 이십여 년이 지난 오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해가 진 후에 모닥불을 피워서 그 속에 넣어둔 군고구마를 부지깽이로 보물찾기하듯 뒤적일 때 아이들의 뺨에도 노을이 즐겁게 물들어 갔었다. 요즘도 아이들이 모이면 그때 먹은 고기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 돌아보면 텃밭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삐리릭 소리에 돌아보니, 현관문이 열림과 동시에 코를 벌렁거리며 언제 컸는지 장대만 한 큰아들 녀석이 달려와 안긴다.
"흠~ 엄마 이 냄새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그리웠어요. 특히 코로나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리 엄마표 주말농장 음식" 그랬어? 울 아들. "그래 맞다. 텃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무공해 밥상이지." 큰아이는 킁킁거리며 손 씻을 겨를도 없이 젓가락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것저것 집어삼켰다.

세상의 어느 제왕의 밥상도 부럽지 않은 우리 집 밥상을 차려 놓으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배가 부르다.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고, 세 아이 중에 늦둥이 녀석의 난산으로 누워서 살던 나를 살려낸 일등공신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단순히 병마를 이겨낸

게 아니라 맨발로 흙을 밟고 때로는 푹신한 자연의 품에 안겨 쉼을 얻었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흙이 주는 기운이 심신의 아픔을 씻어 주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주말농장을 한 지 어느새 이십여 년이 훨씬 더 지났다. 그렇게 귀신들린 것 같은 병마가 주말농장 한 세월만큼 저만치 밀려나간 것 같다. 예전 어르신들의 말씀이 떠오른다.

"일구는 대로 주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 오늘 밤은 장마가 쉬어 갈 모양인지 창문을 여니 시원한 밤공기가 어둠을 가로질러 거실로 들어왔다. 우당 탕탕 아이들이 오면서 지네들 아빠와 만난 모양이다. 녀석들의 머릿수를 세며 밥공기를 챙겨 들고 밥솥으로 향해 걷는 발걸음이 가볍다. 식구들이 다 모이면 곧 마주할 자연의 식탁이 짙푸른 설렘으로 다가오면서….



이정연

- 시인, 시낭송가
- 2019년 시부문 등단
- 2020년 국자감 문학상 수상
- 2022년 노원구 시낭송대회 은상수상
- 2022년 윤동주 문학상 외 다수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실크로드 따라 탄탄 4국을 가다 (최종편)

정 재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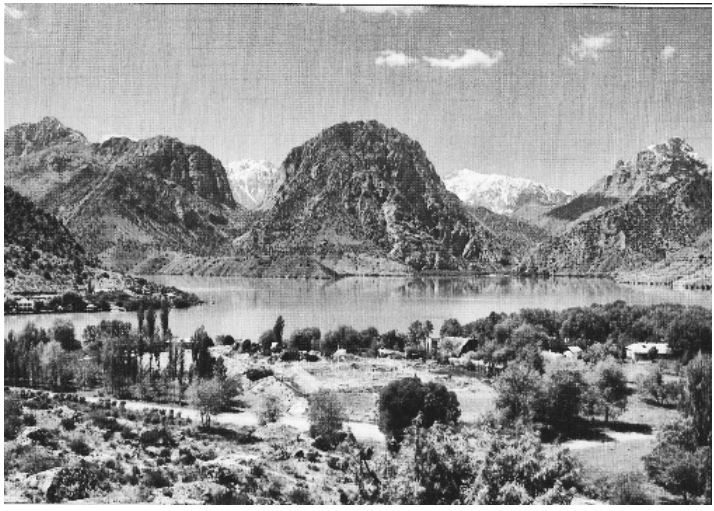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을 가다.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 19 질병으로 세계가 여행이라는 것을 가로막아 인류는 자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2023년 초가 되면서 각국들이 그들의 문을 개방함으로써 다시 여행의 시대가 열려 필자도 2023년 6월 23일부터 약 15일간의 실크로드의 ~ 스탄 (현지어로 "땅"이라는 말)를 다녀오게 되었고, 이 여행기를 한번에 남기고자 하여 5개국을 통합하다 보니 그들의 역사 만큼이나 조금 길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남부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5개 공화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서 투르키스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천산산맥을 경계로 한 '서 터키 민족의 땅' 이라는 뜻이고 동쪽은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로서 동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린다.

또한 이 지역의 지형은 유라시아 중앙에 있는 파미르는 지구가 만든 커다란 주름이며, 이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천산산맥이 가로 놓여 있다. 천산산맥의 동쪽으로는 타클라마칸, 고비사막, 중가리아, 카림분지가 있고 서쪽으로는 카라쿰 사막과 키칠쿰 사막이 펼쳐져 있다. 천산산맥의 동쪽에는 카슈가르 강과 타림 강이, 서쪽으로는 일리 강,



아무다리아, 시리다리아 (다리아는 강이라는 뜻)가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의 로프노르(羅市潭)의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간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마을들은 대부분 해발 700~800m에 해당하는 파미르, 천산산맥의 북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의 둔드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 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만, 파미르 산맥의 해발 7,000m를 거쳐 콤무니 봉에 부딪치면서 기온을 급 강하시켜 많은 눈이 내린다. 그래서 주변은 만년설과 빙하를 이루며 강의 근원을 이루는데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산 경계로 들어서면 당당하게 흘러내리는 계곡을 만날 수가 있다. 어떤 강이든 골짜기를 지나면 산기슭이 밀어 닥치는 모래 파도에 부딪친다.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 (다리아는 강이라는 뜻) 등의 큰 강은 다행히 이 모래땅을 흐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강은 사막에 물을 흡수 당하고 어느 틈엔 가 소실되어 버린다. 이러한 강을 '꼬리 없는 강'이라 하는데 지도에 많이 나타나 있는 푸른 물줄기도 대부분은 증수기(增水期)에만 흐른다.

오아시스와 실크로드의 번성

산기슭에서 평지나 사막으로 흘러나온 물은 흡수되어버리지만, 해발 700~800m에서는 아직 급수가 가능하므로 땅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높은 곳은 험한 산이고 낮은 곳에는 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곤 했다. 그리고 남쪽의 카슈가르, 아크스 등의 지역에선, 인도의 습한 공기가 히말라야 산맥으로 넘어오면서 천산의 경사면에 작은 강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조해져서 지역적으로 오아시스의 조건이 이보다 까다로워졌다. 타클라마칸의 사막의 길은 '죽음의 행진'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자연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유일의 길, 오아시스 길(실크로드)를 오가게 되었고 그 길을 통해 세계를 좌우하는 커다란 흐름이 지나갔던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 곳에는 오아시스 길 (실크로드), 초원의 길(스텝로드), 말의 길 등 몇 개의 횡단 종단 교통로가 있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의 거점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실크로드였다. 중국 시안을 거점으로 해서 란쪼우, 뚠황, 투르만, 우루무치, 신장지역을 거치고 다시 아라무투, 비스코푸, 지앰블, 타쉬킨트, 사마르칸, 부하라, 마리, 마샤드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이란의 타브리즈, 은즈룸, 콘야와 이스탄불, 지중해 동쪽해안까지 도달하는 전장길이 7,000km의 고대 교통로로서, 결코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루트를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그 기운데 4,000km가 중국 경계를 통과한다. 실크, 모피, 옥, 유리, 황금, 말 등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교역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천산산맥 서쪽과 현재의 중국 쪽이 실크로드라는 하나의 길로 이어진 것은 기원전 2세기 한왕조를 다스렸던 한무제 때였다. 그렇다고 그가 취미 삼아 실크로드를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페르가나에 서식하고 있던 명마(名馬)에 대한 집

착과 이를 손에 넣기 위한 소유욕의 발로였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막을 길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작은 샘물 주변에는 하나 둘 집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오아시스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다. 수리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 오아시스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개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수리 개발자와 관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물과 관련된 권력자를 중심으로 '소그디아나'라고 불리는 땅에 오아시스 문화가 이룩되어 사회,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고 해서 물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 주위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다.

물 주위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상인이 되어 대상을 이끌고 가까이 있는 오아시스로 물물교환, 매매를 하는 여행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한 오아시스에서 다른 오아시스로 이동하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먼 나라의 진기한 물건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아시스 민족의 경제는 점차 대상 무역이 그 중심이 되고 오아시스는 대상이 통과하는 거점으로 변하게 되었다. 대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오아시스는 농경, 수리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숙박 도수로서의 양상을 드러나게 되었다. 대상들의 숙소나 낙타를 연결하는 '캐러번 살레'라는 장소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으면 유곽까지 생겨났다. 또한 官公 무역을 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져 동서 문화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또한 오아시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인 뿐 만 아니라 유목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주로 알타이 계 민족으로 유라시아의 북방에 펼쳐진 초원지대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 등의 모피를 두르고 고기와 우유를 주식으로 하면 '유르타'라는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텐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쌀, 보리, 차와 같은 것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유제품이나 가죽

을 가지고 오아시스 민족의 싹과 보리로 교환하기도 하고 물자를 구하기 위해 오아시스 민족과 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 공존했다. 그들의 기마 력은 통상 도로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오아시스의 번성을 이루었다.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갈등

중앙아시아이라는 지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첫번째는 자원의문제이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자원의 보고였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자원적 가치가 높다. 에너지 문제이다. 에너지는 미래의 모든 면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가, 기업은 물론 개인의 번영과 안보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언지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조지 프리드먼)

중앙아시아에는 온갖 종류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략자원이 풍부하다. 전 세계 천연가스의 5%, 전 세계 석유와 석탄 매장량의 3.5%가 이곳에 있다. 최근에 부각되는 카스피해는 걸프 만과 시베리아에 이은 제3대 석유보고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영토대국이다. 1979년에 유전을 발견하였는데, 매장량이 아라비아 외에서는 가장 큰 유전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며, 천연가스 석탄도 풍부하다.

반대로 자원의 부족현상도 있다. 바로 수자원 문제이다. 중앙아시아 문명의 초생달 지역을 만드는 강은 시르다리아 강과 아무다리아 강이다. 시리다리아 강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3,019km인데, 대부분(75.2%)이 키르기스스탄에 분포되어 있다. 서쪽인 아무

다리아 강은 길이가 2,540km인데, 타지키스탄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프카니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 결국 수자원 전체의 90%가 이곳에 집중 되어있다. 반면에 최대의 수자원 소비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다. 거기에 아랄해가 이미 말라버렸다. 수자원 공급은 고사하고, 이미 심각할 정도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로는 교통로 문제이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중앙에 있다. 과거부터 특히 에너지 생산국인 아라비아와 유럽,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요충지이다. 과거부터 오아시스 길(실크로드), 초원의 길(스텝로드), 말의 길 등을 비롯하여 몇 개의 횡단 종단 교통로가 있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의 거점이었다. 대표적인 길이 소위 실크로드이다. 시안을 동쪽 기점으로 해서 란쪼우, 뚠황, 투르만, 우루무치, 신장지역을 거치고 다시 아라무투, 비스코푸, 지앰블, 타쉬킨트, 사마르칸, 부하라, 마리, 마샤드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이란의 타브리즈, 은즈룸, 콘야와 이스탄불, 지중해 동쪽해안까지 도달하는 전장길이 7,000km의 고대 교통로로서, 결코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루트를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그 기운데 4,000km가 중국 경계를 통과한다. 실크, 모피, 옥, 유리, 황금, 말 등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교역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해양산업의 발달과 식민지 쟁탈로 인하여 중앙아시아의 교통로의 가치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가들의 자원채굴 정책이 불투명하고, 해외에서의 투자 또한 불투명하다.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루트 또한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변지역으로 운송하는 통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페르시아만에서 각각 인도와 중국의 서쪽까지는 1,600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육로수송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는 우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석유수송로의 역할이 절대적인 해양 우세에서 육로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석유생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강대국들이 교통로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요소, 즉 군사력도 동원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다. 카스피해산 원유를 서방으로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그렇지만,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을 비롯하여 수송로 문제, 철도건설 등을 놓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터키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신대륙주의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아시아는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 지역은 고대 이전으로부터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유사성이 강할 뿐 아니라 초원의 길, 사막의 길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역사상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우리 또한 영향을 끼쳤다. 중앙아시아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지정학적 지문화적 가치를 알고, 우리와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신 실크로드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이다.

실크로드의 쇠퇴와 근대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큰 교차로였던 실크로드가 쇠퇴하게 된 것은 16세기경 희망봉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유럽제국이 앞을 다투어 새로운 해로를 개척하기 시작 하면서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 교류의 길이 해로로 바뀌게 되면서 19세기가 되자 유럽과 러시아의 세력이 실크로드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한(汗)들에 의해 여러 차례 착취와 강탈을 당했던 실크로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력 앞에 간단히 항복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서 투르키스탄은 러시아에, 동 투르키스탄은 중국에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에 각각 정복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국과 러시아의 중립지대가 되어 국경이 만들어졌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국경이라는 의미는 그때까지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이 광대한 토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게 된다면 가축의 사육과 이동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차츰 집단이 줄어들어 유목민은 쇠퇴하게 되었다.

준엄한 자연환경도 막지 못했던 동서의 교류는 열강세력들이 각각 만들어 낸 국경의 벽에 의해 단절되고 실크로드의 번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실크로드는 문화 교류와 평화 교류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여행을 위한 팁(TIP)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하기전에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단어들이다. 모양이 비슷비슷하여 그냥 똑같은 건물로 이해하다 보면 혼돈이 올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때는 Palace, Castle 또는 Fortress 등은 잘 알고 있으나 중동지역이나 중앙아시아 등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할 때는 이 단어들의 차이점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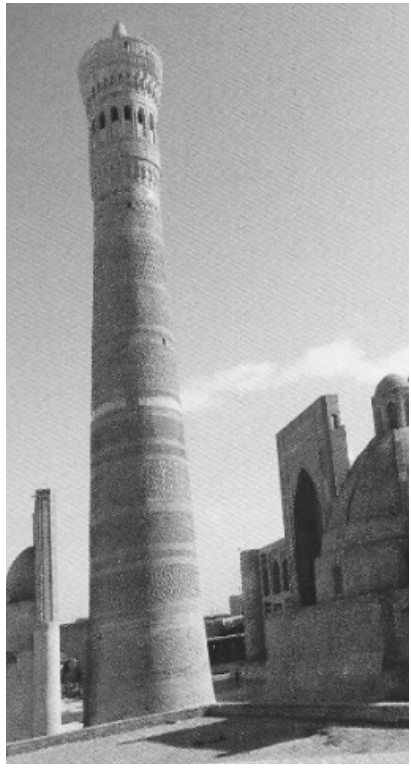
메드레세(신학교, Madrasah)모스크(이슬람 교회, Mosque), 무슬림임(묘, Mausoleum), 바자라(노천시장, Bazaar) 그리고 미나레트(이슬람 광탑, Minaret)

메드레세는 신학교, 모스크는 사원이라고 번역한다. 이것들은 8세기경 중앙 아시아에 침입한 아랍인의 이슬람교적 지배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모두 이슬람 교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이다. 메데레스와 모스크를 보면 이슬람교의 정복 역사를 알 수 있다.

모스크는 이슬람 교도가 하루에 다섯 회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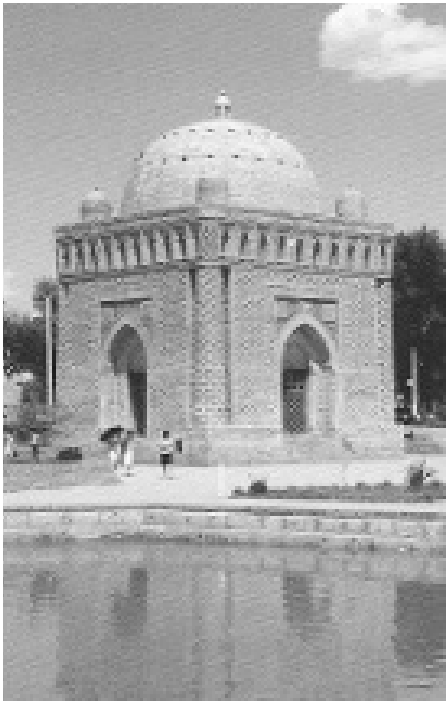


장소였다. 본당의 가장 안쪽을 키브라(제단)이라 부르며 가장 신성한 지역으로 여긴다. 우상숭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곳에는 동상 같은 것은 없고 다만 서쪽의 메카를 향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모스크는 문을 닫고 있으며 단지 그 벽면의 아름다운 타일이나 모자이크 모양, 건축양식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옛날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그치고 있다. 그것들은 역사가 탄생시킨 작품일 뿐이다.



메데레세는 이슬람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연구하고 생활하는 장소이다. '아잔'이라고 부르는 기상 소리에 하루가 시작된다. 예배당에서 첫번째 예배를 드린 학생들은 아라비아 어를 공부하며 코란에 대한 학습을 심화한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이슬람 종교 본부의 결정에 따라 이슬람 세계 또는 아라비아 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된다. 구소련의 이슬람교 본청 및 이슬람 관계 문헌은 타시켄트의 바라크한 회교 사원에 있다.

미니레트는 광탑(光塔)이라고 번역한다. 첨탑?) 광탑은 중앙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탑의 기원은 옛날 바빌로니아 때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아시스 생활을 영위하던 대상민족인 이슬람교도들에게 도입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7세기 중반 무렵 이슬람교의 확장과 함께 각지에 이러한 형식이 전해지고, 그 지역의 예술과 관련하



여 독창성이 풍부한 광탑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대부분 모스크나 메데레세와 함께 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하나만 세운 것도 있고 두 개나 네 개씩 무리 지어 세운 것도 있다. 사각기둥인 것과 원주인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높게 솟아 있으며 꼭대기에는 창이 뚫려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배시간을 알리기 위해 '아잔'이라고 큰 소리를 낸다. 부설된 메데레세에서 사람이 나와 하루에 다섯 번씩 이 광탑 위에서 알려 준다. 또 밤이 되면 탑 위에는 불이 켜지고 바다의 등대처럼 캄캄한 사막의 파도속에서 길잡이가 되어 준다.

좁은 한 줄기의 실크로드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미나레트이다. 대상들은 오직 미나레트를 목표로 하여 전진하다. 그곳에는 물이 있고 음식이 있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하다,

무슬림임는 소위 말하는 묘지이다. 왕들과 그들의 가족과 공신들의 묘를 잘 만들어 보존하고 있다.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

이슬람은 구약 성서 따르는 종교를 말하며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참고로, 이들은 구약을 신봉하며 신약

의 예수님도 선지자로 믿지 않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원죄도 믿지 않는다.

페르시아와 아랍

페르시아는 이란을 말하며 아랍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이집트를 말하는데 7세기 아랍이 페르시아를 침공 이슬람과 아랍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의 언어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언어이다. 페르시아어는 28개의 아랍 문자 + 4개를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사용하고 있고, 아랍은 28개 문자 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는 그냥 심한 지방 사투리 정도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수그디아나와 소그트 인

아랄 해에서 흘러 들어오는 아무 강(아무다리야)과 시르 강(시르다리야), 두 개의 강에 접해 있는 지역을 '마크라 안나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아무다리야를 향하고 있는 쪽'이라는 의미이다. 유럽인들은 아무다리야를 '오카서스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오카서스 강을 건너는 곳'이라는 의미로 '트란스 오키시아나'라고도 부른다.

이 지역 중간쯤에 제라프샨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 유역을 '소그디아나'라고 불렀다. 이곳에서는 제라프산 강에 의존해서 예부터 농경이 이루어졌으며, 오아시스는 도시구가를 형성하였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펜지켄트, 마이무르크 등은 소그디아나의 중요한 오아시스이다. 소그디아나는 투르키스탄의 사막부로 불리기도 하고 '중앙아시아'라고도 넓은 의미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가 소그디아나의 중심이었다.

소크트 인은 6~7세기, 제라프샨 강 유역에 살았던 이란계 오아시스 민족으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입에 꿀을 머금게 하고 손에는 아교풀을 쥐게 했다. 후에 성장해서 대상이 되었을 때, 입은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고 일단 손에 쥔 금은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소원이 담겨 있는 의식이다. 소크트 인들은 투철한 상인 정신을 가지고 동서교류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들의 활동범위는 지금의 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 해 연안, 이란, 북인도, 몽골평원까지 미쳤다고 한다.

왕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대상무역으로 부를 쌓기도 했다. 그들은 계약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으므로 어떤 경우라도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권력자가 계속 바뀌는 날라에서 좋은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8세기에 아랍 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소크트 인들도 사라져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뿐 만 아니라, 도망쳐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도 점차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어느 틈엔 가 소크트 어와 관습들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된 것이다.

차이하나

차이하나란 차를 마시며 피곤한 다리를 쉬어 갈 수 있는 찻집 같은 곳을 말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찻집으로 큰 공원이나 급수지, 수영장, 바자르 근처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많은 노점을 열어 놓고 있다. 포장마차 같은 곳은 물론 나무 그늘을 이용해 옥외에 탁자를 늘어 놓은 야외 카페도 있다. 이 곳에서 편안히 쉬는 방법은 차이하나는 모두 기본적으로 셀프서비스 이므로 먼저 커다란 사모바르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곳에서 기호에 맞는 차를 선택한다.

차는 크게 '곡 차이'라 부르는 녹차와 '카라 차이'라고 부르는 홍차

로 구분된다. '카라 차이'의 카라는 '검다'는 뜻으로 홍차라고 보다는 흑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차이'는 '차'를 뜻한다. 중앙 아시아에서는 특히 곡 차이를 선호하는데 이 곳 사람들은 이 곡차이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이들 차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코카서스산 차도 있다. 차를 하나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잠시 기다렸다가 빈자리가 나면 자리에 앉도록 한다. 차이하나에서 마시는 찻잎은 마을 시장에서 팔고 있으므로 호텔에서 뜨거운 물을 얻어 시장에서 산 차를 마시면 물을 갈아 마실 때 나타나는 배탈 증세도 가라 앉는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도 차이하나는 권할 만한데 기름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여행 중에는 배탈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구급약 등을 준비하여야 무사한 여행을 할 수 있다.

나무 밑에서 넘쳐나는 물

부하라의 키로프 공원에 정오쯤 가보면 나무들이 무성한 땅 밑에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부하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에 있는 나무들 밑에서는 반드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막화는 토양의 염화를 동반하게 되고 염화는 식물에의 수분 공급 뿐 아니라 땅 속에 함유된 염분을 녹여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하라 공원의 땅에도 소금 결정이 나타나 있다. 오아시스 민족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Diaspora)'는 민족 분산 또는 민족 이산으로 번역하며, 한 민족 집단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 뿐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부터 백제의 멸망, 고구려, 발해의 멸망에 이어 고려의 삼별초 패망,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디아스포라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다. 중국 내부에서 살았던 '조선족'과 러시아 영토안에서 '까레이스키'라는 이름으로 살던 이들은 1945년에 조국이 해방될 무렵에는 거의 10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들은 한국 근대사에서 발생했던 고난과 직결된 슬픈 존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존심이며, 민족의 양심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단순하게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한 사람들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일부는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연해주지역과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군들의 전쟁은 이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물론 일본, 미국, 남아메리카 등에서도 이들은 독립운동을 했고, 국내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제 조선족과 까레이스키를 포함한 전세계에 포진한 700만의 해외 동포들은 한민족의 미래에 또 다른 가치와 의미로 거듭나고 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직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곳이 러시아에 살던 소위 고려인(까레이스키)들이다.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러시아는 조선인(고려인)들이 일본을 도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스탈린은 이주명령을 내려서 고려인들은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다. 1937년 10월 25일의 운송책임자였던 에조프가 상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고려인들은 124개 열차를 통해 36,642가구, 171,781명이 40여일 동안 강제이주 되었다. 그런데 열차로 이동하는 도중에만 500여명이 숨졌고, 모두 2만여명이 강제 이주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의 카자

흐스탄 지역, 우즈베키스탄 지역, 키르키스탄 지역에 버려져서 말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고려인들은 약 470,000명으로, 우즈베키스탄 198,000명, 카자흐스탄 105,000명, 키르기즈스탄 19,000명, 타지키스탄 6,000명, 투르크메니스탄 3,000명 외에 러시아 125,000명, 우크라이나 12,000명과 기타지역에 5,000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지금껏 타국의 국적을 갖거나 또는 무국적자로 살아가면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디아스포라 들이다.

다음은 각국들의 간단한 소개이며, 좀 더 자세한 역사 문화 탐방기는 별도의 국가별 여행기에 소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토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서쪽으로는 사막 오아시스 도시가 이어지고, 동쪽은 흰 눈으로 덮인 천산(천산)의 길이가 2,000km나 되어 벽을 바라보는 듯하다. 수도 알마이타에서는 천산의 줄기인 아라 토 산맥이 어느 곳에서나 보인다. 산맥 맞은편에는 이스크쿨 호수로 유명한 키르기스스탄이 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전에 가능하면 바이칼 호수를 방문해 보면 좋은데 왜냐하면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을 흐르는 총 길이 약 1,000 km, 강폭 30m에 이르는 장대한 일리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일리'란 몽골어로 '빛나다'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기까지 험한 산 속을 누비듯이 흘러온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물이 흘러 들어온 나라, 카자흐스탄은 칭기즈칸, 티무르 등의 정복자들이 맹렬하게 말을 타고 달렸던 대초원 지대에 있다. 초원지대에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떡갈나무, 포

플러, 아카시아 등 울창한 나무들이 가도를 따라 심어져 있다.

봄에는 새하얀 꽃을 땅 위에 흩뿌리는 사과나무가 특히 아름답다. 사람들도 이 사과나무에는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듯, 알마이타 시의 문장에는 사과나무가 디자인되어 있다. 알마이타란 '사과의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 알마이타에 있는 것은 사과 뿐만 아니다. 이 도시의 북방에는 구소련의 우주 개발 기지인 바이코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공위성 등의 최첨단 과학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천산의 남서쪽으로는 중국의 신(新疆) 위구르 자치국이 있다.

알마이타가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된 것은 1923년의 일이다. 그 이전에 이 지역은 유목 생활 중심으로 현재의 정착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카자흐스탄이 지금과 같은 현대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태고적 이 부근은 카스피해나 일리 고원(천산 북동)주변까지 광범위한 이동을 계속하는 유목민의 통과 지점이었다.

많은 유목민이 통과하면서 끼치고 가는 영향은 매우 컸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 부근을 중심으로 하는 정착 농민의 이야기 중국에서 전해온 불교, 로마의 크리스트교에 관한 이야기 등은 지식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뿌려졌다. 사람들의 생활은 유목 중심이었지만 유목민이 가지고 온 동서의 문명은 이곳에서 교차되고 혼합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오늘날 까지도 사람들의 얼굴모양이나 습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용맹한 기마 민족도 이 땅을 지나 갔으며, 칭기즈칸이나 티무르는 13세기에 이곳을 무대로 활동했다. 몽골인이 침입해 오자, 유목민들은 러시아의 차(황제)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것을 계기로 카자흐는 러시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고 유목 생활에서 정착 농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교통의 요지가 되는 장소에는 제르누이라는 성채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는 상업활동도 이루어졌다. 이것은 18세기 중엽의 일로 알마아타

의 기원이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유목민족 키르키스탄 인은 오랫동안 이민족의 압박과 지배를 견디어 왔다. 그들은 기원 전후에는 흉노, 그 이후에는 당나라와 위구르, 그리고 원나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옮겨왔으나 그 후에도 청나라와 코칸트 한국, 러시아의 침략은 계속되어왔다. 코칸트 한국, 시대에 만들어진 요새 비슈케크가 하나의 도시로 된 것은 러시안 점령 당시의 일로, 이것이 프룬제의 전신이 된다. 비슈케크는 교통, 교역의 중심지였다. 20세기 들어오자, 드디어 키르키스탄 인은 혁명을 일으키고 비로서 자기 자라를 갖게 되었으며 1939년에는 소련의 공화국이 되었다.

공화국의 수도는 전부터 도시의 중심지였던 비슈케크로 결정되었는데, 그 후 키르키스탄 출신의 소련 장군 미하일 프룬제의 이름을 따서 프룬제로 개명되었다가 다시 옛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비슈케크틑 양모와 면화의 생산지로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들의 예법은 '손님은 신의 선물, 순간을 머물러도 틀림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키르키스탄의 속담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의 금언이 많다.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참으로 예절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 사이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들은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준다. 그들의 모양에는 어딘지 모르게 동양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층 더 친밀하게 느껴져 편안한 느낌이 든다. 그들의 대접에 응하기 위하여 키르키스탄의 예법을 기억해두자. 악수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사악한 마음이 없음을, 양손으로 할 때는 서로의 정이 깊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양손으로 악수하도록 하자. 또 한가지, 차를 따를 때는 뜨

겁게 마시기 위해 조금씩 따른다. 차가 없어지면 즉시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어디 쪽을 보아도 눈 덮인 산맥이라는 느낌을 주는 산의 나라이다. 수도 두산제는 파미르 산기슭의 아주 작은 틈에 생긴 계곡이 있다. 두산베란 타지크 어로 '월요일'을 가르키는 말인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금요일이 우리의 일요일에 해당한다.) 매주 월요일 마다 이곳에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상들에게는 물론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이 시장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서 물자를 구하거나 교환하는 일 외에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 도시에는 유적이나 오래된 건축물이 없다. 따라서, 고대 판지켄트 성터 와 박물관 방문 (기원전 4000년전 고대 문명 정착지) 사라즘 유적지 탐사로 만족해야만 했다.

파미르 고원 레닌 봉(해발 7,134m)의 베이스 캠프(해발 3,600m)에서 텐트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오시에서 사리타시까지 16인승 스프린터로, 다시 사리모굴에서 집(Jeep) 차로 갈아타고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하여 추억의 하룻밤을 위해 추위와 싸웠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이곳을 지나야만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추억이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 중앙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키질쿰(붉은 사막)과 카라쿰(검은 사막)으로 덮여 있다. 남쪽 끝은 파미르 고원의 한쪽 끝에서 준엄한 아라이 산맥의 기슭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들

산에서는 두 개의 강인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가 사막으로 흘러내려 오고 있다. 그것이 몇 개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펜지켄트 등의 도시가 되었다.

도시는 사막의 고립된 섬과 같았지만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로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수목을 심고 꽃을 피우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나 그리스의 서사에는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라시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태고부터 동서 교류의 중계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사람들은 대상무역을 생활의 근원으로 삼았다. 우즈베키스탄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러한 오아시스 사회 위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이슬람 신앙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어떤 도시를 방문해도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있다. 모스크의 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얼마나 이슬람화 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푸른 도시 사마르칸트

티무르는 아름다운 도시, 사마르칸트를 만든 위대한 영웅이었다. 유목민(터키 족) 출신인 그는 칭기즈칸의 유업을 이어받아 유라시아에 대국을 건설해 갔다. 대부분의 인생을 정복의 길에서 보낸 그는 끝없이 파괴하고, 금, 은 보화와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는 예술의식을 겸비하여 칭기즈칸이 거의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던 문화 사업에도 정열을 쏟았다.

모스크나 메데레스는 정착 문화권이 탄생시킨 선물이다. 그는 유목국가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정착민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여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수준도 능가하게 했던 군주였다. 사마르칸트가 푸른 도시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푸른색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지금도 돔은 티무르의 권위를 전해주면서 푸르게 빛나고 있다.

러시아의 진출

16세기 들어서자 러시아의 남하가 시작된다. 17세기 말에 표트르 대제가 즉위하면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그것은 남인도와 중국 동부를 겨냥한 정복과 제패의 실마리를 얻은 것이다. 러시아의 남하는 성능이 우수한 무기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타시켄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결국 흥망의 역사를 걸어온 오아시스 민족의 운명도 이렇게 부정되어 갔던 것이다.

이 땅이 러시아 군에 점령당해 병합된 것은 19세기 중반이며 주의 행정구는 사마르칸트이다. 도시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철도도 건설되었다. 이러한 근대화의 진행은 우즈베키스탄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군주적인 지배하에서 식민지화가 되었던 것이다. 20세기 들어서자 각지에서 혁명 투쟁의 열기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곳에서도 〈사마르칸트〉라는 기관지가 발행되었다. 혁명의 성공은 우즈베크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왔으나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이 지방은 사회주의화 되어 우즈베크 공화국으로서 구 소련 연방을 구성한다. 이렇게 레닌의 지배하에서 문화적 유산은 발굴되었고 수복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되살아난 모스크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다.

1992년에 구소련의 해체로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우즈베키스탄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구소련에 끌려가고 있다. '시와 노래 없이 사람들은 살아 갈 수 없다'는 이들의 표현은 역사의 변천과 위대한 자연속에서 노도 같이 살아온 우즈베키스탄 인들의 금언이다.

페르가나(녹음이 짙은 천마의 고향 분지)

한 왕조의 사자가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이지역에서는 벼농사와 밭농사라 행해졌으며 사람들은 포도주를 양조하고 있었다. 史書에는 놀라움에 찬 글로 이 시기의 페르가나(중국어로는 大宛)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실크로드가 열리면서부터 당시 페르가나의 수도였던 아프시켄트는 동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는 번영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1219년 몽골 군의 습격으로 인해 무기를 갖추지 않은 채 평화를 누리고 있던 아프시켄트는 며칠 사이에 모두 파괴되었다. 북방 유목민의 거듭되는 약탈을 당하면서도 번영했던 페르가나였지만, 몽골인의 기습 전에 이미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그 후 두 번 다시 도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현재 조사중인 아프시켄트 대도시 성지에서는 석조 목욕탕 유적과 하수도관, 포도주 저장고 등 당시의 번영을 말해 주는 유적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알렉산드로의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현장이 방문하여 장대한 꿈을 이룬 곳이 이 곳 페르가나이다. 지금은 대 페르가나 운하가 가져다주는 물의 혜택을 받아 포플러 나무 등에 둘려 싸인 목화밭이 광대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분지가 되었다.

환상의 천마를 찾아서

천산산맥의 서쪽과 현재의 중국 쪽이 실크로드라는 하나의 길로 이어진 것은 기원전 2세기 한왕조를 다스렸던 한무제 때였다. 그렇다고 그 가 취미삼아 실크로드를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페르가나에 서식하고 있던 名馬에 대한 집착과 이를 손에 넣기 위한 소유욕의 발로였다.

천산을 넘어 무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명마에 대한 소문은 지금도

페르가나에 전설로 남아 있다. 이 준마는 세계의 어떤 말보다도 늠름했으며 달릴 때는 피 빛 같은 땀을 흘린다고 해서 '汗血馬'라고도 불렀다. 더구나 이 말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神馬였다. 한무제는 이 소문을 서방에서 돌아온 사자로부터 듣자마자 페르가나에 사자를 보내 말을 보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부탁은 거절당하고 사자는 살해당했다. 그러자 이에 격노한 무제는 대군을 페르가나에 보내어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다. 실크로드는 이때 한나라의 대군이 개척한 길이었고, 이때부터 페르가나와 한의 교역은 활발해졌다.

장건이라는 남자

페르가나의 명마를 처음으로 무제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실크로드를 건설하게 한 사람은 장건이라는 인물이다. 당시 북방의 기마 민족인 흉노족이 말리장성을 넘어 여러 번 한 나라를 침입하자 무제는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흉노족에 의해 서역으로 쫓겨난 '월씨'라는 민족과 손을 잡게 된다. 그러나 월씨(월지국)의 근거지는 머나먼 서역이라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골이 장대한 사자가 아니면 먼 여행 도중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장건은 바로 이 어려운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다 그는 길을 떠난 후, 10년간은 흉노의 포로가 되었고, 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그는 서역을 향해 당초 복적대로 월씨에게 연락을 전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월씨는 전투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비록 장건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적어도 그가 갖고 돌아간 서역에 관한 정보는 실크로드를 개척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치르치크 강의 오아시스와 타시켄트의 번영상은 당나라의 역사책에 '돌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크로드의 대동맥이 달리는 소그디아나에 비하면 타시켄트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 사마르칸트를 능

가한 것은 19세기 말 시르다리아 행정구의 수도가 되면서부터였다. 당시에는 원주민과 러시아 인의 마을이 분리 통치되었지만, 서서히 러시아의 한 도시로서 계획적인 개혁이 추진되어 갔다. 특히 대지진 후 경계는 일시에 무너지고. 이슬람 거리는 급속히 러시아화 되었다. 이렇게 하여 현재 이슬람적인 요소는 도시의 북서부에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고대부터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중세에는 튀르크계 국가들이 건국되었다. 호라산 지역은 트란스옥시나 일대와 함께 동서 교역의 중심지로 이 지역에는 아바스 왕조를 비롯한 여러 제국들이 발흥하였다. 트란스옥시나의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카스피 해 넘어 캅카스 동부의 아제르바이젠과도 역사를 많이 공유하는 편이다.

다리우스 1세는 리비아 해안지대의 바르카라는 도시에서 주민들이 반 페르시아 폭동을 일으키자 도시 주민 전체를 멀리 호라산 지역으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이오니아의 해안지대의 그리스인들의 폴리스 밀레투스가 봉기하자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인들은 봉기를 진압하고 주민 상당수를 노예로 만든 후 박트리아 각지로 이주시켰다. 약 150년 후에 알렉산드로 3세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박트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주민 상당수는 그리스어와 박트리아 현지어가 혼합된 기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알렉산드로 3세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당시 이 지역 마사게타이족 기병들이 마케도니아군에게 상당히 애를 먹였다. 알렉산드로는 마케도니아 중무장 기병으로 마사게타이 기마 궁수들을 제압한 이후 이 지역의 오아시스에 '알렉산드라아 마르기아나'라는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는 나중에 메르브의 기원이 된다.

알렉산드로 사후 휘하 장군들 간의 권력 다툼과 내분이 일어나며 이 지역은 셀레우코스 장군과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가 되었다. 페르시아 영토에 정착한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페르시아 여성들과 혼인하고 이 지역에 그리스인 이민이 들어오나, 향수병에 결린 그리스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해 폭동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이 지역의 서부 이란어군 계열의 파르티아인들이 남하하여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과 투르크메니니스탄을 아우르는 파르티아 제국을 세웠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니사는 파르티아 제국 초창기의 수도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 파르티아인들은 니사에 위치한 궁전을 헬레니즘 양식으로 꾸미고 그리스식 조각상들로 장식하였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가 지나치게 서쪽에 치우친 이유로, 카르티아인들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중앙을 장악하자 셀레우코스 제국 동부의 그리스인들은 고립되어 그리스-박트리아 왕국 그리고 인도 그리스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식 주화를 주조하며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간다라 미술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를 뿌리내리게 된다.

고대 중앙아시아의 주류 종교로 부상한 불교와 여러 종교들이 공존되고 있었는데 7세기경 순니파 이슬람-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 후에 투르크화 되어 번영하던 호라즘 제국이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말 그대로 초토화되게 된다.

이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일 칸국이 붕괴된 후 티무르 제국이 호라산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샤푸르와 메르브, 발흐 같은 중세 번영하던 도시들은 몰락하고 대신 아프카니스탄 서부의 헤라트가 부흥하였다, 호라산 서부지역은 백양 왕조의 차지가 되었다.

1511~1873 사이에는 우즈베키스탄인들과 튀르크멘 인들의 국가인 히바 칸국에 튀르크메니스탄과 카라칼파크스탄,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서부 일대에 들어서 통치했다. 히바 칸국은 부하라 칸국과 마찬가

지로 무굴 제국에 말이나 말린 찻잎을 수출하며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히바 칸국 경제는 농업보다는 목축업의 비중이 강한 편이었고, 이 지역의 인구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인한 파괴와 학살아래 과거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정체된 수준이었다.

1740년부터 1746년 동안 기술변화로 말의 수요가 급감하자 히바 칸국은 줄어든 세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코칸트 칸국이 청나라 신장 지역을 약탈해서 한족들을 노예시장에 파는 것을 모방하여 이웃 지역을 약탈하였다.

종종 이 지역에 정찰 나온 러시아 군인들이 통째로 증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튀르크멘 족들에게 습격,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된 경우였다.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 제국은 19세기 후반기 군대를 보내 히바 칸국을 정복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튀르크멘 족들이 약탈하던 카자르 왕조 동북부 지방 일부를 접수해 버렸다.

러시아 제국 정복 이후에도 히바 칸국은 명목상 지위는 유지하였으나, 대신 히바 칸국의 영토는 러시아 제국령, 투르케스탄 총독부 예하 크란스카스피아 주에 소속되었다. 카스피해 동부에 위치해 있던 이 트란스카스피아 주가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이 된다.

카스피해와 아프카니스탄을 잇는 철도가 건설되고 러시아가 이 지역을 너머 아프카니스탄을 노리면서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부터 3년후 1920년 히바 칸국은 최종적으로 폐지, 멸망하고 화레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선다. 이 때 히바와 부하라등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 가버린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 독재를 하고 부자 세습을 하며 불안정한 형태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필자가 이번 해발 5,000m~7,500m의 천산 산맥을 넘고 또 넘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걱정되었던 것은 첫째 만년설이 기후 변화로 거의 다 녹아 인접 국가간 물 전쟁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둘째로는 옛날에 일종의 병기로 사용하던 말들이 지금도 이곳에는 많이 사육되고 있다. 정말 보기에도 탐이 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해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어 아무리 경마용이나 레저용으로 쓴다고 해도 그 옆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와 양들에 비하면 어떻게 소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요즈음은 약제로 혹은 식용으로도 사용된다고는 하기는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 국가들의 천연자원 발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옛 대우 자동차(현 시보레) 공장이 있어 한국에서 보던 여러 차종이 승용차, 옴니버스나 택시로 시내를 누비고 있다. 필자가 만난 현지인에 따르면 아프터 마켓용 부품들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많은 중앙아시아인들이 한국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와 집도 짓고 공장도 차려 잘 살고 있으며 곳곳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한국에 지금보다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빨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옛날 우리가 중동 등지 가서 일하던 생각이 난다.

좋은 길목에 위치하여 오랜 동안 많은 번영과 문화 발전을 이루었지만 주위의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종교, 문화 그리고 국제 결혼으로 혼합된 민족으로 마지막의 식민 국가가 독재 주의 국가인 소련연방(현 러시아)였기에 1991년 독립하였지만 빠른 경제 발전 없이 통제된 구 러시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무능함에 불만으로 가득차여 있어 빠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남미 또는 유럽 국가들 중에 사회 주의 혹은 전체 주의를 따르던 국가들이 꽤 잘 성장하다가 지금은 빈민국이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잘못 뽑거나 그 권력자들이 주는 포퓰리즘에 속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필자는 8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지금 국가 총생산이 3만불이 넘는다고 자부하는 나라들은 하루 아침에 빈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선진국이 되기 까지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 마냥 해외를 떠돌며 싸구려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재영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현대 중공업 전 해외영업담당 임원
- 현대 건조 제1호선 VLCC S/N "Atlantic Baron" Guarantee Engineer
- ㈜ 현대중공업 영국 런던지사 근무 및 그리스 아테네 지사장
- 중소기업청 수출 자문위원
- ㈜ 필(무역) 컨설팅 대표이사 회장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K-한류원조, "천부경 = 당신이 바로 하느님입니다"의 메시지

하 성 호

우리의 몸은 정신과 육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몸은 땅에서 받고 정신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죽게되면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즉, 몸은 땅으로 정신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늘민족이라는 우리의 몸은 부모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자신을 바로 알려면 혈통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곧장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은 땅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인 하늘과 통하려면 우리민족의 천지인사상을 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천지인사상은 81자『천부경』이 우리민족의 창세기 마고성을 출성出城하여 한인천제를 통해 한웅천황에게 전해졌고 다시 단군시대로 계승이 됩니다.

『천부경』은 一 始無始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하나 그 하나는 시작이 없고 一 析三極無盡本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그 다함이 없는 근본은 그대로다. 天一一 地一二人一三 셋중 하늘이 첫 번째로 나온하나고, 땅이 두 번째로, 사람이 세 번째로 나온 하나다.(중략) ……人中天地一 사람안에 하늘과 땅이 있어 셋이 일체를 이룬다 一終無終一 만물은 하나로 끝나되 그 하나는 끝이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宇宙우주의 첫시작, 創世창세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우리민족의 古

書고서 부도지符都誌입니다.
태초에 律呂율려가 있었고, 율려에서부터 수많은 별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아주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율려에서 짐세朕世가 나오고 마고麻姑가 나옵니다.
근원의 어머니 마고가 짐세에 태어나서 마고성麻姑城이 생깁니다.
천부天符를 마고성의 정중앙에 받들고 모셨다.

마고가 궁희와 소희를 낳고 궁희가 황궁씨와 청궁씨를, 소희가 백소씨와 흑소씨를 출산해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마고성을 출성할 때 황궁씨가 간곡히 당부합니다. 수련修鍊해서 모든 迷惑미혹됨을 남김없이 씻으라고 합니다.
막연히 수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본複本의 열쇠이자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하는 천부天符를 나눠줍니다.

마고성에서는 마고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이 出城출성을 결정하고 神, 마고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훗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고성을 복원한 것이 부도符都, 즉 단군조선이고 아사달입니다.

전 인류의 사상, 종교, 이념의과 모든 철학등이 한국에 모여들어와 홍익인간의 블랙홀에 녹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동북아 한반도에 전 세계의 인류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K-한류가 그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나누다보니 원자가 되었습니다.

원자는 가운데의 핵과 핵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한때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과학운동이란 전체와 하나와의 유기체적 관계를 인식하는 과학입니다.

신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소립자들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인 소립자의 차원까지 내려가면 더이상 물질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天地人은 바로 하늘과 땅과 하나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는 수없는 하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딱딱 막혀 있는 것 같으나 땅 속 깊은 곳에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전부 허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부 땅입니다. 공기 속에는 탄소, 수소등의 수많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립니다.

사람은 뿌리를 몸속에 갖고 있습니다. 몸속의 폐를 보면 그 폐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도 뿌리가 잘리면 죽듯이 사람도 뿌리인 폐가 멈추면 죽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살 수 있지만 폐에 이상이 생겨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마치 육체를 향해 뻗어 있는 듯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뿌리는 육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허공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몸속에 감추고 있으나 뿌리를 박고 있는 곳은 허공인 하늘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허공은 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금은 현대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천지인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대하고도 역동적인 생명에너지의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깨달은 분이 말하면 그냥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작도 없는 하나인 대우주의 분리될 수 없는 역동적인 생명에너지의 파도현상은 각각의 은하계 별무리를 멀리서 보면 나선형으로 별들이 흩어져 가운데의 별을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 역시 확대해서 보면 호수의 물결모양과 같은 회전무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가로로 잘라보면 각각의 세포들이 원형을 그리며 생장해 나간 것을 알 수있고, 우리의 척추를 횡단면으로 잘라보아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몸은 5장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나무가 있듯이 우리의 머리에는 털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 것처럼 거죽이 있으며 돌이 있듯이 뼈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독맥이 지나가며 바다처럼 심장이 있습니다.냇물이 흐르듯이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1년도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우리의 몸에는 12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며 우리몸의 혈도 36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세히 연구하면 우주의 역사와 구조를 낱낱이 알 수 있으며, 태아의 성장과정을 통해서도 지구의 역사가 어떤과정을 거쳤는가를 정확히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땅에 다 담겨 있으며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은 사람 몸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선조들은 우주를 향해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서도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생명에너지를 통해 우주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크게 확대하면 우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천부경』에서 '인중 천지일'이라고 해서 사람 몸안에 하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인은 하느님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한웅은 하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인이나 한웅은 둘다 하느님이 된 사람, 다시말해 하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는 한웅 즉 하늘(桓,天)의 왕(雄,王)이 세운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이 바로 신선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안에는 하느님인 신성 神性과 함께 짐승성인 수성獸性도 들어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신성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신성이 있다는 것을

지구촌의 인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을 천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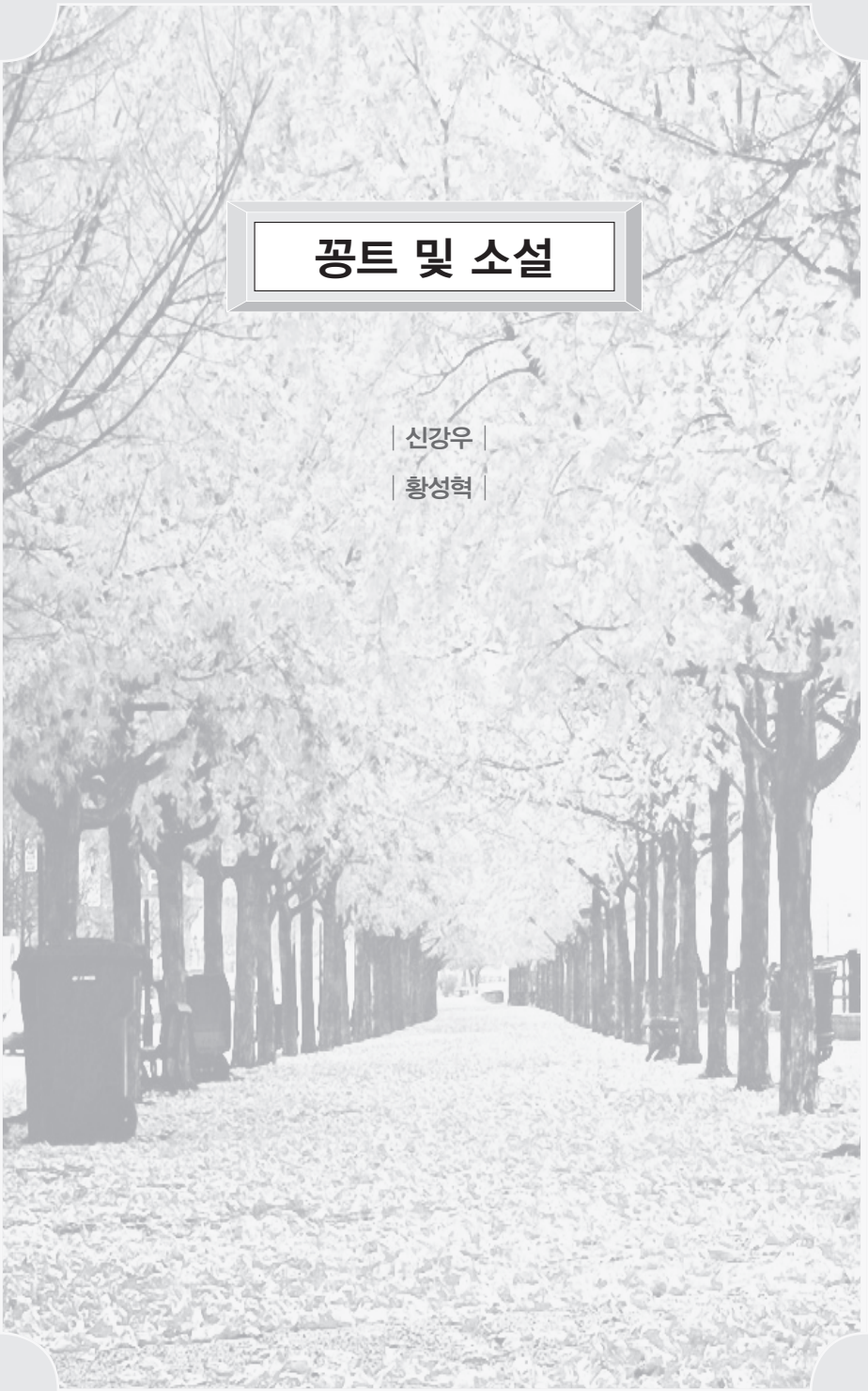
【참고문헌】

– 『단학』『단학인』『신성을 밝히는 글』 일지 이승헌 著
– 『장한결의 부도지 강의』 2022, 좋은땅 刊



하성호

- 62년 전남 진도출생,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졸
- 97년 계간 문예연구
- '섬外6편 신인문학상' 로 데뷔
-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원
- 前미디어시시비비 민족역사팀 부국장
- (現) 역사광복 임시정부방송 유튜브채널 개설중



꽁트 및 소설

| 신강우 |
| 황성혁 |

초졸 선장

신 강 우

나는 그 해운회사 배를 1년 타고 하선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나이가 60대인 선장이 나처럼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선장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했다. 그 선장은 여러 선장이 승선하였는데도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그 선장이 승선하고 1달 후에 내가 그 배 2항사로 승선했다. 승선하여보니 그 선장이 승선하고 있었다. 나는 반가웠다. 그는 상륙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 선장은 카지노에 미친 사람이었다. 선장을 따라 몇 명의 선원들이 상륙했다.

선장이 처음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선장이 딴 돈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나갔다. 카지노가 문을 닫을 때면 선장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선원들은 다음부터는 선장이 돈을 많이 따고 있을 때 선장을 끌고 나왔다. 그런 때에나 선장이 돈을 땄다.

나는 선장이 영어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대리점직원이 배로 오면 영어를 좀 잘하는 선원을 불러 자기 옆에 앉게 했다. 대리점직원이 무슨 말을 하면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는 뜻이었다. 선장은 대리점직원이 배를 내려가면 옆에 앉자 있었던 선원에게 대리점직원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를 물었다. 그리고 선장은 영어문서를 만들 수 없었다. 내가 항해당직을 서고 있으면 선장이 한글문서를 나에게 가져와 영어로 해달라고 했다. 나는 오래 승선하려고 대기했는데 그게 그 선장과 같이 배를 타게 하려고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그렇

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말하자면 회사에서는 그 선장의 글을 번역하는 사람을 나에게 하게 했다. 나는 어쩌다 선장의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되었다. 선장은 배를 타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몇 년간 근무하여 한글서류를 잘 만들었다. 선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탔다. 그러니까 선장의 학력은 초졸이었다. 그러니 영어를 할 수 없었다. 배를 오래 타서 배일은 잘했다. 그러니까 영어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배는 선주가 그리스 사람이었다. 선장에게 권총을 주었다. 그리고 실탄도 넉넉히 주었다. 비상시에 선장에게 권총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 배는 자주 남아프리카 케입타운에 입항했다. 캐입타운 바다에는 물개가 많이 서식했다. 바다에 떠가는 물개를 잡으려고 선장은 권총을 사용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캐입타운 섬에는 물개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때 남아공에서는 백인주의를 택하여 버스도 백인버스와 흑인버스가 따로 있었다.

우리는 백인으로 취급 받았다. 아시아인도 흑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 정책에 반대하여 만일 일본인을 흑인과 같이 취급한다면 남아공에서 일본인은 철수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아시아인을 백인으로 대접했다. 인도도 백인으로 대접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절되었다. 그 이유는 인도인이 흑인처럼 몸이 꺼머니 백인으로 대접할 수 없다고 했다. 극장도 백인극장 흑인극장이 따로 있고 커피숍도 따로 있었다. 어떤 커피숍은 백인과 흑인이 같이 쓰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 커피숍에 가기도 했는데, 그 커피숍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자주 싸운다고 했다.

그때는 흑인지도자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다. 만델라가 7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온몸에 병이 퍼져 곧 만델라가 죽을 거라고 했다. 정부에서 만델라에게 정부의 정책

을 찬성하면 풀어 주겠다고했다. 만델라는 그 지시를 거절했다. 나는 티브이에서 만델라를 자주 보았다. 만델라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대접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거라면서 감옥에서 죽은 게 더 좋다고 했다.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이 백인을 공격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 했다.그래서 보안증을 발급했다.

보안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권총을 하나씩 주었다 백인이 흑인으로부터 거리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면 그에게 사살권을 주었다. 그게 보안증이었다. 특히 백인여자들이 골목에서 흑인에게 강간을 당하면 보안증이 있는 사람은 그를 사살할 수 있었다. 나는 여자들이 배로 올라온 것을 알았다. 말하자면 그녀들은 창녀였다. 남아공에서는 창녀로 일하다가 걸리면 이빨을 하나씩 빼버렸다. 어떤 여자들은 이빨이 5개나 빠져 있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창녀로 일하다가 5번이나 걸려 이빨을 5개나 잃어버렸다.

그 배는 자주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 입항했다. 라고스 항에는 배들이 보통 백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석유가 비싸지니 나이제리아에 문제가 생겼다. 수입한 물품이 거의 곱으로 많아 졌으나, 부두가 적어 그 물품들을 하역할 수가 없었다. 부두를 만드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장기간 닻을 내리고 대기했다.

나는 선장이 써준 한글문서를 영어로 매일 번역하여 선장에게 주었다. 배가 장기간 닻을 내리고 있으니 선장은 오후에 조타실로 올라와 한글문서를 주며 나에게 밤에 번역하라고 했다. 선장은 내 당직시간에 자기가 당직을 서 주었다.

선장은 바둑을 좋아했다 그는 조타수에게 당직을 서게 하고 조타실에서 바둑을 잘하는 선원을 불러 바둑을 두었다. 밤에는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을 섰다. 나의 당직시간은 자정에서부터 시벽4시까지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4시까 하루 8시간이 나의 당직시간이었다. 그때 나

는 침실에서 영어번역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시간이 자정을 넘어 1시가 되어 있었다. 그때 선수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내가 놀라 갑판으로 내려가 보니 선장이 손에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선수에 있는 페인트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갑판에는 꺼내놓은 페인트 통이 몇 개 있었다. 우리 배로 올라온 해적은 말하자면 좀도둑이었다. 그들은 선용품 창고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려다가 들켜 바다로 도망쳤다.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선장은 선수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선장은 권총을 들고 살금살금 선수로 갔다. 선장이 선수에 도착하자마자 옆에서 누가 몽둥이로 선장을 내리쳤다. 선장은 놀라 권총을 발사했다.

선장이 권총을 발사 하니 해적 4명이 바다로 뛰어내렸다. 한 해적이 손을 들고 배로 왔다. 그는 힘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선원들이 그물과 로프을 내려주었다 그때 선장이 또 권총을 발사했다. 선원들이 선장에게 사람을 구하고 보자고 했다. 그 해적은 놀라 돌아섰다. 돌아서고 조금 지나니 그 해적이 바다로 가라앉았다. 조금 있느니 그의 동료 해적들이 조그만 배을 가지고와 그의 동료를 기다렸다, 그의 동료가 안 나오니 그들은 배를 끌고 사라졌다. 그 해적의 죽음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선장이 외 그에게 권총을 쏘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했다.

선장 때문에 우리 배는 아무것도 도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의 선용품을 훔치려고 배로 올라 왔다. 많은 배들이 라고스 외항에 닻을 내리고 오래 대기하고 있느니 라고스에 해적이 기승을 떨었다. 특히 유럽 배들은 고급 물품을 많이 싣고 있었다. 특히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들이 그들의 목표였다. 컨테이너에는 비싼 물품 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 어떤 유럽 배는 컨테이너 10개의 물품들을 도난당했다고 했다. 그들은 어느 컨테이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알았다. 대리점

에는 화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컨테이너를 털었다. 해적들에게 유럽컨테이너선이 주 목표였다.

라고스에는 야시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만든 많은 전자제품이 아주 싼 가격으로 나와 있었다. 그것들은 해적들이 밤에 큰 컨테이너선에서 훔친 것이었다. 라고스 부두근방에는 흑인시체가 떠다니고 있기도 했다. 나는 그 시체가 며칠간 바다에 떠도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그 시체에 대하여 신경을 안 썼다. 우리 배도 가끔씩 독일에서 비싼 물품을 싣고 왔다.

나는 해역인부들이 독일에서 실은 고급기름을 담은 커다란 통을 하역하면 그 기름통을 바다로 빠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당직사관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았다. 그 기름통이 바다에 빠지면 조그만 배가 와서 그 기름통을 끌고 반대편으로 갔다. 모든 배들 선장들을 라고스 해적이 아주 위험하니 보고 있다가 보고만 하라고 했다. 독일 배 선장이 해적들을 잡아 두목의 눈을 빼버리고 대리점에 말하여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대부분의 배들은 정기선이었다. 유럽에서 화물을 싣고 아프리카에 하역했다. 그 기간이 보통 2달이었다. 그 독일 배가 2개월 후에 다시 라고스에 입항했다. 그 배가 닻을 내리고 3일 후에 선장은 해적들에게 묶이어 눈이 삐인 체 조타실에서 죽었다. 그러한 일이 있고부터 독인 선장들은 아예 해적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했다. 말하자면 해적이 화물을 가져가면 그냥 보고 있다가 아침에 보고만 해달라고 했다. 그만큼 선장들은 해적들의 보복을 무서워했다.

나는 우리 배에서 내린 고급 기름이 든 기름통을 바다에 빠뜨린 것을 지켜만 보았다. 라고스 항에는 경찰이 한명씩 배에 타고 있었다. 그들도 해적들이 기름통을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도 나처럼 그냥 볼 뿐이었다. 내가 탄 배는 일반 잡화선이었다.

아프리카에서 화물을 다 하역하고 출항하여 유럽에서 화물을 다 싣고 급유하기 위하여 스페인 서남부에 있는 라스팔마스에 입항했다. 이 라스팔마스는 대서양 어업기지였다. 우리나라 여러 어업회사들이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 그 배들을 트롤선이이라고 했다. 섬이 조그만 했다. 그런데 위치가 좋아 유럽으로 다닌 배들이 그곳애서 급유를 했다. 그곳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체해수욕장이었다. 나는 세계적으로 나체해수욕장이 3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조그만 섬에 나체해수욕장이 있는 게 이상했다. 우리 배는 급유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며칠 대기해야 했다. 많은 배들이 급유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기회다 생각하고 나체행수욕장에 가보았다, 나체해수욕장 근방에 조그만 호텔이 있었다. 호텔 앞에는 모래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 배구코트가 쳐져 있었다. 백인 남녀가 배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체로 커다란 성기를 다 드러내고 배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여자 성기를 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커다란 유방은 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커다란 성기를 잘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몸을 움직일 때l마다 남자의 커다란 성기가 마구 흔들렸다. 그리고 여자의 커가란 유방도 마구 흔들렸다. 나는 남미 우르과이 한 항구에 북한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성기가 너무 길어 로프로 성기를 묶어 허리에 차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성기는 길기만 했지 가늘다고 했다. 그는 여자와 성행위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다. 그는 우리 배에서 하역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물어보면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유럽 여러 항구의 창녀들이 아시아 사람을 고의적으로 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아시아 남자들이 성기가 너무 작아 재미가 없다고 했

다. 밤 내내 유럽여자의 커다란 성기 안에서 헤염만 친다고 했다. 유럽 창녀들은 아프리카 남자를 좋아했다. 아프리카 남자들은 힘이 세서 밤 내내 그것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기가 유럽여자의 성기보다 더 크다고 했다. 보통 하루 밤에 5번씩이나 한다고 했다. 그러니 유럽항구에 입항한 배를 불러 아프리카 남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아프리카 남자가 없다고 하면 그 것으로 끝이었다. 배가 부두에 접안하면 아무 여자도 배에 오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 여자들의 커다란 유방과 남자들의 커다란 성기를 보았다. 나체해수욕장에는 누구나 나체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아시아 사람들이 팬티를 입고 입장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성기가 너무 작으니 부끄러워 그런다고 생각했다. 나도 성기가 아시아 사이즈였다. 그래서 부끄러워 나도 그 유명한 나체해수욕장에 가지 않았다. 대부분 유럽여자들과 유럽남자들이 몸을 모래로 덮고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유럽 사람들은 일광욕을 즐겼다.

나는 태국 파타야 해수욕장에서도 많은 백인들이 일광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라스팔마스거리에는 한국 2세가 가끔씩 보였다. 물어보면 그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다. 그 당시 라스팔마스에는 한국 어선들이 많이 있었다. 한국선원이 자기 여자가 임신을 하면 정식으로 결혼하여 살다가 애를 낳으면 귀국하여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다. 말하자면 그 조그만 애는 국제 고아였다. 그녀는 아직도 남편을 기다린다고 했다. 나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한 창녀가 한국 애를 임신한 것을 알았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어선의 2항사였다.

그녀는 귀국한 그녀의 남편에게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아주 미녀였다. 그녀는 하나의 조건을 우리 배 2항사에게 내밀었다. 2항사에게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라고 했

다. 2항사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2항사에게 바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애가 태어나면 그 애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다 이건 2항사에게 온 행운이었다. 나는 또한 그녀 뱃속에 있는 한국인 2세를 생각했다. 2항사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다. 그 애의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처럼 아버지가 귀국하고 버려진 한국 2세를 가끔 보았다.

나는 그 동안 여러 배들을 탔다.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 타는 배였다. 나는 한 배를 탔는데 그 배 기관장이 한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선원들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다. 김 기관장은 너무나 여자를 좋아했다. 배가 입항하면 먼저 여자를 찾았다.

마도로스에게는 매 항구마다 여자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 김 기관장에게는 이것이 맞았다. 이미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 선원들은 창녀를 피했다. 에이즈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은 올림픽 때문에 에이즈가 잘 알려져 있었다. 창녀가 유명한 방콕에서도 한국선원들은 그곳 창녀들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에이즈 때문이었다.

우리 배 선원들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선원들이었다. 그들은 에이즈를 몰랐다. 내가 여러 번 에이즈에 대하여 말했어도 우리 배에는 여자들이 바글바글했다. 그만큼 많은 선원들이 여자들과 놀아났다. 나의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아무 힘을 얻지 못했다. 나와 기관장만 한국 사람이었다. 김 기관장은 배가 부두에 접안하면 상륙하여 먼저 여자를 찾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자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택한 여자는 다음에도 계속 택했다. 그가 방콕에서 한 여자를 택했는데 그녀의 국적은 라오스였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애의 아버지가 한국 3기사였다. 그는 귀국하고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몸을 계속판다고 했다. 아들에게 든 돈이 상당히 많았다. 김 기관장은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계속 그 애에게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했다. 국제고아가 된 한국 2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배가 베트남에 입항해도 우리 배로 왔다. 그녀는 김 기관장을 하늘처럼 받들었다, 그가 그녀의 한국아들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김 기관장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의 아내는 불임증이 있었다. 한약을 구해 먹고 노력하여 딸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의 딸은 태어 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그는 이상하게 기관장이면서 그의 봉급을 모두 그의 통장으로 적금하였다. 그것도 회사에 말하여 미국 돈으로 입금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는 돈을 많이 썼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하여 생활비를 적당히 송금해주었다. 그가 송금해준 돈이 부족하면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챙겼다.

그는 배가 인천에 접안하여 있으면 아내를 대전으로 불렀다. 그러면 그의 아내는 대전으로 왔다. 그의 아내는 그가 밤마다 여자를 데리고 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생활비를 받아야 했다. 집에 돈이 없으면 고등학교를 다닌 딸에게도 알바를 시켰다. 그는 그렇게 여자에게 돈을 많이 쓰면서 고등학교 다닌 딸에게 알바 시킨 것을 알 수 없었다. 기관장은 그것을 자랑처럼 나에게 말했다. 그는 딸에게 이미 말했다고 했다. 대학은 돈을 벌어서 다니라고. 나는 배를 타면서 많은 기관장을 만났지만 그처럼 모든 봉급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아내를 식당에서 일하게 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는 좀 이상한 기관장이었다.

그의 방콕 여자 친구는 라오스의 화교였다. 이름이 이미숙이었다. 그러나 부르기 쉬운 마리아라고 했다. 말하자면 그게 그녀의 창녀이름이었다. 그녀에게는 나이가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그녀가 아들을 잘 아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방도 얻어 살게 했다. 그녀는 그러니 돈이 많

이 필요했다. 그녀는 나이가 30대고 예뻤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생기면 집으로 데리고 와 놀았다. 기관장은 그녀의 집을 알고 있었다. 배가 방콕에 입항하면 기관장은 먼저 전화를 하고 그녀 집으로 갔다. 언제나 그녀는 집에서 기관장을 기다렸다. 배가 방콕에 입항하여 나는 쉬고 있었다.

나는 에이즈가 무서워 창녀라면 아예 담을 쌓아버렸다. 조금 있으니 대리점에서 기관장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기관장은 그녀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좀 있으니 그녀가 우리 배로 올라왔다. 기관장의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그의 주머니에서 저금통장을 발견했고 그의 주머니에서 그녀와 기관장 그리고 5살짜리 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았다. 살펴보니 그의 저금통장에는 미화 4천불이 들어있었다. 나는 선장이었다.

나는 먼저 한국 2세를 생각했다. 그을 돕기로 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미화 2천불을 송금해주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불을 그녀에게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들을 잘 키우라고 했다. 기관장의 아내는 오래 식당에서 일하여 몇 개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봉급이 많다고 했다. 기관장의 딸도 공부를 잘하여 서울 1류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신강우

- 전남 고흥 출생,
- 〈시조문학〉시조, 〈한겨레문학〉 수필, 〈문학과 의식〉 소설 등단
-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현대시인협회, 열린시학회
-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중구문협 회원
- 열린문학상, 조선시문학상, 한국시조문학상,
- 한국문예 소설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작별(作別)

황 성 혁

"별일 없제?"

핸드폰으로 차분한 목소리가 건너왔다. 토요일 오후 부산에 출장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기 직전이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 박상수이다. 감정원에서 평생을 일한 뒤 고위공직자로서 이십여 년 전 퇴임한 친구이다. 퇴임한 뒤에도 일을 계속했다. 나이가 여든이 넘도록 전국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며 감정 업무를 해 왔다. 노느니 움직인다고 말은 했지만 좁은 국토와 부족한 주거시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돈도 제법 벌었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물음의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말을 계속했다.

"어제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했다."

나는 역시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뒤 남의 일처럼 한마디를 툭 던졌다.

"참 내, 그 친구들이 나를 췌장암이라카는 기라." 나는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췌장암이라고?" "그렇다 카네. 말기라 칸다."

"그 친구들이 누고? 의사들이 그란다 말이가?" "그렇다 카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두어 해 전에 우리는 가까운 동기 하나를 췌장암으로 잃었다. 그는

어느 날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말이 적은 친구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말기라 칸다."

나는 췌장암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는 계속했다. "반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끼라 칸다." 사형선고였다. 참담한 마음으로 나는 물었다.

"그래 일이 이리되도록 내 삐리 두었다 말이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어조로 남의 말 하듯 또박또박 대꾸했다. "췌장암이라는 것이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손도 쓰기 전에 말기로 진행되는 기라."

그는 전력회사에 평생 몸담았고 고향에서 지사장까지 지낸 잘 나가던 친구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띄엄띄엄 계속했다.

"수술을 할래? 항암 치료를 할래? 하고 의사가 묻는 거야. 수술을 해도 그렇고 항암 치료라는 것도 그렇지. 그저 몸에 고통만 줄 뿐인 기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한 육십 년 써먹으라고 하느님이 만들어 준 것인데 팔십 년 가까이 써먹었으니 말썽이 날 만도 하잖나. 나는 결정을 내렸다.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받는다. 진통제로 고통만 줄이면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했다."

나는 불쑥 물었다. "그라모 우찌 되는기고?"

"한 육 개월 정도 연명이 가능하다 카니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다 생각했지. 반년 더 살면서 내 인생을 정리 할라칸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저토록 대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일어섰다.

"가끔 니한테 들를 테니까 맛있는 거나 사주라."

그날 나는 그를 끌고 사무실 건물의 이 층에 있는 횟집으로 가서 제

일 맛있는 것을 골라 푸짐하게 먹였다. 내 목구멍에는 눈물이 차올라 회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천천히 맛있게 시킨 것을 다 먹고 일어섰다. 그 뒤 몇 번 더 그 식당에서 회를 먹고 귀향하듯 그는 이 세상을 떠났다.

"성일이도 그거였잖아?"

나는 할 말이 없어 이년 전 떠난 친구의 일을 꺼냈다.

"바로 그거다. 그 친구는 수술도 거부하고 항암 치료도 거절했지. 그라고 반년쯤 살다가 갔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래 자네는 우찌할 거고?"

나는 그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마치 소주 한잔 권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가 분위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한 대화가 그렇게 자연스러웠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우짜겠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나 스스로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 일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생각 중이다."

억장이 무너져서 나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이 친구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농담하듯 이야기꺼리라도 생겼다는 듯 시시덕 가리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한술 더 떠서 그 절박한 친구에게 뻔뻔스럽게도 '우찌 할기고?' 라고 물었다. 대폿집에 앉아서 소주 한잔하며 다음 안주를 주문하듯 그의 죽음을 두고 노닥거리고 있다.

나는 갑자기 허둥대기 시작했다.

"일이 어렵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말이다. 자네 곁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두 시간 뒤 부산행 기차를 예약해 놓았어. 부산에서 일요일 월요일 일보고, 월요일 밤 기차를 타고 상경하기로 되어 있다. 이건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던 일이라 도저히 변경할 수가 없다. 내가 화요

일 아침 병실로 갈게.”

그는 여전히 느긋했다.

“아니 아니 바쁜데 됐다. 안 와도 된다. 자네 목소리 들었으니 이제 됐다. 일 봐라. 내한테 전혀 신경 쓸 것 없다.”

통곡이 터질 것 같았다. 대신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것을 말하면서 어째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느긋했다.

“모두 당하는 일이 아이가? 걱정하지 마소. 걱정한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는 허둥지둥 서울역으로 향했다. 경황없는 사흘을 보냈다. 기차 타고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 자료 점검을 하고 회의 준비를 했다. 부산에서 우리 쪽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일요일 하루 종일 준비 회의를 했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다. 잠들 때까지 다음날 할 회의를 생각했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회의가 계속되었다. 중요한 회의였지만 그 사흘 동안 나는 허둥거렸다. 마치 급한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듯 일정에 내 몸을 맡겼다. 어서 끝내고 상수의 일을 좀 조용히 깊게 짚어 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평생을 같이 한 친구이다. 그가 떠난다.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심성이 깊던 그가 떠난다.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기 와서 허접스런 밥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그의 병실로 가서 최소한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했던 것 아닌가.

나는 회의 끝나기가 무섭게 저녁 기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기차 속

에서 그의 삶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친구야, 나는 우째야 되노. 성일에게 했듯 그저 죽기 전 맛있는 점심이나 몇 끼 사주고 마는 것가? 주말에 교외나 나가서 서성거려 볼까? 아니면 니가 잘 아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함께 돌아볼까? 친구야, 니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다. 아아 소중한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고.

화요일 아침 열 시, 나는 그의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동창회 부 부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그의 아내가 나를 맞았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병실 안에 있는 소파에 나를 앉혔다. 너무 울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웬일입니까?"
내가 숨을 죽이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금요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식음을 딱 끊었습니다. 쌀 한 톨 안 먹고 물 한 방울 안 마십니다. 나흘째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며칠간 그와 함께 단식을 해 온 것처럼 머리가 텅 비어 왔다. 아 그랬던가? 그의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것이었던가?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식음을 끊은 지 나흘째인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편안해 보였지만 가끔 바늘에 찔린 듯 움찔거리며 찡그렸다. 그의 아내는 허겁지겁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토요일에는 두 아이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그가 하고 있던 일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감정 업무를 아들딸의 도움을 받아 중단시켰다. 모든 일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 있는 선산을 처분하기로

작정했다. 마침 개발지역에 들어있어 값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겼다. 아들에게는 선산을 파는 일과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묘의 이장을 부탁했다. 그는 이미 용인 공원묘지에 자신과 그의 아내가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 합장묘지 셋을 확보해 두었다.

"객지에서 바쁜 너희들이 때마다 시골까지 오갈 수도 없으니 가까운 곳에 내가 자리를 잡아 놨다. 곧 시골 내려가서 이장 준비를 하고 월요일에는 이장을 마치도록 해라."

아들은 국군 장교 출신이다. 상조회가 잘 조직되어 있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적은 경비로 하루 동안에 말끔히 이장을 끝냈다. 주말 동안 그는 그의 재산을 정리했다. 그는 여기저기 제법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집어서 자식들의 동의 아래 나누어 주었다. 아내의 여생에 대한 준비도 깔끔하게 마쳤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컴퓨터에 기록했다. 일요일 저녁 자식들이 돌아가고 둘이 남자 그는 그의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준비 끝났제?"

모든 것을 혼자서 그가 좋을 대로 결말짓고는 죽을 준비를 끝냈다는 것이다. 아내는 따지고 들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끝내는 데가 어디 있어. 나는 뭐야? 도대체 당신에게 나는 뭐야? 당신 정말 내가 당신 따라 순장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듯이 편안했다.

"여보는 내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의 여인이야. 나는 여보를 위해서도 이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누구에게도 걱정 끼치지 않고 추한 꼴 남기지 않고 마치 은하수로 여행 떠나듯 떠나는 거야."

그녀는 피눈물을 쏟았다. 평생을 같이했지만, 그는 언제나 따뜻하

고 정다운 남편이었다. 그렇게 모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물이라도 좀 마셔야 할 거 아니야.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 아냐."

"하루 더 있으면 어떻고 하루 먼저 떠나면 어떠나? 어차피 떠나는 거 추한 꼴 보이기 전 나는 당신의 예쁜 남편 모습 그대로 떠나려는 거야."

나는 그녀의 긴 넋두리를 끊고 물었다. "그래 그동안 사람들은 좀 다녀갔습니까?"

"일요일 두어 분 월요일 대 여섯 분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가 몇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저러니 병문안이라고 왔던 분들이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잠깐 앉았다가 그냥들 돌아갔습니다."

"자네 왔는가?"

그가 나를 불렀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 우레처럼 들렸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분위기였다. 나는 의자를 들고 가 그의 침대 머리에 앉았다.

"온 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네. 잠을 잘 자더구만. 그동안 자네 얘기 부인에게서 잘 들었네."

"그래 잠을 많이 자지. 잠을 잔다기보다 그저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하는 거야. 이 아까운 시간을 잠만 자면서 보내다니."

남의 말 하듯 중얼거렸다. 병실은 건물의 모퉁이에 있어 동쪽과 남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아주 밝았다. 나는 노랗게 변한 그의 눈을 건너다보며 들고 간 건강 음료 박스에서 한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 마셔 보라고. 요즈음 골프장에서 많이 마시는 거라네." 그는 드링크를 그의 입술에 댄 뒤 머리맡 탁자에 내려놓았다. "맛지네."

나는 그의 대꾸가 섭섭했지만 마시라고 강요할 수 없었다.

"자네와 우리 집사람의 대화는 내 다 들었네. 잠이 든 것 같은데 온몸의 신경은 살이 있어. 정신은 꿈속에 있는데 신경은 깨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다 들으며 혼자 온갖 참견을 다 한다네."

나는 짐짓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래 한 사나흘 쌘 단식을 했으니 몸속에 있던 나쁜 놈들은 몽땅 쫓겨나갔겠다. 인자 가뿐한 몸으로 털고 일어날 때가 됐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의사는 뭐라 카드노?"

그는 그윽이 나를 건너다보며 물었다. "뭘?"

"자네가 이라고 있는 거를."

"이기 최선의 길이라고 내가 결심했는데 의사가 뭐라 카겠노?"

"그런데 자네의 몸은 꼭 자네 혼자만의 것은 아니잖은가?" "그라모 누구 건데."

"자네의 삶은 관련 있는 모든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지 않은가? 자네에게 많은 것을 베푼 이 세상에 자네가 갚아야 할 빚도 많지 않나? 그런데 계속될 수 있는 인연의 끈을 어거지로 잘라내겠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의사는 그런 개인의 편파적 결심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 아이가?"

그는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독단 같아 보이지만 이건 내 주변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미 마음속으로 합의된 깊은 약속 같은 거라네."

그의 얼굴이 편안해졌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조급해졌다.

"아이다. 그건 자네의 독선이다. 아직도 건강하고 정신이 말짱하고 책임진 일이 많은데. 그 책임으로부터 함부로 도망칠 수 없지. 내일이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의사는 자네의 독선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는 웃음을 지으며 내게 잡힌 손에 힘을 주었다.

"살 만큼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정말 만족하게 살았어. 나는 이제 한걸음 껑충 뛰면 저쪽 언덕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다네."

"그 건너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기 주어진 인생의 전부 아이가?"

"자네 언제 종교에 입문했던가?" "와?"

"저쪽 이쪽, 넘어간다는 것은 내세를 염두에 둔 종교적 표현 아이가?"

"거기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떠난다는 뜻이다. 삶을 끝낸다는 뜻이다. 다른 뜻이 없다."

나는 그의 잔잔한 얼굴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잠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깨어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그래, 부산에서 일은 잘 봤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물기가 가신 갈라 터진 목소리로 짤막짤막 하게 그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좀 전에 잠깐 잠들어 있는 동안 무슨 꿈 꿨는지 아나?" 나는 그저 그를 건너다보았다.

"김창식 선생님 꿈을 꿨다. 우리 국민학교 육학년 담임 선생님." 눈물부터 나왔다. 우리들의 하늘 같은 선생님.

인민군이 삼팔선을 깨고 쳐내려온 것은 국민학교 오학년 때였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도시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뒷산까지 왔다가 물러

갔다. 그 처참한 동포들 사이의 전쟁은 마치 몇백 년 계속된 것처럼 우리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지만 실제로 일 년 만에 끝났다. 놀라운 것은 그 북새통에도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았던 기간은 반년도 되지 않았다는 일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하는 데 신경을 썼다. 학교는 미군 병원으로 징발되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요정으로 쓰던 건물에서도 공부했다. 그 건물은 우리 반 친구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몇 개의 방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질펀하게 술판을 벌이던 곳이라는 흔적은 없었다. 편안한 교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곧 미군의 사무실로 내주어야 했다.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빈 공간만 있으면 어디건 교실로 사용했다. 모두들 학교 문을 닫으면 목숨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는 듯 아이들의 공부부터 챙겼다. 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설 운동장에 판잣집 가교사가 지어졌고 우리는 거기서 육학년 공부를 했다. 그것도 9월부터 시작되던 학제가 3월로 바뀌면서 6학년 과정이 6개월로 단축되었다. 아이들의 공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른들의 확고한 생각이었다. 일 년 과정을 반년 동안에 차질없이 마치게 했다.

겨울 방학도 없었다. 어두운 아침 일곱 시에 학교에 등교해서 저녁 일곱 시 깜깜해진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새 벽에 도시락을 싸 가서 새벽 공부를 한 뒤 싸간 도시락 아침을 학교에서 먹고, 점심은 집에서 동생들이 갖다 주었다. 그때 김창식 선생님은 우리들의 우상이었다. 그는 사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선생님이었다. 군 입대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했다. 늘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가르칠 때는 열정적이었다. 선생님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라가 어렵고 우리가 사는 것이 곤궁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 한다.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란 듯이 다시 일으

켜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가교사의 판자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신문지를 발라 막았다. 선생님은 전등의 촉수가 낮은 것이 걱정이었다. 어린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때 공부했던 학생들의 시력은 낮은 촉수의 전등 때문에 평생 우리나라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선생님이 전깃줄과 전등을 구해 와서 추가로 직접 선을 연결하고 전등을 달았다. 마지막 전등을 달고 전등을 켠 뒤 책상에서 내려오다 선생님은 책상 아래로 쓰러졌다.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붙들고 한 몸이 되어 울었다.

"내가 작년에 선생님이 사실 댁을 마련해 드렸다." 나는 감동했다.
"아, 큰일을 했구나."
"아니 내가 사드린 것은 아니다. 우리 고향에 낡은 집을 가지고 계셨지. 그런데 마침 해변에 조망이 좋은 아파트의 삼층에 집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낡은 집을 괜찮은 값에 팔고 적당한 값으로 아파트를 사도록 도와 드린 거야. 차액이 좀 생겨서 그 돈으로 선생님의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다네."

그는 생기를 찾아 제법 길게 이야기했다.
"그래 부산인가 어데선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끝으로 은퇴를 하신 뒤 혼자 사셨잖아. 아흔이 넘으셨을 텐데. 자네가 큰일을 했구나. 정말 고맙다."
"나는 내 생애가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 믿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김창식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웅이셨지. 우리의 정신적인 뼈대를 육학년 육 개월 동안에 만들어 주셨어. 선생님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반 아이들과 특별히 구별이

되었어."

"나는 선생님과도 작별을 했다네." "아, 선생님이 다녀가셨나?"

"아니 내 마음속으로."

그는 다시 가물가물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금방 깨어나서 잠깐 꾸물거리더니 비식이 웃으며 엉뚱한 이야깃거리를 꺼냈다.

"자네 그것 생각나나? '중대가리 빠마 해주소.'"

나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멋쩍어졌다.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니 지금 자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왜 그런지 나는 지금 그런 생각만 난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은 걸어서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 학교가 가까워지면서 가게 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된다. 그중에 여자들 머리 손질하는 곳이 많았다. 미군과 한국 군인들이 득실거리는 거리에 밤거리 여성들이 많았다. 그들을 위한 가게들이었다. 가게에는 '파마넨트'라고 적어 놓았다. 그는 느닷없이 가게의 문을 드르륵 열고 그의 빡빡 깎은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중대가리 파마해 주소'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자마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쪼무래기'가 약을 올린 것이다. 약이 오른 주인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 나왔다. 그는 불알이 떨어지도록 도망을 쳤다. 물론 나도 그의 곁에 있었다.

"그때 그기 와 그리 재미가 좋았지? 평생 그런 재미는 없었다."

"세상에 다른 재미가 없었잖아. 또 자네가 있었으니 그런 능청도 부렸지.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판에 그기 생각나나?"

"몰라, 생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다." 나도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실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처참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거기에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뇌나 공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리라 기대했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앞둔 모습은 어쩌면 머지않아 다가올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침전물을 걸러낸 맑게 고인 물 같았다. 얇은 피부를 말끔하게 발라 놓은 두개골에 눈만 빛나는 학 같았다. 금방 끼룩끼룩 울며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다.

나는 차츰 그의 시간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의 몸의 리듬에 나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야위어 가는 심장의 고동에 나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갔다. 부인은 내게 점심을 먹고 오라는 눈짓을 했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가 먹지 않는데 내가 먹을 수 없지. 중요한 것은 한순간이라도 더 그의 곁에 있는 것이다. 나는 다짐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문병객이 오기 시작했다. 그가 특별히 전화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편에서 맺었던 추억, 끊을 수 없는 인연들이 찾아와 그 인연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문병객이 올 때마다 나는 응접 소파로 물러나 앉았다.

방문객들과의 대화는 짧았다. 그는 깨어 있는 동안 입으로 보다 눈으로 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의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들었다. 그것은 그가 설정한 대였다. 그는 인연 깊은 사람들을 무대로 초대했고 그것은 장엄한 작별 의식이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워 있는 사람이 유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견뎌내지 못했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문병객들이 돌아가면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로 돌아갔다. 그는 잊고 있었다는 듯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어려웠던 대학 시절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 어렵던 결혼 생활, 생활이 차츰 풍요롭게 바뀌던 빛나는 시절을 띄엄띄엄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한 어조로 풀어나갔다. 숨쉬기도 어려운 그의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그가 운을 띄우면 내가 말을 이었다.

"한평생, 그래 참 복 받은 인생이었다."

"그건 자네의 심성 탓이다. 아름다운 자네의 가족,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누구하나 자네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는 가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냈다.

"이렇게 꼼짝 않고 누워 있으니 정신이 맑아진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밥을 굶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카던데."

"내 의지 탓인 것 같다.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완성된 형상이 돼 가지고 눈앞에 하나하나 또렷이 줄을 선다. 아쉽거나 후회될 일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보아도 자네는 너무 독선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쓴 대꾸에 그는 그저 웃었다.

"이거 봐라. 나는 지금 발가벗은 기분이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알몸으로 대낮에 사람 많은 광장에 나선 것 같은 기분이다."

"나도 그런 꿈을 가끔 꾼다. 그때마다 부끄러워 옷을 찾아 헤매지 않았나?"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 벗은 것이 시원하고 자연스러워, 아주 자유스러워."

"희랍 신화의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더나. 신들은 모두 벗고 있지. 인간들만 덕지덕지 껴입고 다니지 않더나. 이건 자네의 죽음에 대한 체

험이야. 자네의 이 소중한 체험은 자네를 깨우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이만하고 일어나게. 그리고 자네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도 깨우쳐 주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는 딴소리를 계속했다.

"나는 내가 숨을 거두면 나의 육신을 화장해서 뼛가루를 아무 곳에나, 잘하면 고향 바닷가에 뿌려 주었으면 했다. 가볍고 자유스럽게."

"아니 자네가 나서서 공원묘지에 자네 묘 터를 잡았다며."

"그건 내가 아니야. 나의 장례는 남아 있을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죽은 뒤 나의 육신은 이미 내 것이 아니야. 그들 편할 데로 정하도록 했어. 버려진 육신이 무슨 의미를 갖겠나?"

한 문병객이 돌아가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인 뒤 그는 또 입을 열었다.

"자네 아나? 참 이상한 일도 있다. 아주 밉고 보기 싫던 친구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들을 줄지어 세워 놓고 나는 한명 한명 끈질기게 따져 보았다. 그들의 어디가 미운지? 왜 미운지? 왜 그들이 내게 모질게 구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답이 쉽게 나오더라. 간단해. 내가 그들에게 지나친 생색을 내었거나 그들에게 모질게 굴었거나 그들에게 미움을 살 일을 했던 거야. 그들은 단지 거울이었어. 나의 미움이 그들에게서 반사되어 내게로 되돌아온 것뿐이야. 그런 결론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나? 그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웃음을 띄우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내게 다가오는 거야. 순식간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안 이상하나? 이제 나한테는 미운 친구, 보기 싫은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화해한 사람들이가?"

"꼭 그런 거는 아이고 뭔가 이쪽에 남긴 것이 있는 인연의 끈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지."

'나도 자네와의 악연이 덜 풀린 사람 중에 하나라 말이가?' 나는 거의 입에까지 다다른 말을 가까스로 막았다. 그럴 리 없지만, 또 그러면 어떠랴.

"그래 그 친구들과 화해를 했나? 전화라도 한번 해주었나?"

"화해를 했지. 그러나 전화를 한 것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자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났다."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 노는구나. 그러게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멀게 느껴지던 친구들, 못된 친구들 다 용서하고 모두 멋지고 따뜻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 보자고."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또 다른 병문안객이 있어 나는 소파로 물러났다.

저녁 다섯 시가 문병인들의 퇴실 시간이다. 그는 네 시 반쯤 되자 혼곤한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이제 이쪽에서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우리의 인연도 끝났다. 그는 한마디도 작별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그를 잊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으며 내와의 잊을 수 없는 작별 의식을 마쳤다. 잘 가게. 친구야. 나도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자네를 두고두고 기억할걸세.

나는 일어섰다. 그의 아내가 병원 출구까지 따라왔다. 병실에서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던 아내는 밖으로 나오자 흐트러졌다. 눈물은 끊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타고 내렸다. 나의 얼굴도 눈물로 덮였다.

'우십시요. 마음껏 우십시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울 만큼 우시고 그를 편안하게 보내십시요. 그가 떠난 뒤 더 울지 마십시요.'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따독거렸다. 병원의 출입구에서 드디어 그녀는 주저앉

았다. 그녀가 억눌러 왔던 슬픔과 절망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도 그녀 앞에 퍼질러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 신경 쓰지 않고 통곡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모질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같이 산 사람 앞에서 눈을 벌겋게 뜨고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 남의 눈을 피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소신껏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평생 그렇지 않던 사람이 어째 마지막 순간에 저토록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처님 같은 이타심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나는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로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까지 데려갔다. 그녀의 몸은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처럼 흐트러진 채 흐늘흐늘 엘리베이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 뒤 나는 엘리베이터가 그의 병실이 있는 층에 도착할 때까지 층 표시등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병원을 떠났다.

다음날 김창식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와? 박 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이 드신 분에게 그의 일을 그대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와? 무슨 중병인가?"

"예. 아주 안 좋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지난 며칠간 여엉 전화를 받지 않는구만."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선생님은 어째 편안하십니까?"

"내사 나쁠 것이 없지. 그저 편안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지." "목소리가 참 편하게 들립니다."

"박 사장이 집을 옮겨 주어서 정말 생활이 밝고 편해졌다네. 나이 들면 큰 이사하지 말라고 하더라 마는 낡은 집 정리하고 작고 깨끗한 아파트로 옮겼더니 몸에 새 피가 도는 것 같다네. 어째 여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원."

그쯤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박 사장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이라고 카네예."

선생님이 크게 한숨을 쉬며 혀를 찼다.

"아차차, 췌장암이로구나. 그것 피해갈 수 없는 악질이지 않나?"

"그런데 이 친구가 췌장암 확진을 받은 뒤 곡기를 끊고 물 한 방울 안 마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맙네. 내가 이 나이에 병실에 얼굴 내밀기도 그렇고 장례식에도 나가기가 거북한데 어떻게 박 사장과 작별을 하지? 전화도 받지 않으니."

"어제 선생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평생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아 주고 계십니다. 작별하실 것도 없고 그냥 그 친구를 가슴에 간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나 스스로 저승길에 한 발 내디디고 있는 주제에 남 말할 것 없지."

"선생님에게 하찮은 죽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올 때 특별한 의미를 갖고 태어나듯이 죽음 또한 저마다 숭고한 의미를 갖지 않겠나? 하찮은 죽음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

일세. 전화 끊네. 건강하게 지나세.”

나는 전화를 끊으며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드렸다.

“예 선생님 가끔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 주일 금요일 내 휴대전화에 그의 메시지가 떴다. 나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지하는 형식의 자기 사망 통지서였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종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개의 작은 종이 낮지만 울림이 긴 여운을 내 귀에 남기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잘 가게. 친구야, 내 고귀한 친구야.

며칠 뒤 그의 부음을 들었다. 나는 그의 빈소에도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다. 나는 그와의 소중한 작별 의식을 이미 마쳤기 때문이다.



황성혁

- 호 : 오주
- 마산출생, 마산고졸업, 서울대 공대 조선과 졸업
- 문학써클 백치동인 활동
- 저서 : 『넘지 못할 벽은 없다』『사랑 인생 길에서 익다』
- 장편소설 : 『축복 1』『축복 2』『축복 3』
- 한국문협 정회원: 2019년
- 서울중구문인협회 특별회원
- 서울시 압구정동 〈현중 독서문학 모임〉 회장 역임

제7회

중구신인문학상

당 선 작

윤 익 준

– 마음의 근육 외 2편

소 재 현

– 보르네오 섬의 추억 외 1편

심 사 평

당선소감

당선작

마음의 근육 외 2편

윤 익 준

들숨과 날숨으로
생을 찬미하며
활짝 핀 꽃처럼
가슴 부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면
사랑이라고 했던가

실개천이 바다로 모여들고
내 심장이 뜨거워 질 때
세월속에 굳어버린 옹이
유연하고 평평해진다.

노을

윤 익 준

굽어진 또랑물에
겹쳐진 돌맹이 사이를 돌아
상처난 마음은
하얀 물거품을 안고
낮은 곳으로 달린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포용을 한 바다
희노애락을 안고 요동치는 그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목포 오거리의 추억에서
굵은 영상자막을 만들었던
아내와의 추억

신과의 조우로
간을 맞추며 살다가
세상을 뒤로 둔채
노을에 물든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잡아본다.

가을냄새

윤 익 준

거부할 수 없네
문틈사이로 슬그머니 밀고온 가을
놀란 더위는
벌써 떠나야 하는가!

귀뚜리미가 경고음을 울리며
가을 색을 칠한다

내 마음에도 가을이 물들었다
노랗게 때론 붉게 가슴을 불태우며
설레는 내 마음
나에게도 노익장의 사랑이 묻어난다.



윤익준

- 전남 해남 출생
- 목포고 졸업
- 방통대 영문과
- 대통령 경호실
- 서울청 강남서
- 현 KT송파빌딩

시평 : 김종억(시인, 평론가)

윤익준 시인은 생명과 사랑을 주제로 한 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탐구합니다. 사랑의 기쁨, 상실의 아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독자가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게 하여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게 만듭니다.

윤익준 시인의 "마음의 근육"은 생명과 사랑의 깊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독자에게 강한 감동을 줍니다. 이 시는 생의 찬미와 사랑의 발견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시인의 "가을 냄새"는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가을의 정취와 함께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연의 변화가 개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윤익준 시인의 "노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으로, 감정의 흐름과 기억의 조화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시는 노을이라는 자연 현상을 매개로 하여, 사랑과 상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시인의 '노을'의 3연 "목포 오거리의 추억에서 굵은 영상자막을 만들었던 아내와의 추억'이라는 구절은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영상자막'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순간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아내와의 추억이 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윤익준 시인의 세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연결 짓고 있으며, 각 시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 계절, 기억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언어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하며, 이미지는 생생하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윤익준 시인의 작품이 독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입니다.

윤익준 시인의 시 등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힘차게 첫걸음을 했으니 더욱 정진하여 멋진 시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선소감

아스팔트 위 회오리 함성은 세상의 잡소리를 끌어 올려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물 위에 뿌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급변했습니다. 극적이고 시적인 찰나들이 황당함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옷을 두 겹 세 겹 입고 목도리 장갑도 했습니다.

여의도 바람도 어제와는 완연히 다릅니다.

한강도 샛강을 스치면서 잔잔히 주변을 살피며 흐릅니다.

저에게 글을 쓰게 허락해 주신 중구 문인협회 이미옥 회장님을 비롯한 고문님 그리고 부족한 저의 생각을 흔쾌히 응원해주신 평론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제부터는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침착하고 겸허하게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족함을 선배님들 조언으로 한 자 한 획을 채우렵니다.

늘 깨어있는 동지로 한배에 승선하여 망망대해를 항해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당선작

보르네오 섬의 추억 외 1편

소 재 현

1984년 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건설되는 발전소를 턴키 베이스로 수주하게 되었다. 당시 원자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해외 발전소공사에 공무 책임자로 차출되어 그 해 겨울 송년회로 거리가 떠들썩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생소한 보르네오 섬에 선발대로 부임하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 하늘을 찌르는 듯한 정글이 무성한 보르네오 섬엔 매일 한 번씩 스콜이 쏟아졌고 발전소 부지가 있는 곳은 밀림 숲 속의 바다를 낀 작은 마을이었다. 선발대는 5명으로 구성되어 현지에 도착하여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발주처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임시로 머물며 현장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렀다. 발주처는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합작회사였으며 사장부터 주요 직급은 미국인들이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매일 정글을 오가는 출퇴근을 하며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처음으로 부딪힌 외국 생활임에도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견딜 만하였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적응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었다.

2개월의 준비 작업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우리는 본사에서 파견

되는 2진을 맞게 되었고, 숙소도 새로 지은 정글 속 통나무집으로 옮겨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2진에는 한국인 요리사도 같이 와 드디어 한식을 먹게 된다는 설렘이 모두들 가득했다. 요리사는 실력 발휘도 할 겸 이것저것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중 인기가 있던 메뉴가 밀가루 부침개였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밤이 되어 취침에 든 뒤 새벽 2시경쯤 되었을까 이 방 저 방에서 배가 아프다며 난리가 났다. 놀란 우리는 환자들을 마을에 있던 보건소로 옮겨 의사의 진찰을 받으니 전부 식중독 증세였다.

우리가 저녁식사 준비에 사용한 물이 문제였다. 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밥도 짓고 요리를 했는데 그 물은 전혀 여과나 위생처리가 안된 강물이었다. 강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가정에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지에 사는 미국인들은 모두 생수를 별도로 구입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인들도 필터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던 우리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접할 수 없었기에 발생한 사고였다.

그 후 비가 심하게 오는 날에는 강물이 혼탁 해져서 수도 파이프에서는 세수도 할 수 없는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가난한 현지인들은 집 처마 밑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빗물을 모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글 지대여서 빗물은 오염되지 않은 비교적 깨끗한 물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접한 그 후부터는 모든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오랑우탄을 친구삼아 정글의 오솔길을 걸어 출퇴근할 때면 가끔 도로를 횡단하는 2m 길이의 뱀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잠자리에 들

려고 침대에 누워 툭하면 천정에서 떨어지는 도마뱀을 친구로 맞으며 현지 생활에 적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 우리는 밀림에서 벌목하는 목재를 잘라 합판을 만드는 합판공장과 제재소에서 나무를 절단할 때 3분에 한 트럭 분량씩 나오는 톱밥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맡아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무더운 나라라 톱밥을 활용할 데가 없어 마을 인근 바닷가에서 매일 태워 없애느라 소각 연기가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었으며 태운 뒤 남는 재를 처리하는 것도 골칫덩이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소형 디젤 발전기는 노후화로 인해 툭하면 고장이 발생하여 주 정부는 전력 공급에도 여간 애로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설하는 합판공장과 발전소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대안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우리 한국인들을 구세주로 알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우리는 본사에서 보내주는 현장 운영비를 1시간 거리의 읍내에 있는 은행에서 인출하여 생필품도 사고 직원들에게 현지 수당도 지급하곤 했다. 그 날도 나는 경리 직원을 대동하고 돈을 찾아 현장에 복귀했는데 우리가 은행을 나온 지 30분이 지난 후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해적들이 소총으로 무장한 채 은행을 습격하여 우리에게 돈을 내주던 은행원을 사살하고 돈을 강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보르네오 섬은 해안 경비가 소홀한 관계로 인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인들이 해안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하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범죄

전과자 등 반정부 주민들이 거주하며 보트를 이용하여 해적 행위를 하여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

현장에서는 숙소 내에 소등을 지시하고 외부 출입을 봉쇄했다. 간발의 차이로 해적들과의 사고를 피했던 나는 안도의 한숨을 들이 마시며 생사의 갈림길이 언제나 근접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해적의 출현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8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직접 해외에 파견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인 근로자는 임금이 높아 해외현장에 한국인 근로자 동원은 거의 없다. 대부분 TCN(Third Country Nationality, 삼국인)으로 불리는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등 인력이 풍부하고 노임이 싼 사람들을 동원해 일을 한다. 당시에는 과도기여서 우리나라 하청업체에서 일부 베테랑 숙련공들을 동원하였고 한국인 근로자 1명에 필리핀 보조 작업자를 3명씩 붙여 허드렛일을 돕게 했다. 자재를 이동하는 작업, 공구를 옮기는 작업, 청소 등 단순 보조 작업이 많아 우리 근로자들과 삼국인 작업자들은 대부분 잘 융합하며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어가 약했던 우리 근로자가 삼국인에게 작업 지시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말로 '새끼야'를 끝에 붙였던 게 화근이었다. "저기 있는 파이프 이쪽으로 가져와, 새끼야!"식으로 몸짓으로 지시하며 아무 감정 없이 내 뱉는 우리 근로자의 고함이 삼국인 작업자를 자극했고 '새끼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본 삼국인이 그 말이 좋지 않은 욕이라는 걸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우리 근로자의 뒷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우리 근로자는 병원으로 후송 입원 조치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사고를 낸 그 친구는 파출소에 가서 당당하게 주장했다. 한국인이 자기를 모독하였기에 알라신의 이름으로 혼을 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무슬림이었다. 경찰은 그를 마을에서 추방하고 현장 접근을 불허했다. 우리는 현장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못 알아들을 거라는 예단 속에 함부로 내뱉는 나쁜 말들은 반드시 화근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옴을 일깨워주었다.

요즘에는 터빈 발전기 등 중량물을 설치하기 위해 재킹타워(Jacking Tower)라는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 우리나름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다. 파이프를 지면에 깔아 그 위에 중량물을 올려 파이프를 굴리면서 중량물을 설치장소까지 이동시켜 H형강으로 제작된 문형 구조물에 체인블럭을 걸어 중량물을 들어 올려 설치했다. 이 광경을 본 발주처의 미국인 건설부장이 감격하여 자기가 40년 동안 건설현장 에서 일을 했는데 터빈을 이러한 원시적인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극찬의 공문을 보내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발한 공법에 감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작업자들의 고소작업은 능란하여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발주처 감독관들의 탄성을 자아내곤 했다.

전화도 발주처 사장실에 딱 한 대가 설치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착공한지 1년만에 우리는 발전소를 성공리에 완공하여 발주처에 인도하고 보르네오 섬에서 철수하였고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의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이국땅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계

약된 납기 내에 발주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해외 건설 현장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사와 나라의 명예를 지킨다는 신념아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보다 더 강한 성취감은 없다.

오래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기억이 소환될 때마다 새로운 활력이 솟아오른다.

웃음 짓는 이야기

소 재 현

우리 집은 신사동 옆에 있어 신사동에 있는 먹자골목을 가끔 들리곤 한다. 그 중 하나가 '신사골 감자탕' 집이다. '신사동을 아마 예전에는 신사골이라 했었나 보다, 그리고 감자를 넣고 끓이니 감자탕이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집을 들락거렸다. 아마도 이 식당이 개업한 후 몇 년을 그렇게 알고 다녔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 어느 곳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방문한 건물 1층에 같은 상호의 식당이 있기에 반갑기도 하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부에 그 집 상호의 맨 앞 글자가 한자로 쓰여 있었다.

'辛사골 감자탕' – 알아보니 내가 알고 있던 신사골은 '매운 사골국물' 을 뜻하며 신사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감자탕은 감자를 넣어 끓인 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돼지 등뼈를 끓인 탕이었다. 종합하면 신사골 감자탕은 매운 사골국물에 끓인 돼지 등뼈탕이었다. 감자는 우리가 아는 POTATO가 아니고 돼지 등뼈를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난해하고 심오한(?) 식당 이름이었다.

또 한 가지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다. 고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뽕~"하고 방구를 소리 내어 분출했다. 조용하던 교실이 킥킥대는 웃음소리로 술렁였다.

수업 중이시던 생물 선생님이 방구와 방귀의 차이점을 꺼내 들었다. 방구는 자연적인 생리작용으로서 탓할 수 없으며 방구를 뀌면 나쁜 생각도 같이 날아간다고 하시며 맹장수술 후 나오는 방구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증거로 모두가 기다리는 방구여서 귀할 귀(貴)자를 써서 방귀라고 한다는 즉석 강론을 펼치시며 분위기를 수습하셨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우리 문법은 방귀가 표준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구라는 말은 사투리였다.

언젠가 회사에서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책임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아무리 필요한 시설도 내 집 앞엔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심해 인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공사 추진을 방해하였다. 그 때 주민들이 모여 부르짖던 얘기 중 이런 말이 생각난다.

"옛 우리 조상들은 바람 길에서는 방구도 안 뀌는 게 예의였는데 마을 입구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분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였다.

최첨단 공해방지설비를 완벽하게 갖춘 이 소각시설은 공사 초기 주민들과 분쟁은 있었지만 잘 건설되어 이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반값 난방비, 주민편의시설 무료이용 등 여러가지 혜택을 입으면서 당시의 반대구호가 과다한 우려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심야에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되던 '밤을 잊은 그대에게'였는지 아니면 '별이 빛나는 밤에'였는지 하는 음악 프로였

는데 당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한 청취자가 보낸 방구에 관한 시를 진행자(DJ)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읽어 내려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위장이 거북하여 / 항문을 개방하니 / 이를 탓하는 자 / 개만도 못하니라."



소재현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HD현대중공업 임원
- HD현대중공업 알코바법인장
- 한사우디 친선협회, 삼공교역 고문
- 저서 : 『아랍문화엿보기』(도서출판 상신)
  『사우디를 통해 보는 아랍문화』(해외건설협회)

수필평 : 이두백(수필가, 시인)

수필은 인생항로를 가장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재현씨가 제출한 수필 중에 〈보르네오섬의 추억〉 작품이 본인의 인생행로의 한 단편을 매우 서정적으로 또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 정부의 수출 주도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했던 보르네오섬에서의 일화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정부정책과 몸담은 회사의 수익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이 어떻게 세계인이 되어가고 세계를 상대로 국제경쟁력을 길러왔는가, 그래서 오늘의 결실과 위상을 누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재현씨의 다른 작품 〈완장〉에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주어지는 단속과 규제가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잔재, 더 나아가 6.25사변 때 아픈 상흔을 남긴 완장까지 연상케 하면서 순화의 필요를 일깨워준다. 45년 전의 계엄 상황이 되살아나고 대통령 탄핵까지 촉발되는 올해엔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웃음 짓는 이야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주변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해학을 찾는 대단한 관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소재현씨의 세 작품들 모두 좋지만 글 호흡이 길어 지속 발전이 기대되는 수필 〈보르네오섬의 추억〉을 중구문학 15호 신인문학상 수필 당선작으로 뽑는다.

꾸준히 다양한 작품 생산 활동들을 펼쳐 문단의 별이 되길 기대한다.

당선소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느려지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안전하고 잊은 것 없이 잘 챙겨 행동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가진 것도, 머릿속에 든 것도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가슴 속은 공허한 상태다.

고달픈 세상살이를 하며 겪어 본 이런저런 경험만이 확실한 자산이다. 켜켜이 쌓아 온 그 자산이 나의 글쓰기 소재다. 시간이 날 때마다 끼적이며 나도 작가인양 행세를 해 온 것 같다.

글은 읽는 사람이 재미를 느껴야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학성 보다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앞세워 왔다.

깊이와 전문적 지식의 강도가 덜 채워졌을 것이라고 본다.

글쓰기는 참 어렵지만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고 읽는 사람과 교차하는 생각 속에서 가끔은 다른 의견도 만나지만, 공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

전문 작가들의 글을 읽으며 잘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을 도입하여 구성하는 것을 보고 감탄과 희열을 느낀 적도 많다.

재능 중에서 으뜸 재능은 노력이라고 한다.

나도 등단의 기쁨을 노력으로 보답하려 한다.

자꾸 쓰다 보면 서툰 글도 모서리가 매끈하게 다듬어져 윤슬처럼 반짝이는 글이 되지 않겠나!

느지막 등단이라…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특집기획 1

청계천의 추억

김 호 운
– 거랑'과 '하천'

김 민 정
– 청계(淸溪), 다시 흐르다

김 성 희
– '서울빛초롱축제'를 찾아

김 종 억
– 청계천 가던 날의 추억

김 화 인
– 청계천의 추억

이 두 백
– 대도심의 심적 압증을 씻어내던 청계천 길

이 현 주
– 청계천 나들이

‘거랑’과 ‘하천’

– 청계천 소고(小考)

김 호 운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우리 고향에서는 개울을 ‘거랑’이라고 한다. 하천(河川)을 일컫는 사투리다. 대개 어린 시절에 하천에서 놀던 추억이 오래 남아 가끔 이때의 이야기를 소환하게 된다. 여름에는 동무들과 미역을 감고 천변에서 개구리잡이 하면서 놀고, 겨울이 되면 앉은뱅이 스케이트를 만들어 손발이 어는 것도 모르고 즐겁게 타고 놀았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삶과 역사가 주로 흐르는 물이 있는 하천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변화와 움직이는 시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사이를 흐르던 10.84km의 짧은 하천이다. 이 작은 하천 역시 서울을 수도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 추억을 만들어냈다. 연암 박지원의 저술에도 가끔 청계천이 등장한다. 청계천변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른들의 빨래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일화는 자료에서 읽은 것이며, 시골에 살던 나에게는 청계천에 관해 직접 체험한 추억이 없다. ‘아시 거랑’이라 부르던 우리 고향 의성 읍내를 흐르는 조그마한 아사소 하천 정도였을 거라 추측해 볼 뿐이다.

1968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서울 구경했다. 졸업을 앞두고 대한준설공사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온 것이다. 청량리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야 대한준설공사가 있는지 알지 못해 물어물어 찾아갔다. 버스나 택시를 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버스노선도 알

지 못했지만,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던 습관으로 그렇게 걸었다. 마치 짚신 신고 괴나리 봇짐을 둘러메고 한양에 처음 온 조선시대 한 시골 떠거머리쯤 된 형국이었다. 사람들에게 물어도 대부분 대한준설공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고사하고 뭣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서울역 근처 어디라는 주소만 들고, 무조건 서울역을 향해 물어서 걸었다. 성동역인가, 당시 서울에 막 전차가 철거되고 이 근처 일부 구간이 남아 운행되고 있었다. 처음으로 전차를 보았다. 계속 걷다 보니 도로에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도로 위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겐 이게 무척 신기했다. 꽤 오래 서서 그 모습을 구경했다. 마치 하늘에 길을 내는 듯 신기해 보였다. 이게 바로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삼일고가도로를 건설하던 거였다.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엄청 먼 거리였는데, 그렇게 거리 구경을 하며 걸었다. 이게 내가 처음 본 청계천 모습이다.

그 뒤 용산에 있던 국립철도대학에 다니면서 잠시 서울 사람이 되었다. 당시에는 주로 종로서적에 드나들며 책을 샀는데, 신간 서적이 좀 비싸다 싶으면 책 정보만 종로서적에서 얻고는 청계천 헌책방으로 와서 그 책을 뒤져서 사고는 했다. 당시 청계천에는 헌책방이 줄지어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했다. 청계천 헌책방은 책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헌책을 사기도 해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한데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희귀한 책들도 참 많아서 헌책방을 순례하며 책 구경하는 청계천 문화에 익숙해져 갔다. 근처 황학동에는 만물상회가 줄지어 있기도 해서 이곳까지 한바퀴 돌고 나면 내겐 훌륭한 서울 관광이 되었다.

서울을 미처 알기도 전에 철도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을 떠나 지방

에서 한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1978년『월간문학』신인작품상에 당선하면서 소설가가 되어 다시 서울에 왔다. 당시 소설가 김주영 선생이 서울신문에 대하장편소설「객주」를 연재할 때다. 김주영 선생은 당시 내가 아는 유일한 소설가였으며, 안동간호전문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이동순 시인과 어찌어찌 인연이 닿아 함께 청송군 진보에 있던 김주영 선생 생가에서 하룻밤 함께 지낸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다. 이 추억의 인연을 붙잡고 서울 이문동에 살고 있던 김주영 선생 댁을 방문했다. 마침 김주영 선생은 밤새 썼을 객주 원고를 연재하던 서울신문사에 가져다주러 가려던 참이었다. 당시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서 원고를 직접 신문사나 잡지사에 가져다주어야 했다. 김주영 선생 댁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한 뒤,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신문사가 있던 광교 쪽으로 갔다. 이때 택시가 청계천 위에 건설한 삼일고가도로를 달렸다. 나는 공중에 붕 떠서 달리는 듯한 택시를 타고 주변 빌딩들을 둘러보느라 김주영 선생과의 대화가 순간순간 끊기고는 했다.

이제 서울의 명물이었던 삼일고가도로가 없어졌다. 제 할 구실을 다하고 도시 교통에 방해가 되어 헐렸다. 그 자리에 없어진 청계천을 다시 인공으로 만들고 물을 끌어와 훌륭한 도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내겐 좀 낯선 체험이기는 하지만, 도심을 흐르던 하천 하나가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상일이 이렇게 순환하며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 낯섦을 보았다. 이 청계천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청계천변을 걸어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 분이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다.

청계(淸溪), 다시 흐르다

김 민 정

시조시인 ·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신선한 새벽종소리 청계 타고 흐르면
생명의 노래처럼 파아랗게 숨 쉬는 물
막혔던 서울심장부 동맥 하나 트이고

북악 인왕 두 산자락 적시며 흐르던 물
광통교와 수표교 등 옛이름도 찾아주며
그 푸른 날들의 기억 다시 살아 흐르네

바깥 물은 한강이요 안의 물은 청계라는
사대문 안 풍수지리 다시 한번 일깨우며
전설로 묻히던 이름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다시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 앞에
지즐대며 돌아오는 그대 밝은 목소리여
바람도 축복 한 아름 그대 앞에 부려주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대 맑은 청계눈빛
반짝반짝 윤이나는 자태 고운 모습으로
부활의 눈부신 아침 싱그럽게 피어나고

한 폭의 수채화 속 친환경의 물줄기엔
물고기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남산골 선비정신도 파득파득 살아나네

버드나무 늘어지고 길가에도 꽃이 피면
아낙들의 하얀 정담 서리서리 감겨있을
추억의 청계 빨래터 푸른 물길 너울지고

너와 나의 그리움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함께 어우러질 만남의 장 청계마당
세월교 야경 속에서 꿈과 사랑 익어가네

성북천과 합류하는 정에 겨운 두물다리
부드러운 마음들을 서로 모아 화합하며
새로운 꿈을 펼쳐갈 아름다운 나래교여

천만 시민 가슴 속에 밝은 꿈을 심어주며
근심 걱정 맑게맑게 씻어가 줄 고운 청계
영원히 아름다울 서울, 그 중심을 흐르네

‘서울빛초롱축제’를 찾아

김 성 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서울의 겨울밤은 빛으로 가득하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서울빛초롱축제’가 청계천 물줄기를 따라 다채롭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12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서울빛초롱축제’는 ‘서울, 빛을 놀이하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며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총 4개의 테마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도 환상적인 빛의 여정으로 추운 도심 속 겨울을 화려하게 수놓아 줄 것이다.

서울의 도심을 가르며 흐르는 청계천을 지나다 보면 가족 단위나 연인, 친구,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 그해도 ‘서울빛초롱축제’는 아름다운 등불들로 많은 사람에게 빛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다. 퇴근 후 친구와 함께 미루어 오던 청계천 ‘서울빛초롱축제’를 찾았다. 2019년 ‘서울빛초롱축제’는 동화라는 주제로 4개의 테마파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동화를 주제로 한 ‘서울빛초롱축제’를 알려주는 마스코트인 어린 왕자 등불을 비롯하여 알라딘과 요술램프, 해님달님 전래 동화와 사람 띠를 나타내는 동물이 알록달록 오색 한복을 입고 개천물 가운데에서 빛을 더하고 다양한 네온사인도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나는 별처럼 너는 달처럼 같은 예쁜 유리 네온사인 전광판 앞에는 연인들이 사진을 찍느라 줄을 서 있었다 우리도 한 컷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 '서울, 옛시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구간과 서울의 명소들과 세계의 다양한 관광명소들을 아름다운 불빛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청계천 밤의 축제가 무르익어가고 수많은 인파에 휩쓸리며 볼거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개천 위로 작은 배를 띄우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원을 종이배에 적어서 청계천에 띄워 보내는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어 5,000원 거금을 내고 작은 배를 구입하여 소원을 적어서 청계천 한가운데 이쁜 배를 띄워 보았다 다행히 중간에 걸리지 않고 잘 흘러갔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족의 건강과 이웃, 내 삶의 무언가를 적었던 것 같다.

청계천은 구석구석 볼거리들이 많이 있다. 조선시대 도성 안 첫돌다리라고 하는 광통교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는 시위운동을 기념하는 삼일교, 빨래하던 아낙들의 터였던 수표교에 앉아 시집이라도 읽고 있노라면 흐르는 냇물과 한가로이 만나는 바람에 마음도 좁은 도랑 물살을 따라 그냥 흘러갈 것만 같다 구경거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먹거리로 광장시장 빈대떡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이다 구경으로 지친 다리도 쉴 겸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러 가며 내내 청계천의 불빛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서울빛초롱축제'의 아름다운 등불과 빛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전달해 주길 바라며 우리는 동화의 세계 빛이 소등되어 사라지기 전에 청계천을 빠져나왔다.

'서울빛초롱축제'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

원하는 서울의 대표 축제로 매년 다른 주제로 청계천광장과 주변 일대에서 진행된다. 아름답게 꾸며진 화려한 등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은 가는 한 해를 보낼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

청계천이 처음부터 지금의 자연 친화적인 쉼터의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 인공 개천으로 형성되어 서울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1960년대 위생문제와 도로확충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차원에서 복개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복개된 청계천은 산업화와 근대화 역사에서 나름의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21세기 환경과 문화의 시대적 변천과 청계천 주변 건물들의 노후화와 강남과 강북지역 간의 경제 · 문화적 불균형, 환경파괴적 도시관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결정하여, 훼손된 서울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고, 인간 · 자연 · 문화가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계천 복원사업에 착수하였다.

2003년 당시 청계고가는 30년이 넘은 노후된 곳이었고 붕괴 위험도 상당히 높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의 청계천 모습이 형성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고가를 허물고 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내의 녹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었다는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역사와 문화의 복원이자 생명 복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청계천은 2005년 10월 1일 완공 개장하였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도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울시에 많은 경쟁력을 안겨주었다.

현재 청계천은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를 넘어 각종 구경거리나 축제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하천 청계천은 도심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공간 등을 위해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그러나 생태적 다양성의 부족,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문제 등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인터넷 기사 내용 참조함)

당시 청계고가에서 영업 중이던 노점상과 상인들은 2003년 7월 부로 동대문운동장 주경기장으로 옮겼고 이어 주경기장도 안전 문제로 폐쇄된 후 그 자리를 청계천 상인들에게 주고 풍물시장으로 개장했다.

2005년 서울시 성북구에 개관한 청계천박물관은 청계천 물길을 상징하는 긴 유리형태의 건물 전경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실 등 복합문화 공간을 갖추고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청계천박물관에서 청계천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청계천은 2009년부터 '서울빛초롱축제'를 개최하여 도심 속 자연과 등불의 아름다움을 선사해왔다. 올해로 16주년을 맞은 '서울빛초롱축제'는 체험형 전시와 다양한 부문의 전문 작가 참여를 바탕으로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2024 '서울빛초롱축제'는 '소울 랜턴: 서울, 빛을 놀이하다'라는 주제로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관람객 참여형 축제로 진행되며 전통과 현대의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구성하여. 현대의 놀이를 여행, 게임, 영화, 캐릭터 등으로 구성해 '놀이'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대를 잇는 축제로 청계천 천변 위에서 펼쳐졌던 전시에서 올해는 청계천 교각 등을 활용하여 산책로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

각적 연출이 펼쳐진다.

2024 '서울빛초롱축제'는 조선시대 유일한 이동식 무대인 산대와 어가행렬 등을 빛으로 다양한 연희의 모습을 구현한 어가행렬이 관람 포인트다.

다양한 전통놀이 등(燈)을 통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과거와 현대의 놀이를 '빛'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일상 속 기쁨을 빛으로 만나는 한지 등과 LED 아트로 구성된 '어사화'와 '족두리'는 전체 높이 15m로 청계천 위에서도 보이는 공중 전시로 많은 시민이 그 화려함을 즐길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여 각 시즌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일상의 기쁨을 표현한 한지 등과 LED 아트 작품이 보석처럼 빛나고 어두운 도심의 밤을 수놓은 아름다운 빛들은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별이 되었다.

4개의 구간별로 다르게 꾸며진 영역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걷다 보면 작품 속 주인공과 친구가 되어 함께 걷는 듯하다. 빛의 은은한 색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된 모습들은 감상하는 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님은 "2024 서울빛초롱축제는 관람형 전시를 넘어 서울의 겨울을 빛으로 물들여 국내외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추운 겨울 마음은 빛으로 데워 따뜻하게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서울빛초롱축제'를 찾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청계천 가던 날의 추억

김 종 억

자전거를 탄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서울 송파 잠실 일대 곳곳엔 내 자전거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별로 없는 듯하다. 차로는 갈 수 없는 곳곳을 자전거로 골목골목을 누볐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 지름길이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하여 어디를 가든지 머릿속엔 거미줄 같은 자전거 지름길 가상의 지도가 그려진다.

이렇듯, 자전거를 타고 가본 곳이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경기도 하남에 있는 검단산 2회 종주, 남한산성, 청계산, 대모산과 구룡산, 아차산, 그리고 한강 팔당으로부터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거쳐 방화대교까지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특히 요즘에는 야간 자전거 타기에 흥미를 붙여 밤 9시가 가까운 시간에 탄천으로 나오기 일쑤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야간 자전거 타기가 여간 흥미롭지가 않다.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성남 쪽을 향해서 페달을 밟다 보면 희미한 가로등 불 따라 펼쳐지는 시골스러운 풍경이 내 마음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주곤 한다.

특히, K-16 비행장의 불빛이 탄천의 강물에 길게 비추어 한 폭의 그림이다.

조금씩 욕심이 생긴다. 물론, 단기적 계획으로는 강화도까지의 종주이다.

그 이전에, 서울 강북을 밟아 보고 싶다는 충동에 무작정 자전거를 끌고 잠실대교를 넘었는데, 서울 강변 북로 옆으로 길게 이어진 자전거 도로는 지금까지 강남 쪽 한강 자전거 도로를 탈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오기를 잘했다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강변북로 자전거 도로는 강남과 비교하면 한강 수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자전거를 타면서 지속해서 한강의 여유로움을 관망할 수 있어 좋다. 평화롭게 떠가는 한강 유람선은 물론이고 뚝섬 시민공원 앞쪽에서는 순풍에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쪽배, 그러니까 윈드서핑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바다도 아닌데, 웬 갈매기가 떼 지어 날아드는가!

잘 꾸며진 뚝섬 시민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을 먹고는 다시 달리다 보니 서울 숲이 나타난다. 서울의 숲은 예전에 뚝섬 경마장 자리에 시민의 숲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서울 숲은 돌아올 때, 둘러볼 요량으로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니 드디어 청계천으로 접어들었다.
잘 꾸며진 청계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가니 마장동 입구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부터는 자전거 통제! 그래서 자전거를 묶어 놓고 도심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청계천〉

청계천은 서울 사대문 안의 물이 여기에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밖 살곶이다리(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군자 차량사업소 사이)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져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진다. 발원지는 인왕산 수성동계곡을 지나는 옥류동천이라는 설과 자하문 부근 백운동천이라는 설이 있다. 수성동계곡 안내판에 청계천 발원지라는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정설로 공식 확인된 바는 아니다. 자연 하천과 인공 하천이 혼합된 형태의 하천으로서 2005년 10월 1일 공식적으로 개장하였다. 옥류동천은 70년대에는 항시 물이 흘렀으며, 90년대까지도 갈수기 외엔 물이 흘렀지만 2019년 현재 발원지 추정 두 개울은 모두 건천으로서 장마 때만 잠시 물이 흐른다. 〈나무위키에서〉

1950년 청계천을 덮는 복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울 개발의 상징이었던 청계 고가도로를 1977년에 건설한다. 그러나 30년 뒤 구조적 안전문제로 청계고가 도로 철거를 결정한다. 청계천을 덮으면서 콘크리트 아래 역사의 흔적들이 모두 묻혀버렸고 청계고가는 무너질 위험까지 발생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것이었다. 2000년에 서울시는 최초로 도심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990년대부터 이어오던 개발 중심의 잘못된 도시 정책을 바꾸기 위해 서울의 자연과 역사를 보전하는 도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를 앞둔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 기공식을 한다. 2년 3개월만인 2005년 10월 청계천은 복원이 된다.

청계천의 맑은 물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걷어낸 후에 도심의 온도를 2~3도 정도 떨어뜨렸다고 한다.

청계천 시작지점에서 광화문 끝까지 걷는 길이는 약 5.5㎞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면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중간에 방산시장에 들러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녹두 빈대떡으로 간단한 요기를 하고는 다시 길을 재촉한다.

드디어 힘차게 하늘을 향해 치솟는 분수가 시원한 종점에 다다랐다.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는 무교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갔다. 무교동 낙지가 일품이라고 하질 않던가!

대접에 냉수까지 떠다 놓고 입을 호호 불어가며, 무교동 낙지볶음으로 저녁을 먹고는 다시 야간 청계천을 구경하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온다. 휘황한 네온과 어우러진 청계천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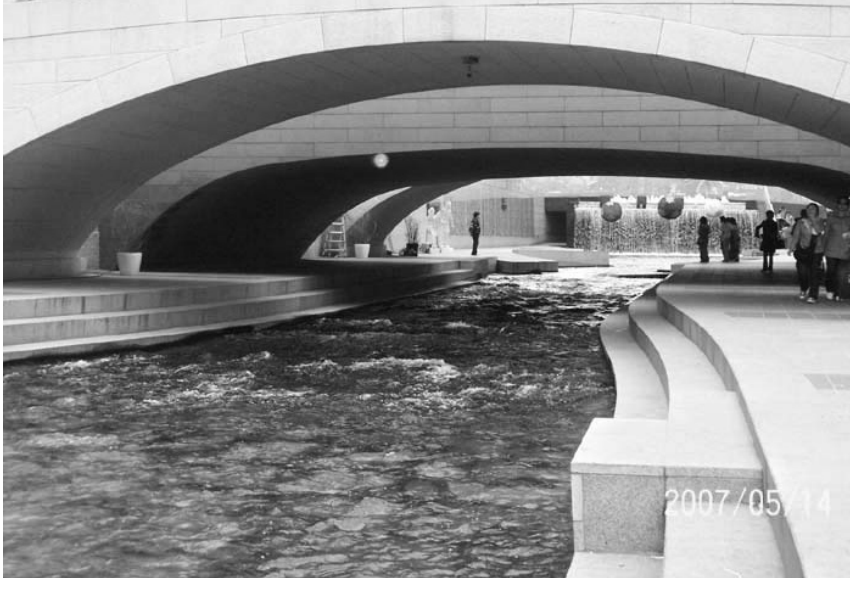
젊은 연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앞세운 가족들이, 그리고 향수에 젖어 청계천 변을 거닐어 보는 노인들까지도 그곳을 거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인다. 소곤거리는 연인들은 아예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사랑을 키워가고 있나 보다. 잃어버렸던 청계천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사실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게 청계천 종주(마장동 시작지점~세종로까지 왕복)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자전거 보관장소로 되돌아왔다. 자전거 묶어 둔 곳까지 이동해서 희끄무레한 어둠이 내려온 한강 자전거 도로를 타고 돌아오는 몸엔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솜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잠을 청하니, 아! 아늑한 나의 보금자리여!

언젠가는 강화도를 반드시 종주하리라!



청계천의 추억

김 화 인

청계천은 우리나라의 심장이요 젖줄이다. 그래서 70~80년을 서울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의 사연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의 경우는 1975년에 상경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였다. 답십리는 마장동 주변이라 쉬는 날이면 마장동 주변인 청계천 뚝을 걸어 다녔다.

그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를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짜장면을 1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다른 기술을 배워 성공하기 위해 답십리를 떠나 시계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업소에 점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시계부속품을 사거나 부속품을 수리해주는 청계천4가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놓게 되었다. 그때는 세운상가에서 시계부속품을 거의 수리하고 재생을 했기에



자주 찾아 갔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시계를 만든 회사가 몇 곳이 있었다. 그러나 시계값이 비싸서 시계를 하나 사고 싶어도 살기가 어려웠다. 청계천에서 중고 시계인 '세이코' 시계를 처음으로 손목에 찼었는데, 당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었다. 그 후에도 인쇄소에 취직이 되어 청계천 길을 자주 걸어 다녔다.

청계천 하면 고가도로가 유난히 사연을 많이 남길 것 같다. 당시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을지로에서 사업을 하는 나는 청계천 고가도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마장동에서 동아일보 앞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내를 들어오는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느낀 감정이 많이 있었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시절에 공약사업으로 시장에 당선되면서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방면에서 찬반의 논리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철거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내를 들어오는 지름길



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은 시내를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에 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찬성 하는 쪽은 청계천의 미관을 바르게 정리해야 하기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자는 찬성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났다.

나는 그때 철거하기 며칠 전 고가도로를 달리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콧노래

를 부르면서 달렸던 일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청계천 고가도로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사라지고 주변의 상권이 다시살아나 거리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문구는 '고가도로를 철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당시 외국인은 청계천을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청계천 다리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위험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사연도 많은 삶의 터전이었던 청계천이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우리 서울 시민에게 산책의 공간으로 재탄생이 되어 그 영향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지금 가끔 벗들과 청계천을 구경하면서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추억의 그림자를 그려보기도 한다.

요즘 청계천은 아주 많이 변했다. 그러나 옛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할 때 지하에 살고 있었던 쥐가 흩어지면서 서울시를 뒤덮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 쥐가 사라졌다는 것은 서울 중심지가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청계천에서 등불축제를 하기에 다녀왔는데, 새로운 청계천 모습을 보면서 옛날 청계천을 걸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이 새롭다는 실감이 난다.

대도심의 심적 압증을 씻어내던 청계천 길

이 두 백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바로 앞에서 약 5년 생활하던 때는 호기심으로 간간이 변화된 청계천 일대를 돌아보곤 했다. 이때는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때라 주상복합아파트에 살았어도 주말에만 아파트의 답답한 구조와 번잡한 주변 환경들로 인한 심적 부담을 조금 느꼈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에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주중에도 오랜 시간 기거하게 되면서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 구조상의 압증을 매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첫째는 양쪽 창문을 열어 바람이 시원하게 내닫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문제였다.

둘째는 승강기가 여러 대 있고 속도가 빨라도 땅에서 먼 18층을 매일 오르내려 다니는 것은 번잡한 일이었다. 살던 곳이 지하철 신당역 2번 출구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소위 역세권이었는데, 지방 널찍한 곳에서 자유롭게 오래 생활하던 습관이 배여 있던 때라 평온한 일상생활마저 긴장된 외지에서 시작하는 듯 했다. 아파트단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매일 늘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쳐 긴장을 해야 했다. 바로 앞이나 옆 큰 폭의 도로는 늘 모르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고 소음들과 먼지들과 신호등 대기시간들과 늘 함께 하곤 했다.

매일 발이 부딪치고 스치는 옷깃을 피해야 하는 불유쾌함과 긴장상태도 이어져 일상생활이 평온하지 않음은 물론 소위 내 공간과 내 시간들이 점점 줄어져가는 느낌마저 들곤 했다. 그런 생활 중에 아

침 일찍 일어나 집사람과 청계천 산책길들을 걷곤 했는데 걷는 약 2시간 중, 점점 좁아지고 줄어드는 내 시간과 공간을 되찾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걷는 길에서는 막히고 답답한 일상이 뚫리는 기분이 들었고 넓은 공간과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는 길에서는 움츠러진 가슴이 펴이는 듯 했다. 그렇게 청계천길을 걷다보니 60년대 말에 서울에 올라와 청계천 근방에서 생활을 개척해 온 초등학교 동기동창생 친구를 반갑게 만나기도 했다.

청계천 일대에서 50여년 살아온 친구의 일대기가 흥미로워 중앙시장을 끼고 이어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도 같이 걸어보고 오래 일궈온 사업장에 가서 생활을 버티게 해준 소담스런 기기장비들도 돌아보니 청계천의 숨은 역사가 다채로워지는 듯 했다.

더러 글 쓰는 몇 선후배 문우들과 어울리는 경우엔 환담에 곁들여 주고받는 막걸리 잔들로 기분 좋게 취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럴 경우엔 청계천 산책길을 가곤 했는데 환담과 산책이 길게 이어져 신당동에서 청계천 한 끝인 광화문광장 쪽 동아일보사옥까지 주유천하하곤 했다.



청계천 나들이

이 현 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구에 물줄기 청계천이 있다.

탁 트인 공간에 눈에 띄게 와닿는 것이 가족과 연인 또는 학생 등 쉼 놀이터에 제2의 이봉주가 된 것처럼 숨결을 고르며 최고의 자신감을 얻으려는 마라톤 연습생도 있다.

나 역시 마라토너라고 말할 수 있다.

겨우 풀코스 42.195km 2회지만, 21.0975km의 10km는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서 현재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뜸한 것을 코로나 끝나고부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제주도 감귤 마라톤 10km 참여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을 보면 설렘이다

형산강 줄기에서 멱감던 곳에 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필자를 징검다리 위에 선 바람에 머릿결이 나부낀다.

광화문과 시청 사이에 길게 늘어진 청계천 물줄기는 기찻길처럼 뻗어있어서 외국인이 바라볼 때 여유로움이 있는 서울 도심으로 여길 것이다

초등생이 부모님 손에 의해 하나둘 깡충깡충 넘어가며 복스럽게 생긴 나비도 한 발 두 발 징검다리 넘는 모습은 갈색과 검정 옷을 두르고 새끼 가진 어미의 모습으로 바람 따라 바람아 바람아 부르며



우거진 풀잎 사이로 짝을 찾아가는 것 같은 고양이의 삶 일부분도 보았다.

의자에 앉은 나를 바람과 소통하는 숨어 우는 바람 소리 노래를 부르게 하며 노부부의 손 잡은 모습이 행복을 주어 감사의 표현을 눈웃음으로 묵례를 하였다.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청소년에게 배우고 청년들에게 배우면서 지내 온 세월, 부모가 된 지금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손잡은 노부부가 걷는 인생 선배들의 중후한 겸손을 닮아가고 있는가?

숲 진 물줄기 바라보니 회한의 시간이 찾아든다. 좀 더 잘 살 수 없었나? 좀 더 잘해줄 수 없었나?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으로 바람의 눈물이 되어 또다시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만남이 주는 여행이 따로 있나? 이곳 청계천은 기다리는 미학으로 순간을

살피며 최소한 나를 속이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좋다.

뚜벅이처럼 걸어가는 세월 속에 바람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지! 좋은 인성 갖추는 배려의 날은 람바다 춤을 출 수 있을 노래답게 즐거운 가치를 논의하면 갑진년 마지막 장식이 아니런가?

한민족 대한민국 글쟁이로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연습하는 시론으로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작품 등을 보며 강단 위에 서서 강의하는 느낌처럼 별처럼 두드러지는 것을 가끔씩 꺼내 보련다.

모처럼 나온 청계천에서 떠오른 생각은 시 한 편을 어머니께 올리는 노래 만드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수를 통해 맑은 누리되게 사색의 청계천은 말하고 있다. 숨과 쉼의 통로라고….



특집기획 2

숲속의 하모니

김호운 강정화 박영하 고응남 길숙경
김권곤 김나현 김봉술 김상실 김성희
김용채 김정자 김종억 김채선 김화인
류성춘 민선영 박광현 배건해 성낙범
신영미 안재헌 안주일 안준영 오정선
오지숙 유긍모 이건용 이경희 이덕희
이동구 이두백 이명순 이미옥 이정선
이정연 장윤숙 정동윤 정은정 정은희
최성용 하성호 황용운 황종택

서울중구문인협회
남산자락 숲길「길 위의 하모니」시화전

– 중구문인협회 시화전은 남산자락숲길에서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의 장을 열었다. 중구문화원(원장 남월진)이 중구문인협회(회장 이미옥)와 남산자락숲길에서 열리는 시화전「길 위의 하모니」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산자락숲길에 시화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남산과 인접한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숲길을 걷고 시화를 나누며 일상에서 문학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구문인협회는 중구문학을 발간하고 지난해「한양도성에 시를 얹다」를 비롯해 다양한 시화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협회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을 주민들에게 선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앞으로도 중구에 더 많은 문학적 성과와 이야기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9.12.07:45 중구신문)

서울중구문인협회
남산자락 숲길 시화전 오픈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장 이미옥은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30분에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님을 모시고 김화인 고문님의 사회로 남산자락 〈숲속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시화전을 오픈했다.

남산자락 숲속 간판이 보이는 5번 버스 종점에서 일단 모여서 몸을 푼 후 숲속 둘레길에 들어섰다. 얼마쯤 올라가다 보면 포토존이 있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기에는 최고 포지션이었다.

포토존에서 잠시 쉬어가며 개별 사진 촬영을 즐기며 오늘의 시화전을 맞음에 기쁜 마음이었다. 시화전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나 궁금했다. 김화인 고문은 유긍모 부회장과 회원 몇 분이 그 많은 시화를 설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더욱 궁금하였다.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시를 제출하여 둘레길을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됨은 아름다운 일이다.

자신의 작품을 감상도 하며 자축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한편 이 시화전을 통하여 지나던 시민들이 이 시화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학의 향기를 접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정서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라 믿는다.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님도 남산자락에 더 많은 시화를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이번 시화전에 좋은 작품을 내어준 시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2번째로 실시하는 시화전이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남산자락 숲길에 〈숲속의 하모니〉 주제로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져서 중구문인협회 명성이 빛나고 내년에는 더욱 멋진 시화전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4.9.25.(수) 한국문학신문 심명구 대기자)



사라예보의 장미



김 호 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총탄 자국을 빨간색 페인트로 메운 건물들
총탄 자국을 지우려고 그랬단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빨간 고무 페인트
고무 페인트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빨간 고무 페인트로 메꾼 총탄 흔적
이곳 사람들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른다

사라예보의 장미
언젠가 탱크 포구에 장미 한 송이를 꽂아놓은 그림
내전으로 고립되었을 때 사라예보의 한 어린이가 그린
이 그림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그 그림이 떠올라, 나는
'사라예보의 장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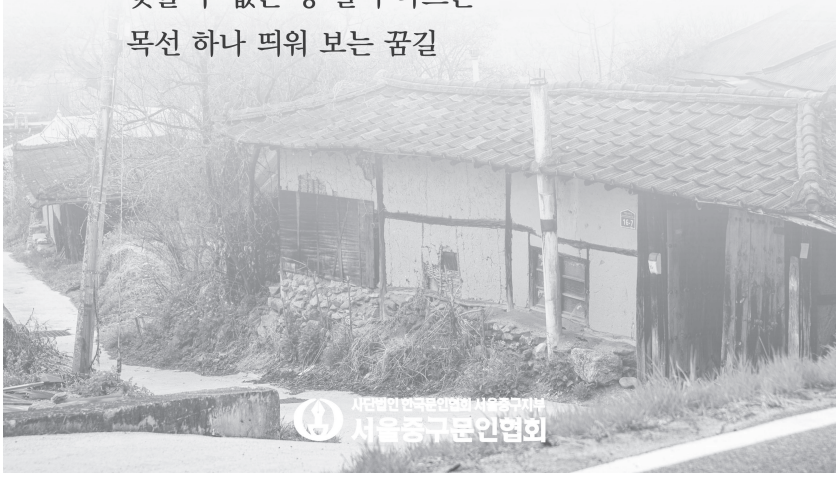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고향가는 꿈길



강 정 화
(한국문협 부이사장님)

이제는
여러 손에 의해 파헤쳐진
타인의 소유가 된 고향 땅
따스한 손길로 맞이 할 이 없어
노을진 들역 닮은 붉어진 두 눈
불어난 세월 따라
바람결에 고향 소식 물어 보다가
잊을 수 없는 정 실어 나르는
목선 하나 띄워 보는 꿈길



노송의 철학



박 영 하
(한국문인협회 시분과회장)

조용히 가을이 오는 밤
아낌없이
자신을 불태우는 나뭇잎 소리
내일 아침이 있기에
샘물처럼 그리움이 솟게 하라
사랑의 눈은
어두운 밤을 불태운다

밤에 시를 쓰는 건
당신의 마음에 수를 놓는 불꽃
비바람 진눈깨비 휘몰아쳐
살빛마저 희게 바래어도
잘 버티는 노송의 철학
나의 시는
깊은 산 노송의 울음이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제주 억새



고 응 남
(중구문협 자문위원)

산 중턱 억새야
머리털 백발도
그렇게 서 있는가

그대의 기개는
하늘로 꿋꿋하게
쳐다보는가

저 높은 한라산을
숨 가쁘게 넘어와서
털 수염 날리며
웃음을 주는가

이 가을 가기 전에
내 가슴도 활활 태워
날개 달아
그대 가슴에 안기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고목의 힘



길 숙 경
(중구문협 정회원)

회오리 모진 삭풍
흔들이며 살아온 고목

찢기어지고 갈라져도
처연한 너의 과묵함

숨 멎은 듯 까만 몸뚱어리
봄 햇살 잊은듯해도

새잎에 새 정을 나눠주니
노송의 모습이 꼭 당신 모습 같아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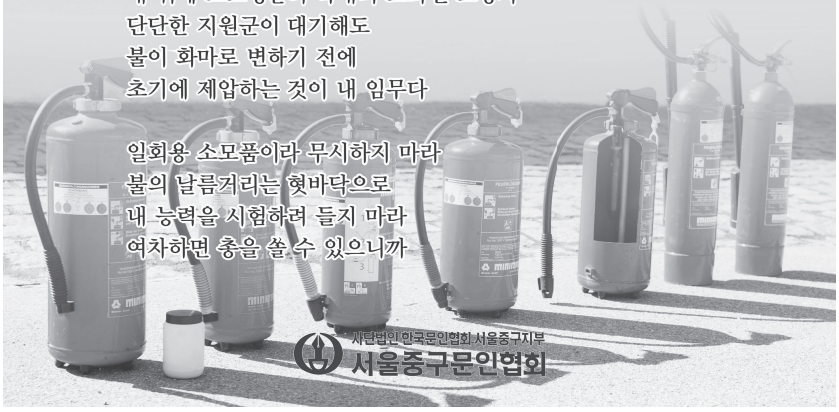
김 권 곤
(중구문협 정회원)

불을 보면 식욕이 돋는다
불은 내 사냥감
연기 열 불꽃을 감지한 초병이
경보음을 울리는 순간
나는 심장이 뛴다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종류별로 사용할 무기의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에 업고
자동소총을 옆으로 돌려가며 쏘듯
불의 급소를 향해 남김없이 쏘아야
속이 후련하다

내 뒤에 스프링클러 옥내외 소화전 소방차
단단한 지원군이 대기해도
불이 화마로 변하기 전에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내 임무다

일회용 소모품이라 무시하지 마라
불의 날름거리는 혓바닥으로
내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마라
여차하면 총을 쏠 수 있으니까



꽃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김 나 현
(중구문협 정회원)

꽃은
고운 향기로
천사의 말을 합니다

거친 들판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하며 견뎌냅니다

연약한 꽃은
천 번을 흔들리며 피어나도
하늘 향해 곧게 서 있습니다

꽃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꽃이 되어 가만가만 웃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꽃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기쁨 주며 살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찔레



김 나 현
(중구문협 회원)

본디 태생이 험하므로
화려하거나 정열적이거나
혹은 매혹적이거나 하는
붉은빛을 탐하지 않기로 했다

본디 태생은 험해도
하늘의 결을 역행치 않으려 애썼으나
더러는 달콤한 가시에 다친 이도 있어
그 죄 씻으려 하얀 향불 피우는가

가슴덤불 헤치고
송이송이 피워올린 눈물꽃
은은히 감동을 흔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골드의 하루(반려견)



김 봉 술
(중구문협 부회장)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기는 사랑
그리도 좋을까
하품도 하고 앞뒤 발을 쭈욱 내밀며
방가방가 재롱도 피운다

신발 끈 조여 매고 출근길 나설 때
개선장군처럼 달려오는 열정과 충성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 골드
기분 좋게 입 맞추며 시작하는 하루

길을 지나다 넉살 좋게
킁킁거리며 전봇대를 붙들고
주변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멀리 경관을 응시하며 콧노래를 부른다

일곱 살 우리 집 막내둥이 골드
전화벨 울리면 가장 먼저 달리고
소파 위 리모컨을 가져다 놓고
이방 저방 서커스 공연 배우처럼
온몸으로 신나는 춤사위를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세월



김 봉 술
(중구문협 부회장)

흘러가는 강물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돌아가는 구름은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아름다운 꽃은
다시 피어도
우리의 젊음은
찾을 수 없네

산천의 색들은
변함이 없건만
나의 마음은
사색으로 변하네



충무로 사랑



김 상 실
(중구문인협회 이사)

친구야
어디서 뭐 하시는가

충무로 할매집
막걸리 다 익었다네

남산골 꽃 다 지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살다보면 살아지는 것
술이나 한잔 하세 그려



편지를 쓰려합니다



김 상 실
(중구문협 이사)

올 가을엔
꼭
편지를 쓰렵니다

누렇게 물든
꽃 편지지 꺼내어
파랑 잉크 찍어
편지를 쓰려 합니다

썼다 지운
수 천통의 편지는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올 가을엔
가슴 털어
사랑한다고
가을 닮은 편지 한통 쓰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목백일홍 사랑



김 성 희
(중구문협 수석부회장)

목백일홍 분홍빛 꽃자락에
하얀 모시 적삼 깊은 주름
할머니의 슬픈 얼굴이 배어있다

뽁뽁 기적소리 울릴 적마다
한자씩 더 늘어나던 할머니 목젖

서울 간 손주 녀석 행여
삐걱 대문 열고 들어올까
이미 기댐 목에 걸쳐진 싸리문
반쯤 졸린 눈을 비비고 섰다

기다림의 향기 그리움 동여 이고
철길 따라 떠난 지 오래

이슬의 무게마저 버거운
빛바랜 하얀 목백일홍
목마른 우물을 베고 누웠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안부



김 성 희
(중구문협 수석부회장)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지랑이 어르는 언덕길을
간들거리는 바람 혼자 맞으며
냉이꽃 친구 삼아
아련한 그리움 속삭이고 있나요

지나는 것은 세월만이 아니더라

쉽게 놓아지지 않는 낡은 기억들
고운 햇살에 널어 말리고
그래도 버리지 못한 아쉬움
째깍째깍 시계추 소리 심장을 울리면

궂이 버리려 애쓰지 말고
사람 냄새 그리울 때 다시 만납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나무 아파트 · 2



김 용 채
(중구문협 초대부회장)

피돌기 멈칫 서고 등뼈마디 죄 삭는다
속 가슴 텅 빈 나무 아파트를 지어 놓고
옥탑방 지하실까지 고루고루 나눈다

솔이끼 움트는 날 한입버섯 입 내민다
지하 방은 지잠 차지 로얄 층은 멧새 둥지
산빛도 나누며 사는 한 울타리 이웃들

거두고 다진 자리 훌훌 털어 다 내준다
살찐 흙 삭힌 거름 돋을 싹을 예비하고
목멱산 송신탑 끝에 솔 빛 저리 푸르다



세월이 가는 소리



김 정 자
(중구문협 부회장)

어스름
달빛아래
남산에 올랐다

스르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가을이
지는 소리다
세월이 가는 소리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유월이 오면



김 종 억
(중구문인협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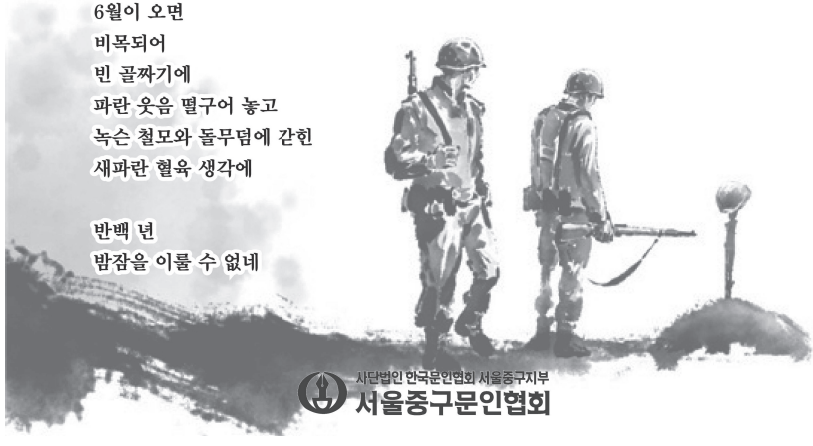
이름 모를 산하
뻐꾹새 울음소리 고요한 골짜기
무명용사의 흩어진 영혼이
춤추는 유월

핏빛 강물은 긴 내를 이루어
가슴속에 젖어 들고

홀로 서러워
이름조차 꺼내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놓고
끝끝내 속울음 하던 촌로는

6월이 오면
비목되어
빈 골짜기에
파란 웃음 떨구어 놓고
녹슨 철모와 돌무덤에 갇힌
새파란 혈육 생각에

반백 년
밤잠을 이룰 수 없네



그날



김 채 선
(중구문협 이사)

바람이 분다고
두려워할 이유 없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아낌없이 흔들리자
흔들리다 언젠가
제 자리로 돌아갈 날 있겠지

바람 불어 기쁜
우리 그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동네 한 바퀴



김 채 선
(중구문협 이사)

여름 새벽 다섯시 이십분
땀이 스며 불쾌한 바람이 아니라
날리고 짓이기는 큰바람 아니라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미소처럼
재미진 바람이 말을 걸고요
매실나무 베리나무도
제각각 달고 있는 잎을 흔들며
참새와 뻐꾸기도 미안함도 모린 채
큰소리로 정적을 깨우네요
저기 저짝 노오란 달맞이꽃
금계국은 또 어떻구요
웃어요 치아를 드러내며 웃어요
온통 부지런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세상
감사의 노래 부르며
이 하루 생의 심장으로 뛰어듭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공원에서



김 화 인
(중구문협 초대회장)

냉커피 마시면서
사색에 빠져있는

가녀린 여인네여
집에서 쫓겨났나

가방에
서러움 담아
슬픈마음 달래나



천사나팔



김 화 인
(중구문협 초대회장)

주님께서 하얀 날개를 입으시고
아름다운 천사를 태어나게 하셨나

떨어질라 하면 또 피고
바람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주님 향기가 흔들리는 발걸음 멈추게 하네

어디에서 찾아왔는가
백옥같이 흰 날개가 너무 아름다워
하얀 천사 꽃잎에 반해 버렸네

꽃잎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새로운 천사가 태어날 때면
내 마음도 새로운 각오로
주님 곁으로 한 발짝 다가가리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추억 속의 고향집



류 성 춘
(중구문협 정회원)

육 남매 나고 자란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송령의 초가집 한 채
봄이면 처마 밑 제비집
새끼들 나란히 나란히
밥 달라고 짹짹 합창하고
여름이면 모깃불 지피고
온 가족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어머니의 손맛으로 빚은
수제비 먹던 그 시절 그리움
가을이면 집 앞동산에 앉아
은하수 흐르는 별빛 아래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옛이야기
겨울이면 점방에 가 계신
아버지 귀갓길 위해
무릎까지 쌓인 비탈길 눈 치우고
마중 나갔던 아련한 추억들
세월 흘러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언덕 위의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

서울중구문인협회

세월



민 선 영
(중구문협 이사)

나 아직 그대로 앉아 있는데
어딜 그리도 바쁘게 뛰어가는가
저 멀리 밀려오는 그리움

나 아직도 여기 앉아 있는데
저 하늘 바람도 구름도
다가섰든 그리움도
바람 되어 바쁘게 가는구나

나 아직도 먼 산을
호젓이 바라보고 있는데
서산에 산노을 그림자도
외로이 바쁘게 가는구나

나 아직도 그날처럼 노래 부르고 있는데
천년의 푸른 이끼 닦아 내듯
가슴 속에 맺힌 한 씻어 바쁘게 가는구나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물푸레나무



박 광 현
(중구문협 정회원)

나는 물푸레
산기슭 골짜기 물가에
혼자서 있는 연갈색을 띤
갈색 잿빛을 띤
물푸레
더러 흰 빛깔을 걸친
불규칙한 무늬의 외투
흰 반점이 사라질 즈음
햇빛을 좋아하는
아직 어린 나를 꺾어
맑은 물에 담근다 해도
아프다 하지 않고
맑은 미소를 우려내는
나는 물푸레
언제라도 푸르스름한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면
나를 물에 담가다오
나는 물푸레
파란 물푸레나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작은 구두 한 켤레



박 광 현
(중구문협 정회원)

네가 나의 옆집
내 집 앞 옆집이었으면
같은 땅을 밟고 사는
너였으면...

뒤늦게 알게 된
긴 세월 동안 옆집 살았던
아직도 믿기지 않는
작은 구두 한 켤레

그래서였을까
그래서 그랬을 거야
앨리스가 떠난 그 느낌
난 알 것 같아

음악은 말했어
슬퍼도 참는 것이라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하늘공원 억새



배 건 해
(중구문협 이사)

가을빛 물든 길 따라
금세라도 하늘에 맞닿을 듯한
하늘공원 억새

투명한 햇살에 빛나는 가을빛은
하늘공원에 오르는 이들을
무척이나 설레게 하고

울긋불긋 옷차림들은
색동옷 물들어가는 단풍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동안

금색 옷 갈아입은
억새의 몸짓은 가을 내음 속에
만추의 서정을 느끼게 한다



산사나무꽃



성 낙 범
(중구문협 이사)

산과 들에 초록이 물드는 시기에
어릴 적 보았던 하이얀 꽃
초가집 마당가 언덕에 화사한 봉우리

지금은 초가집도 산사나무도 없다
마당에는 노란 병아리와 암탉 한 마리
졸리운 오후 호밀밭에 부는 바람

음력 삼월 보름달에 빛나던 꽃잎들
가난 속에서 행복했던 봄날
태어나서 처음 본 그리운 사람 같은 꽃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요해



신 영 미
(중구문협 사무차장)

늘
가는 그곳에
상처투성이 그림자만 보인다

십여년 지낸 터에서
마음나눔의 시간들 찾을 수 없고
수없이 밟혀버려 울고있는
나의 그림자만 보인다

내 나이 더 익어서
모든 것 사랑할 수 있을 때
나의 마음 짓밟아 버린
그들의 발자국 이해할 수 있을까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칠순의 청춘



신 영 미
(중구문협 사무차장)

주름진 손으로
쑤욱
누가 볼세라
부끄러운 듯
검은 봉지 내 손에 쥐여주고
교실 문을 나가시는
칠순의 청춘

못 배운 것이 한이여
한글을 누구보다도 열심이신
칠순의 청춘

궁금하여
열어보니
먹음직한 김치

와아

먹음직한 김치에
마음이 따습고
사랑이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인생의 가을



안 재 헌
(중구문협 자문위원)

오늘은 진천으로
내일은 진주시로
출장을 향하는 발길이 분주하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잎새들이
어느새 푸른빛에서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나보다 더 바쁜 계절의 변화에
문득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뿔싸 내 머리에 찬 서리가
수북이 쌓인 것을 미처 몰랐었구나
곱게 물든 잎새 열차의 거센 바람 타고
힘겨운 비행을 하고
땀방울로 얼룩진 내 삶도 슬픈 곡예를 한다
포장처럼 둘러맨 와이셔츠와 넥타이 풀고
분주한 시간을 잠시 멈추어 세우고
침묵으로 말하는
잎새 하나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미처 돌보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이
썰물처럼 슬픔으로 다가와 안긴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가을 속으로



안 주 일
(중구문협 초대부회장)

아파트 옆 초등학교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경쾌한 발걸음과
교정에 울려 퍼지는 교향곡은
어릴 적 추억 불러오는 아름다운 멜로디

찌는 무더위 이겨낸 체력으로
대문 밖 새로운 계절로
신선한 공기 찾아 나서면

학교 앞 가로수 길가엔
수북이 쌓인 낙엽 보이고
가지마다 울긋불긋 꽃잎이

어느새
내 가슴에 스며들어와 살포시 안긴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응봉 숲 찬란한 바람



안 준 영
(중구문협 이사)

응봉산 자락을 잇고 있는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 남산에
흔들리는 바람이 머문다

여기
이미 와 있는 나와
시간을 먹고 홑씨로 날아든 네가 있을 뿐

스치듯 머물며 비껴가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숨결이 느껴지는 가슴에 기대는
기대로



일상에서 1



오 정 선
(중구문협 정회원)

모두가 잠든 시간
나 홀로 극성을 떠는 걸까

모두가 잠든 시간
나 혼자 멀뚱멀뚱 깨어 있으면서
고요함을 통째로 삼킨다

모두가 잠든 시간
유리 창문을 열고
광활한 하늘을 올려다본다

표현하기 어려운 색채를 잔뜩 머금은 하늘은
하품도 하지 않고 졸리지도 않은가 보다

골목길을 내다본다
칠흑 같은 어둠을 잉태한 거리에
서 있는 가로등은
고개 숙여 선잠 자고 있겠지

이제 지친 육신을 침대에 털썩 맡겨야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어김없이 열어주는
새로운 아침을 감사하게 맞이해야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무지갯빛 사랑



오 지 숙
(중구문협 자문위원)

한여름 소낙비 내린 후에
무지개 피어나듯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대는 빛이 되고
난 무지개 되어
곱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대와 내가 늘 함께하며
욕심 없는 사랑으로
행복하게 다독이며 살아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비오는 날



유 긍 모
(중구문협 부회장)

창가에 흐르는 빗물은
지난 추억의 저린 가슴을 적신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삶의 무게를 씻기고
찢겨진 상처
잔잔한 다독임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이 비를 흠뻑 맞아도
난 슬프지 않을거야



어머니



유 긍 모
(중구문협 부회장)

그리움의 방 도화지
어머니의 얼굴을
하얀 백지에 그려봅니다

웃는 모습 그릴까
고된 얼굴 그릴까
눈 감으면 그리운 얼굴

손으로 그릴 수 없는 기억
주름진 세월의 눈가는
울컥거리는 가슴에 아려오고

눈앞에 흐르는 눈물방울 따라
상상으로 보이시던 날
떠오르는 그리운 그 모습 선명한데

떠오르지 않는 까마득한 기억
먼 산 날아가는 새를 바라본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나는 누구일까요



이 건 용
(중구문협 정회원)

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든 아니든
살아있는 생명이든
그 무엇과도 교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나는 내가 관찰하는 만큼
나는 내가 깨달은 만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 일까요

나는 시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시절 인연



이 경 희
(중구문인협회 부회장)

표현할 수 없어 숨죽인 사랑
그리움의 꼬리 잡고 오늘도 보고 싶다

시절 인연 못내 아쉬워
가슴에 묻었던 사람 어루만져
보지만 곰삭은 동아줄 흐느적거린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조각난 심상 붙잡고
행여나 그 임 오시려나 서성인다.



시커먼 물안개



이 경 희
(중구문협 부회장)

목젖을 광란으로 떨고
목메어 우는 묵언이 애처롭다

쓰디쓴 맛을
친숙한 친구로 벗 삼아
누구를 똑 닮은
텅 빈 하늘 덮고 누오니

따스한 고드름이 이웃한
어금니들을 뜨겁게 포옹한다

시커먼 물안개
막 내린 공포에 몸통을 관통하는
가슴 떨림이 끝이 없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이 가을엔



이 덕 희
(중구문협 정회원)

이 가을엔 누군가와
커피 향 짙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물안개 자욱한 호숫가
창 넓은 창가에 마주 앉아
다정한 눈빛으로 사랑 나누고 싶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사각대는 낙엽 밟으며
누군가와 같이 탱고 춤을 추고 싶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옷깃 세우며
따뜻한 손 잡아 줄
그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가을엔
내 마음 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 멋진 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남산 꽃



이 동 구
(중구문협 회원)

눈감아도 피더라
아주 잠깐이면

가시를 밟았어도
눈물 먹었어도

일출에 걷히는
운무의 날림 속

피리라는 순간
고개를 드는 꽃.



하늘



이 동 구
(중구문협 정회원)

잘 쉬시었소
나의 임

눈 뜨면
임 보는 것
이제 큰
설렘인 걸

어두우면
어둡더니
임 밝아
나 밝으오

눈감아도
내내
들뜬 쉼

닿으련마는
임
가슴 뜨오.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중구문인협회

비오는 날 서울



이 두 백
(중구문협 명예회장)

줄기세포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한강물을 바이칼호의 물로 어떻게 정화시켜
서울의 심장으로 만들까
히말라야와 우랄산맥의 마그마로
어떻게 북한산과 도봉산의 힘센 척추를 만들어
오염된 서울의 공기를 히말라야와 우랄산맥 같이 정화 시켜갈까
줄기세포는 인터넷과 여의주를 뒤척여 본다
서울 평양과 6대 주에서 살아온 배달민족의 가슴을 묶어
5대양을 떠다니는 한국산 선박들 위에
백두산 원목 개성 공산품들을 어떻게 가득 실어 나르게 해줄까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같은 첨단 제품들이
6대 주를 계속 누비도록 어떻게 남북이 힘을 합하도록 해줄까
배달민족이
6대 주에서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 진화를 거듭하여
그 심장과 두뇌가
빛의 우주에 작품을 계속 뿌려가고
생명 뿌리 자양분을 서울에서 풍성히 공급하도록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세계 속의 서울 남산



이 두 백
(중구문협 명예회장)

남산이 서울에 있어
대평원에 자리 잡은 미국 시카고 같은
막막함과 지루함에서 쉬 벗어날 수 있지

남산이 서울에 있어
프랑스 파리 몽마르뜨언덕보다
더 아기자기한 삶의 운치 만들어갈 수 있지

남산이 서울에 있어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주위보다
더 멋진 나들이 길과 둘레길 즐길 수 있지

남산이 서울에 있어
러시아 모스크바 높이보다 더 높게
평화와 인간 존엄성의 탑을 세워갈 수 있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달의 침묵



이 명 순
(중구문협 부회장)

잿빛 하늘을 밀어 올리고
둥근 조각보가 펼쳐진다

아무도 보지않는 귀퉁이에
빼꼼 내민 보드레한 얼굴
은근한 미소
총알처럼 심장에 박힌다

박하향처럼 번지는
느린 시계바늘이 어둠을 살라버린다

이슬처럼 떨어지는 눈물이
땅위로 스밀 때
우울의 껍질이 벗어진다

침묵으로 건네는 다사로운 위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산사의 새벽



이 명 순
(중구문협 부회장)

풍경도 잠이들어 처마에 맺힌 고요
귓가에 울려 퍼진 삼경의 종소리에
관세음 인자한 미소 화톳불에 번지네

밤사이 무명천이 하얗게 널린 도량
간절히 염원하며 돌아드는 탑돌이로
숫눈에 새긴 발자국 천만 번의 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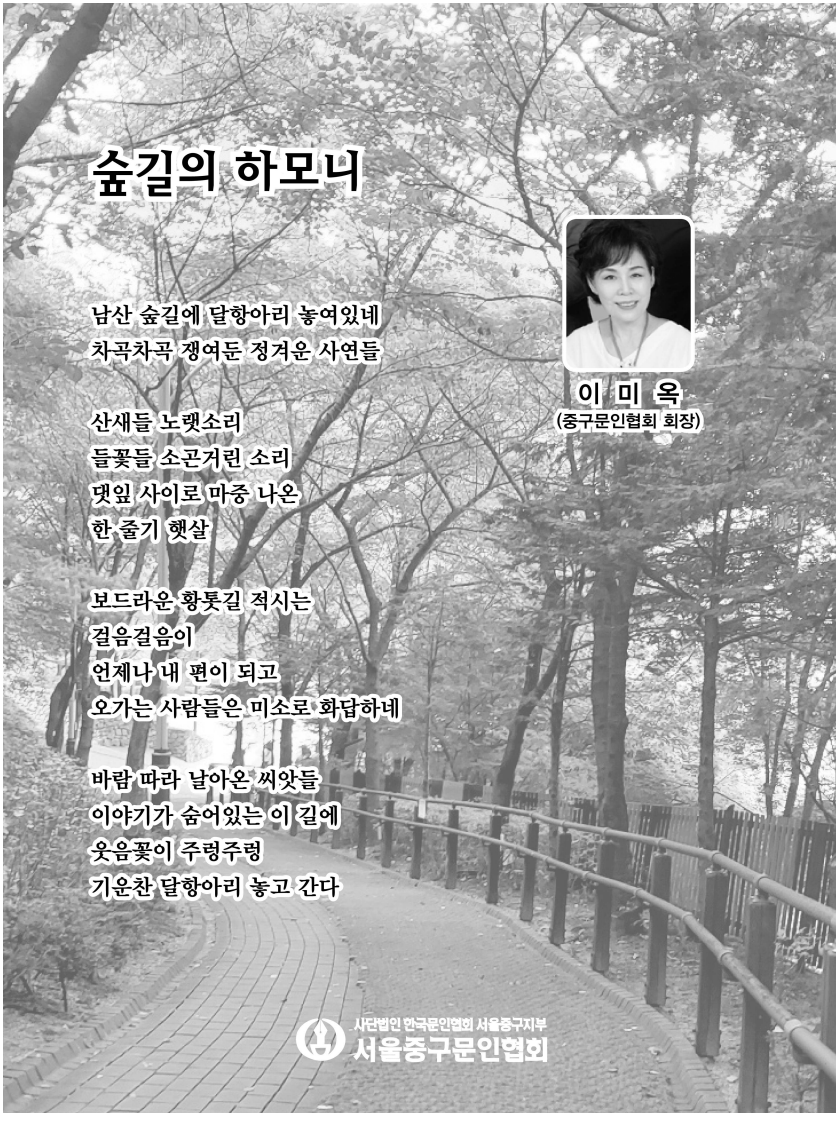
몽돌의 사랑



이 미 옥
(중구문인협회 회장)

쪽빛 하늘 곱게 빚은 뭉게구름
수평선 따라 옥색 비단 휘감길 때
너울너울 파도 따라 오신다던 내 님
모나지 않은 온전한 사랑 주려고
밤새 파도에 씻겨 매끄럽게 단장하니
지나가던 홍게
살짝 질투나 곁눈질하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미역 한 가닥
나를 유혹한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 님의 노랫소리
수줍은 낮달 하얀 미소로 마중오고
그대는 내 사랑 몽돌의 사랑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숲길의 하모니
남산 숲길에 달항아리 놓여있네
차곡차곡 쟁여둔 정겨운 사연들
산새들 노랫소리
들꽃들 소곤거린 소리
댓잎 사이로 마중 나온
한 줄기 햇살
보드라운 황톳길 적시는
걸음걸음이
언제나 내 편이 되고
오가는 사람들은 미소로 화답하네
바람 따라 날아온 씨앗들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 길에
웃음꽃이 주렁주렁
기운찬 달항아리 놓고 간다
이 미 옥
(중구문인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창



이 정 선
(중구문협 회원)

상위 1% 지향하며
필살기 펼쳐지는 소리
하늘 문 열어
많은 별들이 내려온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심성 하나
뿌리 깊은 나무되어
한껏 보듬어 보는 가슴

채움보다 비움으로
타인에게 배려하는 마음
자신만의 색을 지닌 채
아름다운 행보 간절한 기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도산서원에서



이 정 연
(중구문협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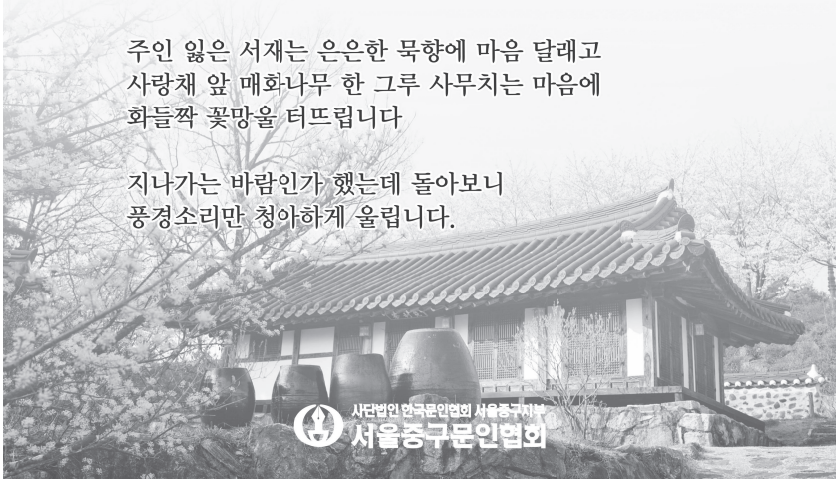
산모롱이 돌아서면
바람도 쉬어가는 양짓녘에
고목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발아래 흐르는 강물은 산 그림자를 안고
한낮의 정적을 깨웁니다

수백 년 된 흙담은
두꺼비 등 같은 기와를 이고
유생들이 드나들던 문지방 바라보며
눈시울 적십니다

주인 잃은 서재는 은은한 묵향에 마음 달래고
사랑채 앞 매화나무 한 그루 사무치는 마음에
화들짝 꽃망울 터뜨립니다

지나가는 바람인가 했는데 돌아보니
풍경소리만 청아하게 울립니다.



개구리는 울고 있다



장 윤 숙
(중구문협 이사)

논밭 대신
도심 한복판 광화문 네거리
요란한 개구리 소리
개굴개굴

갈아 엎어버린 논밭에는
점박이 황소개구리들만 모여앉아
큰 눈알 부라리며 개구리 찾는 소리
논밭 헤집고 쾍쾍 깨골깨골

갈 곳 없는 개구리는
서러워 서러워서 주야로 도심에서
새 둥지 찾아 오늘도 울어 댄다
개굴개굴



왜가리



정 동 윤
(중구문협.숲해설사)

음흉한 홍제천의 포식자인가
무아의 경지에 이른 고고한 신선인가

흐르는 구름 일렁이는 물빛도
왜가리 꼿꼿한 자세 흔들지 못한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부리에서 발끝까지 미동조차 없다

이따금 번쩍 눈을 떠서
무심히 물결 아래 내려다볼 뿐이다

노란 장화 쇠백로가 가까이서
물장구치며 떠들썩해도 홀로 고요하다

저 왜가리 좁은 목구멍으로
어른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꿀렁꿀렁 삼키는 걸 보니

왜가리의 목묵부답 기도하는 모습
참으로 예사롭지 않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가녀린 꽃



정 은 정
(중구문협 사무국장)

애틋한 가을 서정
연분홍 순수향기

새침한 여덟 꽃잎
아가별 노란 뜰에

애잔한 가녀린 줄기
꽃물결에 춤춘다.

농익은 달빛 들녘
소녀의 여린 순정

바람결 너울지는
청초한 별꽃들이

갈바람 흩날린 꽃씨
기약 없어 슬퍼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맑음 더하기 맑음



정 은 정
(중구문협 사무국장)

하얀 뭉게구름 하얀 물고기되어 하늘가 유영하고
아침은 안개꽃 피어올려 하루를 기다리며
뜨겁던 여름은 담담히 보낸다

파랑 더하기 파랑은 맑음
맑음 더하기 맑음은 바보들의 시간 여행이며
세월은 거꾸로 흐를수 없는 진실이다

오색빛 가을은 무릎 앞에 서성이며
겨울이 초침의 흐름으로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두렵지 않을 가슴을 열어 심장을 뛰게한다

여린 초록은 유년 시절
여름은 청춘이라고 가을 문턱에서 외치며
나의 숨은 아직도 진행형임을 하늘에 고한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그림 속 세상에 서서



정 은 희
(중구문협 회원)

온 세상에 흰 눈이 쌓이고
보이는 깃은 길과 나무들뿐
하늘이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흰 눈을 내려 밑그림을 그려 놓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마음속에 있던 상상의 세계가
아름다운 채색 그림을 펼쳐진다

아픈 상처들을 모두 씻어주며
온통 하얀 세상으로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마치 그림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만의 그림 세상이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빗소리



정 은 희
(중구문협 정회원)

음악 소리처럼 울리긴
아침을 깨운다
창밖에 비 님들이 이어진 소리를
내면서 들려준다

작은 멜로디에 춤추는 것처럼
흔들리게 하며
작은 멜로디는 심장을 뛰게 하며
터질 것 같은
음악 소리로 들려준다

아픔을 씻어 내주는 것처럼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힐링 소리

더 세찬 비 님이 내린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빗소리에
기도한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들이 비로 씻겨 내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한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호국의 꽃



최 성 용
(중구문협 회원)

남산 기슭 충혼탑
조국을 위하여
작열이 산화한 이름 모를 영웅들이여
애국 영령들을 추모하노라

목숨 바친 그 길
무사 귀환 빌며
홀로 울어 지친 어머니
모두 남겨두고 어디에 계시는가요

흩어진 혼백은
조국을 수호하리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넋이여
고귀한 당신의 희생
밑거름되어 지금 화려한 꽃을 피웠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그 길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꽃다운 청춘 영혼들이여
천년만년 영원하소서



하느님



하 성 호
(중구문협 정회원)

들립니까
낱알의 씨가 묻혀
싹을 틔우며
가지 뻗는 저 소리가

세포마다
마디 겹겹이 둘러싸여
판소리 역사 마당
피울음 소리를

그래도 꽃 핀 아픔이
열매로 맺히면
서로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발걸음 소리

우리는 그냥 살면서도
당신이 하느님임을
알아야만 삽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남산길



황 용 운
(중구문협 감사)

어둠이 드리워진
남산 길을 걷는다

외로이 걷는
검은 아스팔트 위

가로등 불빛 아래
아른거리는 그림자

나보다
더 먼 길을 걸어온 듯한
여인의 어깨가 보인다

가로등 불빛은 반짝이는데
아련히 밀려오는 그리움
가눌 길 없어
꽃샘추위 찬바람에
띄워 보낸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홍시



황 종 택
(중구문협 자문위원)

파란 하늘에
점점이 박힌 자수정

풀 향기 실은 바람
햇살에 놀고
노을을 감았네

동짓달 하루해 짧다고 했는가
감 따는 날 하루는
오뉴월보다 길다

처절하도록 붉은 감나무는
그때처럼 마을을 태우고
먼 산 떼까치 목청 요란한데

노을에 젖은 어린 누이
콩새처럼 쪼그리고 앉아
홍시를 쪼던 모습
어디에도 보이질 않네

뿔뿔이 흩어진 추억
계절의 목 움츠리며 지나간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서울중구문인협회

중구신인문학상 공모

시인 | 수필가 | 작가 등용문

1. **시행 목적** : 물질과 황금만능의 이기주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문학을 통한 정서함양과 감성고양을 통한 힐링과 회복으로, 보다 가치있는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데 있다.

2. **시행 주체** : (사)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후원·협찬 :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문인협회서울지회, 서울 중구청

3. **응모 장르** : 시, 시조, 동시(5편 이상), 동화, 수필(각 3편), 소설, 평론(각 1편), (사진, 약력 6행 첨부)

4. **응모기간** : 2025년 12월 3일

5. **접수처** | lmojrhr@hanmail.net
   ('중구신인문학상 응모작' 명기)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B111호
   문의 : 회장 010-9958-6226

6. **심사위원** : (사)한국문인협회 소속 저명한 문인으로 구성

7. **시상 및 특전** : 각 부문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패를 수여하고(등단!), 서울중구 문인협회 정회원으로 입회자격을 부여하며, 일정 기간 활동 후에 (사)한국문인협회 정회원 입회를 추천 함.

* 문학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한때 문학 소년, 소녀였던 분들은 그 누구든지 용기를 내셔서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문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장 이미옥

중구문학
THE JUNGGU LITERATURE

2024년 통권 제15호

인 쇄 일 2024년 12월 28일
발 행 일 2024년 12월 28일

발행인 및 편집인 이 미 옥
발 행 처 (사)한국문인협회 서울중구지부
편집 고문 김화인, 이두백
편집 위원 김종억, 김성희, 정은정, 신영미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B111호
전 화 010-9958-6226
E-mail lmojrhr@hanmail.net

정 가 20,000원